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1983-01

2020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집

문화재청

목 차

Ⅰ.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08
2.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단계 12
3. 문화재 안내판 안내 문안을 쓰는 방법 22

Ⅱ. 2020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1. 건조물 37

- 비석 / 관아건축 / 고택 / 향교·서원 / 사묘재실 / 누·정

2. 사적지 69

- 선사유적·발굴터 / 관방유적 / 유허지 / 묘역

3. 불교문화재 87

- 탑·부도 / 불상 / 불화 / 고건축 / 사지 / 비석 / 종

4. 자연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117

- 식물류 / 화석지질 / 명승류 / 무형문화재 / 동물류

5. 근대문화재 137

- 근대동산 / 근대시설 / 근대건축

III. 부록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안내판, 안내 문안) 154

문화재 주변 공공디자인 점검표 (안내판) 163

문화재 안내판의 다양한 사례 165

예천 초간정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75호

예천 초간정
Chogangjeong Pavilion, Yechoon
초간정

Ⅰ.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2.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단계

3. 문화재 안내판 안내 문안을 쓰는 방법

PART. 1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 문화재와 문화재 안내판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며, 우리나라의 문화재 종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문화재의 종류

<table>
<tr><th colspan="8">지정문화재</th><th rowspan="2">등록문화재</th></tr>
<tr><th>지정주체</th><th colspan="2">유형문화재</th><th>무형문화재</th><th colspan="3">기념물</th><th>민속문화재</th></tr>
<tr><td>국가지정</td><td>국보</td><td>보물</td><td>국가무형문화재</td><td>사적</td><td>명승</td><td>천연
기념물</td><td>국가민속문화재</td><td>국가등록문화재</td></tr>
<tr><td rowspan="2">시도지정</td><td colspan="2">시도유형문화재</td><td>시도무형문화재</td><td colspan="3">시도기념물</td><td>시도민속문화재</td><td rowspan="2">시도등록문화재</td></tr>
<tr><td colspan="7">문화재자료</td></tr>
</table>

문화재 안내판이란 문화재의 정보와 가치를 관람객에게 공공언어로 알려주는 길라잡이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의 종류에는 해설안내판과 기능성 안내판이 있습니다. 해설안내판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1개 이상의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의 종류

종합안내판 (사적 제117호 경복궁) 문화재 전체 영역을 종합하여 설명	**권역안내판**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문화재 전체 영역 중 권역을 설명
개별안내판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41호 홍산동헌) 개별문화재 한 건을 중심으로 설명	**기능성 안내판** (사적 제89호 부여 석성산성) 길 찾기, 금지·주의 등 관람정보 제공

2)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는 이유

세벌대기단, 굴도리집, 겹처마, 오량가구, 불발기를 두고 있고,
상하에 띠살, 교살, 딱지소, 굴도리……

혹시 도 장관님, 뜻을 한 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전통가옥 연구자들에게는 관심사일지 몰라도
일반 국민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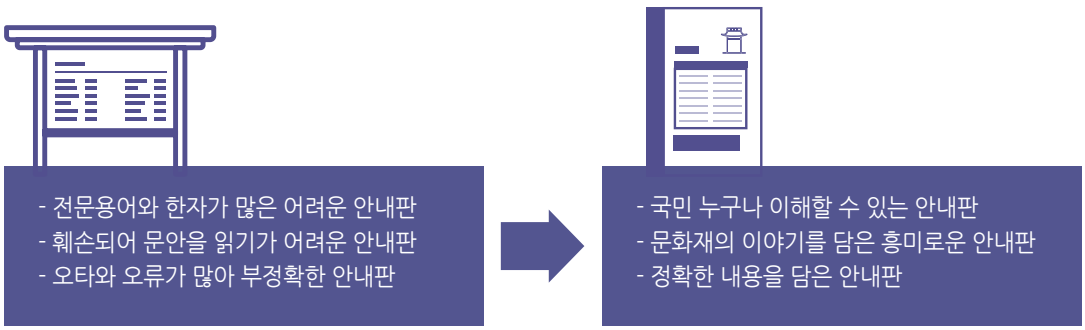
제가 느끼는 궁금증은
'이게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을까? 언제? 왜?
이게 지금 청와대 안에 이 자리에 있지?' 입니다.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안내판에) 한 마디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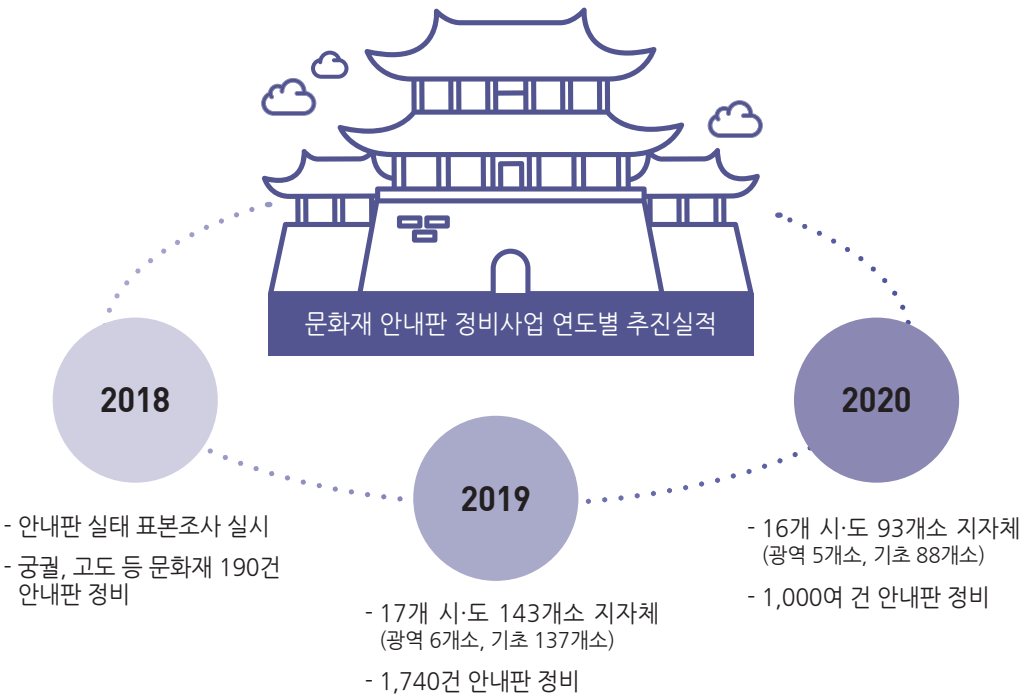
2018년 5월 29일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 말씀

문화재 안내판은 문화재를 이해하는 첫 관문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문화재 안내판은 전문 용어와 한자어,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국민들이 문화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2018년부터 국민 누구나 문화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민 누구나 문화재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안내판, 이야기를 반영한 흥미로운 안내판, 국민 참여를 통한 쉬운 안내 문안 집필**을 정책 방향으로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방향



2.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단계

1 문화재 안내판 실태조사

(전년도) 1~5월
- ○ 문화재 안내판 실태조사 및 정비대상 문화재 선정

(전년도) 6~7월
- ○ 정비대상 문화재 안내판 국고보조사업 신청

2 안내 문안 작성 및 시민자문단 검토

3~4월
- ○ 시민자문단 구성(문화재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3~5월
- ○ 안내 문안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른 문안 작성

5~6월
- ○ 안내 문안 시민자문단 검토

3 국·영문 감수 및 문안 최종 확정

6~8월
- ○ 국립국어원, 지역 국어문화원을 통한 국문 감수
- ○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한 영문 감수

4 안내판 제작과 설치

9~11월
- ○ 문화재 안내판 설치업체와 계약
- ○ 문화재 안내판 최종 레이아웃 및 설치 위치 검토
- ○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주변 정비

5 DB등록과 사후 관리

12월
-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DB등록
- ○ 안내판 점검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 사후관리

1) 문화재 안내판 실태조사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의 첫 단계는 바로 우리 지역 문화재 안내판의 실태조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문화재 안내판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내 문안의 내용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적절한지, 안내판의 설치 위치가 문화재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를 파악합니다.

이후 훼손이 심해서 식별이 어려운 안내판, 전문용어가 많아 읽기 어려운 안내판, 문화재 관람에 방해가 되는 안내판을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다음의 표는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 대상 문화재를 선정한 지자체입니다.

지자체별 안내판 실태조사 내용

순번	지자체	조사내용
1	대전광역시	- 매년 지자체 자체 안내판 전수조사 실시 - 훼손이 심한 안내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진행
2	경남 함안군	- 지역 연구기관과 사업용역 체결, 정비대상 안내판 실태조사 진행
3	경기 양평군	- 사업진행 전년도에 문화재 안내판 실태조사 실시 - 훼손이 심한 안내판, 전문용어가 과도한 안내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진행
4	경기 안양시	- 사업진행 전년도에 문화재 안내판 실태조사 실시 - 훼손이 심한 안내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진행
5	경남 사천시	- 사업진행 전년도부터 당해연도 초까지 문화재 안내판 실태조사 실시 - 훼손이 심한 안내판, 전문용어가 과도한 안내판, 위치 부적절 안내판을 우선적으로 정비

(출처 : 2019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2) 안내 문안(초안)작성 지원사업

문화재청은 2020년에 안내판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안내 문안(초안)작성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안내 문안(초안)작성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신청을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 지자체로부터 안내 문안 관련 자료를 취합한 후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확한 안내 문안(초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내 문안(초안) 작성 지원사업 추진단계

신청서 접수 및 선정	문안(초안) 작성	지자체 발송
- 신청서 접수 - 지자체 선정 - 자료요청	- 안내 문안(초안) 작성 - 문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진행 -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한 문안 수정 - 안내 문안(초안) 확정	- 최종 안내 문안(초안) 지자체 발송
2월	3월 ~ 6월	4월 ~ 6월

안내 문안(초안)작성 지원사업은 안내 문안의 초안을 작성해 주는 사업으로 **지자체는 초안을 받은 이후 추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민자문단의 검토를 진행해야 하며, 안내 문안을 확정하고 국·영문 검토를 받습니다.

초안 지원 사례 **《 청주 흥덕사지 》**

문화재명	청주 흥덕사지
종목번호	사적 제315호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기존 문안	흥덕사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간행한 곳이다. 이 책은 고려 우왕 3년(1377)에 백운화상(1298~1374)이 「불조직지심체요절」을 간추려 엮은 것을 그의 제자들이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이다. 이 책은 독일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보다도 78년이나 앞서 인쇄된 것으로, 2001년 9월 4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흥덕사터는 1985년 발굴조사 결과 금당터와 강당터, 그리고 탑터와 이들을 둘러싼 회랑터의 일부가 발견되었다. 이와 함께 각종 기와와 전돌, 그릇 조각을 비롯하여, 청동으로 만든 금구(禁口), 작은 종, 금강저(金剛杵) 등이 출토되었다. 현재의 모습은 발굴 결과에 의하여 금당과 삼층석탑을 복원한 것이다. 흥덕사터에 청주고인쇄박물관이 건립되어, 인쇄와 관련된 문화의 변천과 발전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지원 초안	이곳은 9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흥덕사(興德寺)의 옛터이다. 흥덕사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하 『직지』)을 간행한 곳이다. 『직지』는 백운화상(白雲和尙, 1298~1374)이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간추려 엮은 책을 우왕 3년(1377)에 흥덕사에서 인쇄한 것으로, 역대 여러 부처와 고승들의 법어, 대화, 편지 등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담고 있다. 이는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간행보다 78년이나 앞선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1985년 이곳에서 '흥덕사'라는 글씨가 새겨진 금구(禁口)가 발견되어 흥덕사의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각종 기와와 전돌, 그릇 조각을 비롯하여, 청동으로 만든 작은 종과 금강저 등이 출토되었다. 현재의 모습은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당과 삼층석탑을 복원한 것이다. 현재 흥덕사지 옆에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있으며, 맞은편에는 근현대인쇄전시관과 청주시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이 들어서 있어, 한국의 인쇄 문화와 금속활자 제작 기술의 발전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개선 문안	청주 흥덕사지는 9세기 통일신라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흥덕사(興德寺)의 옛터이다. 흥덕사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하 『직지』)을 간행한 곳이다. 『직지』는 백운화상(白雲和尚)이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부처와 고승들의 법어, 대화, 편지 등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엮은 책으로, 우왕 3년(1377)에 흥덕사에서 인쇄하였다. 이는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간행보다 78년이나 앞선 것으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1985년 발굴조사 중 이곳에서 '흥덕사'라는 글씨가 새겨진 금구*가 나와 이곳이 당시의 흥덕사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종 기와와 전돌, 그릇 조각을 비롯하여, 청동으로 만든 작은 종과 금강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현재는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당과 삼층석탑을 복원하고, 회랑지와 강당지도 주춧돌이 노출되도록 잔디를 심어 정비하였다. 현재 흥덕사지 옆에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있으며, 맞은편에는 근현대인쇄전시관과 청주시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이 들어서 있다. 금속활자 인쇄술은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지식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가능하게 한 획기적인 발명이자 우리 조상들의 문화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인쇄 문화와 금속활자 제작 기술의 발전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금구(禁口): 청동으로 만든 북으로, 공양을 알리거나 사람을 모으는 용도로 사용함. **금강저(金剛杵): 승려가 불도를 닦을 때 쓰는 법구의 하나로, 번뇌를 깨뜨리는 보리심을 상징함.

3) 시민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문화재청은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안내 문안의 작성과 검토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지자체별로 '시민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별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은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시민, 학생들이 참여하여 안내 문안의 작성과 검토과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민자문단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3명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며, 회의·메일·설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합니다.

시민자문단 구성

구분	참여대상	
자문위원 (10명 내외)	전문가	문화재, 역사, 건축, 조경, 국문, 영문,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지역의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교사, 학생, 문화유산해설사, 문인, 시민단체 등
	공무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시민자문단은 안내 문안의 작성 과정에 참여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내 문안의 난이도가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에 적절한지, 문안의 내용에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가 있는지 살피며, 이외에도 안내판의 설치 위치나 안내판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합니다.
사업 담당자는 시민자문단의 의견을 적절하게 수렴하여 안내 문안에 반영합니다.

시민자문단 검토 주요 내용

시민자문단 검토사항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 읽고 충분히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는가?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가?
	안내판의 설치(예정) 위치는 적절한가?
	기타 문화재 안내판 관련 개선사항 및 아이디어 제시

4) 국·영문 감수와 유의사항

시민자문단의 검토를 거쳐서 확정된 안내 문안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국·영문 감수를 받습니다. 국문 감수는 지역별 감수기관에서 진행하며, 영문 감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해 진행합니다. **국·영문 감수는 안내 문안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최소한 1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되며, 사업 후반기에는 지자체별 감수 요청 과다로 인해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① 전국 국어문화원 연락처

시도	기관명	대표번호
서울특별시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02-2669-9726
	세종 국어문화원	02-735-0991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	02-780-5084
부산광역시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051-200-7180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	053-950-7497
인천광역시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032-860-8394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062-530-0313
울산광역시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052-259-1911
경기도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031-400-4513
강원도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033-250-8138
충청북도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043-261-3450
충청남도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041-550-5391
전라북도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063-220-3096
경상북도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053-810-3561
경상남도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055-772-0768

② 영문 감수기관 연락처

시도	기관명	대표번호
전국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031-728-9884

5) 문화재 안내판의 제작과 설치 유의사항

국·영문 감수를 통해 안내 문안이 확정되었으면, 안내판 설치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 안내판의 디자인을 검토**하여 신규 안내판이 문화재와 적절하게 어울리는지, **안내 문안의 여백·글자체·글자 크기가 읽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자세히 검토합니다.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문화재 안내판의 배열구성

글자 크기는 관람객이 식별할 수 있는 적정 크기로 작성하되, 각각의 안내판 유형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해설안내판						기능성안내판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글자 크기	100	50	80	40	70	35	150	110

가독성을 높이는 정직한 서체가 바람직하며, 장식적 서체는 될 수 있으면 배제한다.
※ 추천 서체(국문): 제목(윤고딕 패밀리) / 본문(윤명조 패밀리)
※ 추천 서체(영문): (제목,본문)Calibri, Segoe UI, Tahoma, Verdana

(출처 :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별표2])

문화재 안내판 추천서체 적용사례 (국·영문)

경주 진평왕릉
慶州 眞平王陵
사적 제180호

이 능은 신라 제26대 진평왕(579~632 재위)을 모신 곳으로 알려져 있다.

Tomb of King Jinpyeong, Gyeongju
National Historic Site No.180

This is known to be the tomb of King Jinpyeong (r. 579-632). the 26th ruler of the Silla dynasty (57 BCE–935 CE).

이후 문화재 안내판의 디자인을 확정하고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이때 **신규 안내판의 크기가 문화재를 가리지는 않는지, 일반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휠체어, 보행 보조기기 사용자 등과 같은 다양한 이용자도 접근이 편리한지, 안내판의 재질이 문화재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여 문화재 안내판의 재질과 크기, 위치를 확정하고 설치합니다.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문화재 안내판의 크기	안내판은 인간체격기준척도에 따라 설치한다.
	문화재를 가리거나 관람객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안내판이 다수 설치될 경우 종류와 위계에 따라 크기를 달리 적용한다.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와 시선을 고려하여 크기를 설정한다.
문화재 안내판의 배치	안내판이 관람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안내판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통일한다.
	안내판의 재질은 빛반사와 눈부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출처 :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별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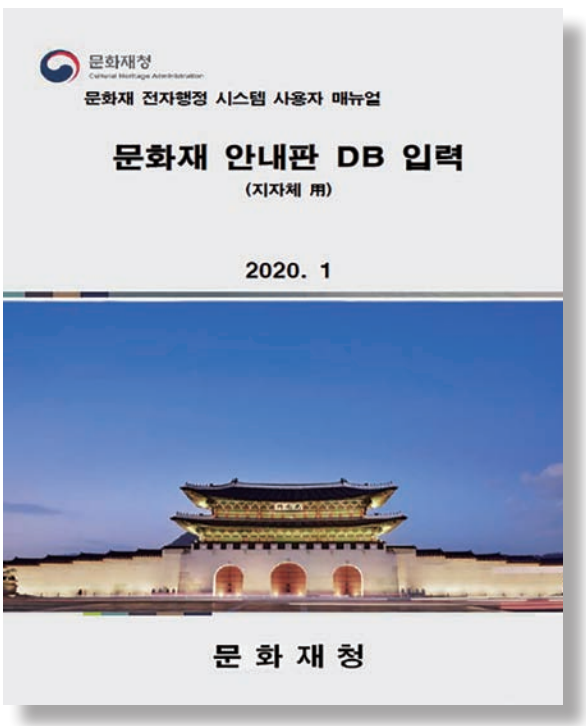
문화재 안내판 위치 개선사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14호 밀양향교)

개선전		<무엇이 문제인가요> - 문화재 관람 동선과 안내판의 위치가 맞지 않아 관람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 문화재 안내판을 나무가 가리고 있어서 안내 문안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개선후		<이래서 좋아요> - 안내판 위치를 문화재의 입구로 옮겨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안내판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DB등록과 사후관리

문화재 안내판을 새롭게 정비하였다면, **설치 후 14일 이내**에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문화재 안내판의 재질, 설치 일자, 유형별 안내판 적용 여부, QR코드 적용 여부, 안내 문안, 안내판 원경·근경·안내 문안 상세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추가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관리 및 점검해야 합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안내판은 대국민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DB자료 입력시에는 반드시 **새롭게 정비한 안내판의 원경, 근경, 안내 문안 상세사진을 고화질**로 등록해야 합니다.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2020, 문화재청)

3. 문화재 안내판 안내 문안을 쓰는 방법

안내 문안은 초등학생에서 성인까지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한다.

개선사례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太白 求門沼 前期古生代 地層 및 河蝕地形

천연기념물 제417호

구문소는 강물이 산을 뚫고 지나가며 큰 돌문을 만들고 그 아래 깊은 물웅덩이가 생겼다는 뜻의 '구무소'를 한자로 적은 것이다. '구무'는 옛말로 구멍이나 굴을 뜻하고 '소'는 한자로 물웅덩이를 뜻한다. 강이 산을 뚫고 흐른다고 해서 '뚜루내'라고도 한다. 『세종실록지리지』와 『대동여지도』에는 구멍 뚫린 하천이라는 뜻의 '천천(穿川)'으로 기록되어 있다.

구문소는 황지천과 철암천이 만나는 곳이다. 황지천과 철암천의 두 물길이 원래 지하에 있던 동굴과 만나 점차 동굴을 넓혔고, 지상에도 동굴 모양의 지형을 만들었다. 지상에 만들어진 동굴을 보고 옛사람들은 양쪽의 물길을 지키던 두 마리의 용이 싸우다가 한 마리가 땅 아래에서 솟구쳐 올라 산에 구멍이 만들어졌다고 믿었다.

구문소의 독특한 지형을 보면 5억 년 전 한반도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 바다 환경에서 만들어진 석회암층에 나타난 다양한 퇴적 구조와 삼엽충 등 옛 생물의 화석이 잘 보존되어 있어 지질 과학 체험 현장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지질학 정보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단어로 풀었습니다. 구문소라는 이름의 유래와 형태에서 보이는 지질학적 특징을 어려운 용어 없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키포인트

- 안내 문안은 쉽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난이도는 초등학생에서 문화재 관련 배경지식이 없는 성인까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씁니다.

개선사례

함안 주리사지 사자석탑

咸安 主吏寺址 獅子石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호

탑은 산스크리트어인 스투파[stūpa]에서 유래하였다. 부처님의 사리나 유골을 보관하기 위한 건축물이다. 함안 주리사지 사자석탑은 원래 함안 여항면 주서리 주리사터에 있던 것을 일제강점기 때 면사무소로 이전하였다가 해방 후 현재 위치로 옮겨왔다. 옮겨올 당시에 없어진 탑의 바닥돌과 몸돌, 머리장식부 등을 새로 만들었다. 남아 있는 탑의 재질과 형태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탑의 가장 큰 특징은 바닥돌과 몸돌 사이 있는 네 마리의 사자상이다. 사자는 앞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로의 등을 맞댄 채 탑의 네 모서리에 앉아있으며, 입은 다물고 있으나 송곳니가 드러나 있다. 드러낸 이와 달리 뭉툭한 코, 위로 솟은 눈매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갈기와 발 역시 볼륨감 있게 조각되었다. 사자상 위에 올린 지붕돌은 처마 끝이 살짝 들려있고, 그 아래 4단의 지붕돌받침이 있다.

함안 주리사지 사자석탑과 같이 바닥돌에 네 마리의 사자를 조각해 놓은 예는 구례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회양 금장암지 사사자삼층석탑, 제천 빈신사지 사사자석탑 등 단 4기만 있어 석탑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탑의 의미와 유래를 쉬운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문장을 작성하여 불교문화재의 이해를 돕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전달한다.

개선사례

서울 성북동 최순우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제268호 / 시대: 1930년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5길 9

이 집은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한 혜곡 최순우(1916~1984)가 1976년부터 생애를 마칠 때까지 살았던 곳이다. 혜곡은 개성에서 출생 하였고, 본명은 희순(熙淳)이다. 송도고등보통학교 재학 시절 개성부립 박물관장이던 고유섭 선생과 만난 계기로 박물관에 종사하며 미술사학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평생을 한국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전통의 현대적 전승, 해외 소개에 바치면서, 전시와 저술을 통해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역설하였다.

이 집은 1930년대 지은 근대 한옥으로 평면은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바깥채가 마주 보며 ㅁ자를 이루되 모서리가 트여 있는 'ㅌㅁ자형' 이다.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를 집필했던 사랑방 앞에는 그의 친필로 "두문즉시심산"이라는 글귀를 새긴 현판이 걸려 있다. 문을 닫으면 곧 깊은 산속이라는 뜻이다. 실내는 조선시대 선비의 방처럼 정갈한 목가구와 백자로 방치레를 하였고, 마당에는 산사나무, 산당화, 모란, 수련, 산국 등을 심었다. 집 전체에서 자연스럽고 소박한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추구한 집주인의 안목과 멋을 느낄 수 있다.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집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으나 2002년에 시민들의 후원과 성금으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매입하여 보수와 복원을 마쳤다. 2004년에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으로 '시민문화유산 제1호 최순우옛집'이란 이름으로 개관하였다.

혜곡 최순우라는 인물의 삶과 업적을 쉬운 단어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유명저서를 소개하면서 흥미를 유발하고, 이 문화재가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내력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키포인트

- 문화재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씁니다.
-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순 서술은 하지 않습니다.
- 문화재를 벗어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개선사례

돈암서원 응도당

遯巖書院 凝道堂

보물 제1569호

돈암서원 응도당은 유생들이 장수강학*하던 강당 건물이다.

1880년(고종 17)에 돈암서원을 숲말에서 이곳으로 옮길 때 옛터에 그대로 둔 응도당을 1971년에 옮겨왔다. 그런데 양성당이 강학의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 위치와 다르게 사당과 직각으로 건물을 배치하였다.

응도당은 예를 실천하는 건축 제도의 모델로 제시된 건축 양식에 따라 지어졌으며 돈암서원의 건물 배치와 규모는 사계 김장생(金長生)이 『의례』와 『주자대전』을 고증하여 강경 죽림서원(竹林書院)의 법도를 따라 지었다고 한다.

응도당은 앞면 5칸·옆면 3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ㅅ자 모양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내부는 모두 마루를 깔았고, 옆면에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풍판을 달았으며, 풍판 아래에는 눈썹지붕을 두었다. 처마의 암막새** 기와에 '숭정육년계유이월일서원(崇禎六年癸酉二月日書院)' 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1633년(인조 11)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서원의 규모나 구조적 측면으로 보아 한국 서원을 대표하는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장수강학(藏修講學) : 유생들이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것을 장수라 하고 스승과 문답을 주고받으며 공부하는 것을 강학이라 함.

**막새 : 암키와의 끝을 마무리하는 장식.

돈암서원 응도당이 지금의 자리에 옮겨 온 내력, 돈암서원 건물이 세워진 시기와 구조적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도당의 모습이 문헌자료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밝혀, 응도당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내 문안의 구성요소에 알맞게 내용을 작성한다.

개선사례

여수 구 청년회관

麗水 舊 青年會館

국가등록문화재 제31호

이 건물은 일제 강점기에 여수 청년들이 조직한 사회운동단체 '맞돕회'가 건립한 '청년회관' 건물이다. '맞돕회'는 일제 강점기에 서울에서 유학하다가 3·1운동 때에 퇴학을 당하여 고향에 온 학생들이 1921년에 김백평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로, 회의 이름은 청년들이 '맞잡고 돕고 살자'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이 건물은 '맞돕회'가 '덕지'라는 저수지를 구입하여 메우고, 당시 우편국으로 사용하던 진남관 왼쪽 건물의 철거 현장에서 건축 자재를 마련한 다음에, 천일화학 김영준*의 도움을 받아 지은 것이다.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1층 건물 위에 전통 건축물을 앉힌 독특한 모습으로, 여느 전통 건축물과는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 건물은 일제 강점기에 철거한 전통 건축물의 자재를 활용하여 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지역의 항일 운동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맞돕회'는 일제 강점기에 노비 문서 불태워 없애기,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 가르치기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맞돕회 쌀집, 맞돕회 이발소 등을 운영하여 활동 경비를 댔다.

*일제강점기 전남 여수에서 활동한 기업인

안내 문안의 내용을 용어설명, 청년회관 관련 단체의 연혁과 활동 내용, 건설배경, 문화재의 특징과 의미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용별로 단락을 구분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키포인트

- 제목에는 문화재의 국·영문 명칭, 한자 명칭, 지정유형·지정번호를 씁니다.
- 본문에는 용어설명, 연혁·유래, 가치와 의의, 관련 설화, 관람 포인트 등을 씁니다.
- 안내 문안은 내용별로 단락을 구분하여 관람객들이 읽기 쉽게 합니다.

개선사례

포천 금현리 지석묘

抱川 金峴里 支石墓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47호

지석묘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고인돌이라고도 부른다. 지석묘는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세계 지석묘의 40%에 달하는 4만~4만 5천기의 지석묘가 한반도에서 발견되었다.

금현리 지석묘는 4개의 받침돌을 세워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넓고 평평한 덮개돌을 올려놓은 탁자식이다. 받침돌은 3개가 남아 있으며, 돌의 재질은 화강암이다. 돌방의 규모는 길이 1.7m, 너비 1.4m로 경기 북부지역의 지석묘 중에서 비교적 큰 편이다.

금현리에서는 이 지석묘를 오랫동안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마을에 큰일이 있을 때 이 지석묘에 제를 올리고, 집안의 잡귀를 쫓는 굿을 이곳에서 하기도 한다.

안내 문안을 용어설명, 문화재의 구조, 관람상의 특징과 관련 이야기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부분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내용별로 단락을 구분하여 읽기가 쉽습니다.

전문용어는 각주나 보조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개선사례

창녕 영산 고분군

昌寧 靈山 古墳群

경상남도 기념물 제168호

창녕 영산 고분군은 영산 지역 지배층의 무덤이다. 영산면에서 부곡면으로 향하는 도로변에 있으며 도로를 경계로 북동쪽에 동리 고분군(東里 古墳群), 남서쪽에 죽사리 고분군(竹紗里 古墳群)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고분 군락이 처음 알려졌으며 2000년 이후 이루어진 창녕군 복원정비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총 96기의 고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분의 구조는 덧널무덤(木槨墓)*, 돌덧널무덤(石槨墓), 앞트기식돌방무덤(橫口式石室墓)** 등이 있으며 4세기 중반에서 6세기 후반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덤 안에서 발견된 다양한 토기 외에도 추가장(追加葬)***된 사람의 뼈 주변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잘려진 새 뼈가 발견되어 당시 매장 의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창녕 영산 고분군은 창녕 지역의 중심 고분군으로 알려진 창녕 계성 고분군(昌寧 桂城 古墳群)과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昌寧 校洞과 松峴洞 古墳群)을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형 봉토분이 만들어지기 이전 단계의 창녕 지역 지배 집단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덧널무덤(木槨墓) : 관을 넣어 두는 널방을 나무로 만든 무덤

**앞트기식돌방무덤(橫口式石室墓) : 세 벽만을 쌓고 한쪽 벽으로 드나든 후 밖에서 나머지 벽을 막아서 만든 무덤

***추가장(追加葬) : 시간 차이를 두고 선대 무덤에 후대 무덤을 만드는 것

전문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각주를 통해 의미를 설명하여 관람객이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키포인트

- 전문용어를 사용할 때는 풀어쓰거나 각주를 이용합니다.
- 전문용어는 문화재청 용어집,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사용합니다.
- 이외 전문용어는 QR코드나 보조자료를 활용합니다.

개선사례

연주암 삼층석탑

戀主庵 三層石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4호

연주암 삼층 석탑의 높이는 3.6m이다. 바닥에는 납작하고 평평한 넓은 돌(지대석, 바닥돌) 1장을 깔아 터를 잡았다. 바닥돌 윗면에는 연꽃을 둘러 장식하고, 그 위에 기단(기초가 되는 단)은 4장의 평평한 돌을 엇물리게 세워서 만들었다. 기단의 4면과 탑신(탑의 몸통 부분)의 몸돌에는 수직으로 홈을 파서 기둥처럼 보이게 했다.

1층 지붕돌은 밑면의 받침이 4단인데, 2층과 3층은 3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꼭대기에는 노반(머리 장식 받침)위로 앙화(활짝 핀 연꽃 모양의 장식), 보주(구슬 모양의 장식)가 놓여 있다.

빗물이 떨어지는 낙수 면의 길이가 짧고, 탑신의 지붕돌이 두툼하고, 받침 수가 줄어드는 등 만들어진 방법이 고려 시대 석탑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문용어를 괄호를 통해 부연 설명하여 관람객이 문화재를 이해함에 어려움이 없게 했습니다.

개선사례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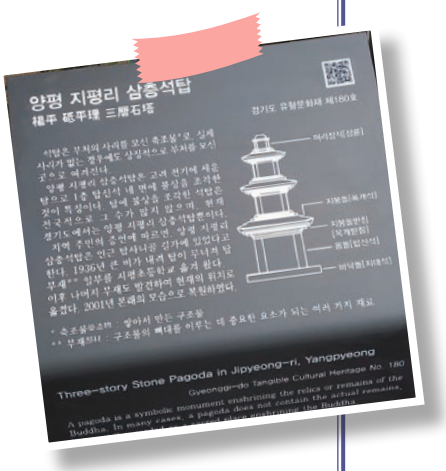
楊平 砥平理 三層石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80호

석탑은 부처의 사리를 모신 축조물*로, 실제 사리가 없는 경우에도 상징적으로 부처를 모신 곳으로 여겨진다.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은 고려 전기에 세운 탑으로 1층 탑신석 네 면에 불상을 조각한 것이 특징이다. 탑에 불상을 조각한 석탑은 전국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으며, 현재 경기도에서는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뿐이다.

지역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은 인근 탑사니골 길가에 있었다고 한다. 1936년 큰 비가 내려 탑이 무너져 탑 부재** 일부를 지평초등학교 옮겨 왔다. 이후 나머지 부재도 발견하여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2001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축조물(築造物) : 쌓아서 만든 구조물

**부재(部材) :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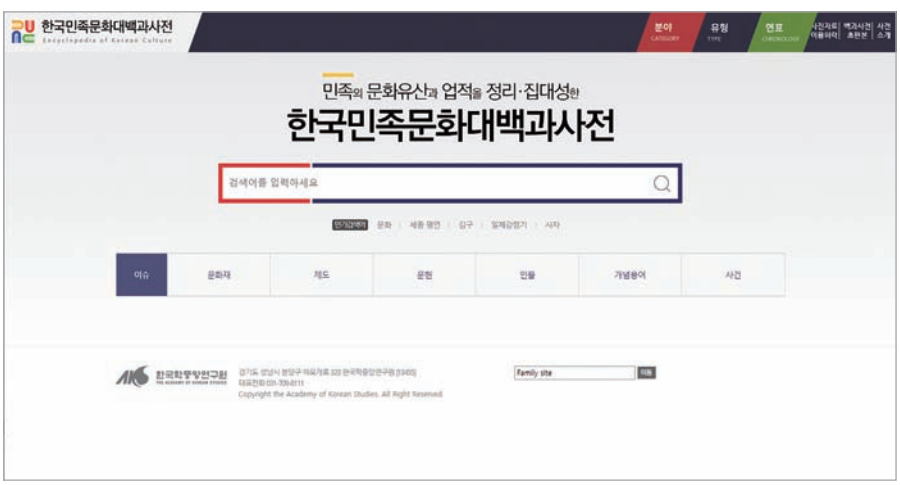
각주를 통해 전문용어를 설명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돕습니다. 특히 삼층석탑의 도면을 안내판에 삽입하여 관람객이 문화재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 문법, 맞춤법, 어휘가 맞는지 꼼꼼하게 점검한다.

키포인트

- 역사적 사실은 공인된 주류의 학설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화재 관련 사실은 가장 최근에 발간된 『문화재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 시민자문단을 구성하여 안내 문안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 작성된 문안은 국·영문 감수를 받습니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고창 수동리 팽나무 천연기념물 제494호

Ⅱ.

2020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1. 건조물
2. 사적지
3. 불교문화재
4. 자연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5. 근대문화재

2020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건조물

비석 / 관아건축 / 고택 /
향교·서원 / 사묘재실 / 누·정

건조물 | 비석

동래부사 유심 선정비

종목번호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호
지 역	부산광역시 남구
작성요령	비석을 세우게 된 배경과 비문의 내용을 서술합니다.

기존 문안

동래부사 유심 선정비

東萊府使 柳諗 善政碑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호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시립박물관~~

주소는 쓰지 않음

관련 인물 설명 필요

동래부사 유심 선정비는 귀부(龜趺), 비신(碑身), 이수(螭首) 등 전체적으로 거의 훼손된 부분이 없어 보존상태가 대단히 양호하며, 부산지역에서 건립된 선정비로서는 가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귀부와 이수를 갖추고 있는 조선시대의 비석으로서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예가 드문 비석이다. 이 선정비는 전체적으로 비신에 비해 이수와 귀부가 다소 작은 편이다. 조각기법이 조선시대의 서민적이고 해학적인 면을 잘 나타내고 있어 비석의 건립 시기인 1651년 당시의 조각 양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건립연대가 명확하고 석재를 다듬은 석공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주목된다.

문장이 산만함

연도표기 오류

단락 구분 및 문화재 가치설명 필요

어려운 단어

개선 문안

동래부사 유심 선정비

東萊府使 柳諗 善政碑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호

비석을 세운 시기와 배경, 내용 설명

이 비는 효종 2년(1651) 9월, 백성을 잘 다스리고 떠난 동래부사 유심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동래 사람들이 세운 것으로, 비의 뒷면에는 비를 세운 때와 비를 세우는 데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관련 인물에 얽힌 흥미로운 전설 소개

유심은 1649년 11월부터 1651년 7월까지 동래부사를 지낸 뒤 바로 경상도 관찰사로 승진하였고, 마지막에는 도승지*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평민 신분으로 동래부사가 될 수 없다는 어머니의 말에 좌절하여 어린 나이에 굶어 죽은 뒤 서울에서 재상(宰相)** 집 아들로 다시 태어나 동래부사가 되어 전생의 어머니를 만난다는 '전생 모자 설화'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비석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내력 전달

이 비는 동래읍성 서문 밖 지금의 KT프라자 동래점 뒤쪽 도로변에 있었는데, 2001년 4월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유심 선정비는 당시 동래부 7개면 모두에 1기씩 세워졌는데, 현재는 해운대구 반여동에 이 비보다 작은 것이 하나 더 남아있다.

구체적인 문화재 가치 기술

이 비는 현재 부산 지역에 남아있는 선정비 가운데 아주 큰 편이고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고 있어 당시의 조각 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도승지: 조선 시대 왕명을 출납하던 승정원의 정3품 관직.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슷함.

**재상(宰相):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 보던 이품 이상의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던 벼슬아치.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건조물 | 비석

남해금산영응기적비 대한중흥공덕축성비

종목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77호
지 역 경상남도 남해군

기존 문안

문화재 명칭 표기 오류

남해 금산 영응기적비

南海 錦山 靈應紀蹟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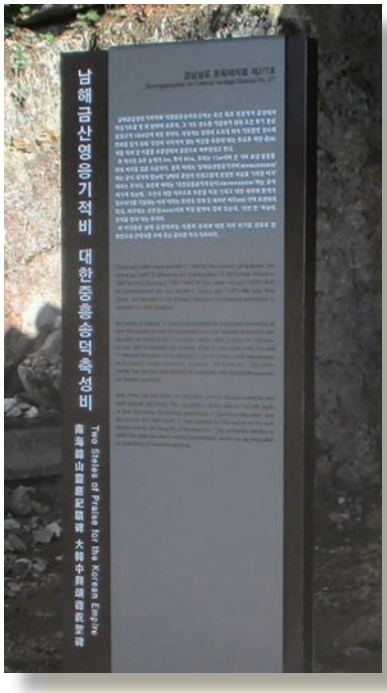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77호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주소는 쓰지 않음

조선태조가 이곳에서 백일기도를 하던 중 산신의 영험에 의해 보위에 오를 수 있었다는 전설이 깃든 유적을 기념하며 1903년(광무7년) 5월 11일 세운 비석이다. 태조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전국의 명산을 찾아 기도를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곳에서 산신의 호응을 받아 등극할 수 있었고, 그 보은으로 보광산을 금산으로 바꾸어 부르도록 하였다 한다. 의정부 찬정 윤정구가 글을 짓고 써서 세웠다. 높이 2m, 폭 60cm이다.

문장이 산만함

문화재 가치 설명 필요

어려운 단어



문화재 명칭 정확하게 표기

개선 문안

남해금산영응기적비 대한중흥송덕축성비

南海錦山靈應紀蹟碑 大韓中興頌德祝聖碑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77호

비석이 세워진 배경 설명

남해금산영응기적비와 대한중흥송덕축성비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금산에서 백일기도를 한 뒤 왕위에 오르자, 그 기도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조선 후기 문신 윤정구가 1903년에 세운 것이다. 이성계는 왕위에 오르게 되자 기도했던 장소에 은혜를 갚기 위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비단을 두른다'라는 뜻으로 비단 금[錦]자를 써서 산 이름을 보광산에서 금산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문화재와 관련한 지역의 흥미로운 설화 추가

두 비석은 모두 높이가 2m, 폭이 60cm, 두께는 15cm이며 큰 거북 모양 받침돌 위에 비석을 얹은 모습이다.

왼쪽 비에는 '남해금산영응기적비(南海錦山靈應紀跡碑)'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남해의 금산이 신령스럽게 응답한 사실을 기록한 비석'이라는 뜻이다. 오른쪽 비에는 '대한중흥송덕축성비(大韓中興頌德祝聖碑)'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조선이 대한 제국으로 부흥할 덕을 기리고 대한 제국의 황제가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비석'이라는 뜻이다. 현재 두 비석은 비각(碑閣) 안에 보관되어 있다.

문화재 명칭을 차근차근 해석하여 관람객의 이해도를 높임

비각에는 선은전(璿恩殿)이라 적힌 편액이 걸려 있는데, '선은'은 '하늘의 은덕을 입다'라는 뜻이다.

이 비석들은 남해 금산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대한 제국 시기를 전후로 한 한반도의 근대사를 보여 주는 중요한 역사 자료이다.

비석의 역사적 가치 부각

건조물 | 비석

창녕 성사제 신도비

종목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4호
지 역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재 명칭 표기 오류

기존 문안

고려충신성사제신도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4호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석리~~

주소는 쓰지 않음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인 성사제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공양왕 때 보문각직제학의 벼슬을 한 성사제는 조선이 건국되자 관직을 버리고 불사이군의 뜻을 지키려 만수산으로 들어가 여생을 마친 인물이다.

그 충절이 인정되어 1873년(고종 10) 정절공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높이 240cm, 너비 77cm이다.

비석을 세우게 된 배경과 비문의 내용 서술 필요

어려운 단어

개선 문안

창녕 성사제 신도비

昌寧 成思齊 神道碑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4호

문화재 명칭 정확하게 표기

신도비의 개념 추가

창녕 성사제 신도비는 고려 말의 충신인 성사제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신도비란 임금이나 고위 관료 등의 업적을 기록하여 묘 앞에 세워두는 비석을 뜻하는 말이다.

성사제의 행적 설명

두문동의 역사적 의미를 통해 성사제의 삶 부각

성사제는 공양왕 때 보문각 직제학을 지냈으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이를 한탄하며 끝까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성사제는 두문동 72현(杜門洞 七十二賢)의 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본래 두문동은 경기도 광덕산 서쪽 골짜기를 이르는 말이지만 고려 말 72명의 신하들이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벼슬을 거부하고 숨어 지낸 곳으로 더 유명하다.

비문을 지은 사람과 글씨를 쓴 사람을 밝힘

비문은 김굉이 지었고, 전액*은 김노경이, 글씨는 이노준이 썼다.

문화재 이전 내력 안내

이 비는 원래 창녕읍 조산리에 있었으나 1930년대 대지면 모산리로 옮겼다가 2002년 현재의 자리인 대지면 석리로 옮겨 세웠다.

*전액 : 전자체(篆字體)로 비석의 윗부분이나 머릿돌에 비의 명칭을 새긴 부분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건조물 | 관아건축

김제 동헌

종목번호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60호
지 역	전라북도 김제시
작성요령	관아를 세운 시기와 변천 과정을 반영합니다.

기존 문안

김제 동헌

金堤 東軒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60호

이곳은 조선시대 김제 고을의 수령이 업무를 맡아보던 청사로 동헌(東軒)이라 하였다. 김제동헌은 조선 현종 8년(1667)에 세워 근민헌(近民軒)이라 칭하여 오다 숙종 25년(1699)에 동헌을 고쳐지어 사칠헌(事七軒)으로 개명하였다가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 초까지 김제읍사무소로 사용되었다. 건물은 정면 7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 형태로 기둥, 처마, 지붕에 쓰인 부재나 장식이 장중하여 건물의 높은 품격과 관아의 위계를 볼 수 있다. 현존하는 관아 중 동헌과 내아가 함께 보존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예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 받아 2007년 7월 31일에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근민헌이란 편액은 백성에게 가깝게 있는 관청이란 의미로 사적 지정을 기념하여 제작되었다.

김제군 관아 사적지정 사유 설명 불필요

근민헌의 뜻 관련 내용이 분산됨

단락 구분 필요

어려운 단어

개선 문안

김제 동헌

金堤 東軒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60호

동헌에 대한 개념과 변천 과정 해설을 통해 관람객의 이해도 제고

동헌은 조선 시대 고을의 수령이 업무를 보던 건물이다. 김제 동헌은 16세기 중반에 처음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현종 8년(1667)에 수령으로 부임한 민도가 근민헌*으로 이름을 붙였고, 숙종 25년(1699)에 수령으로 부임한 이세성이 건물을 고쳐 지으면서 사칠헌**이라고 불렀다. 이후 고종 18년(1881)에 중건하였고,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 초까지는 읍사무소로 사용하였다.

관람객의 시각에서 감상할 수 있는 구조적 요소와 가치 기술

동헌이 관아의 중심 건물이었던 만큼 사용한 재료나 꾸밈에 있어 품격을 갖춘 장식적 모습이 많이 보인다. 건물 내부는 마루로 되어 있고 왼편에는 1984년에 복원한 온돌방이 있다. 이 동헌은 내아가 함께 남아 있어 관아 건축물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근민헌(近民軒) : 백성을 가까이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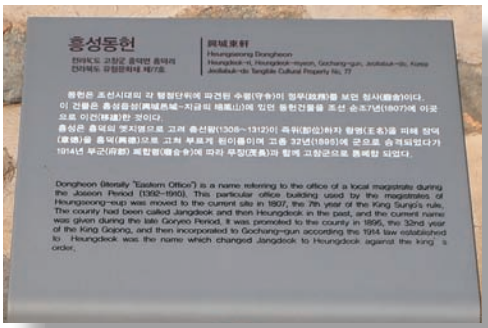
**사칠헌(事七軒) : 호적, 농사, 병무, 교육, 세금, 재판, 풍속의 7가지 공부를 맡아보는 관아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건조물 | 관아건축

흥성 동헌

종목번호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77호
지 역 전라북도 고창군



기존 문안

흥성동헌
興城東軒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77호

주소는 쓰지 않음

동헌은 조선시대의 각 행정단위에 파견된 수령(守令)이 정무(政務)를 보던 청사(廳舍)이다.

이 건물은 흥성읍성(興城邑城-지금의 培風山)에 있던 동헌건물을 조선 순조7년(1807)에 이곳으로 이건(移建)한 것이다.

흥성은 흥덕의 옛 지명으로 고려 충선왕(1308~1312)이 즉위(卽位)하자 왕명(王名)을 피해 장덕(章德)을 흥덕(興德)으로 고쳐 부르게 된 이름이며 고종 32년(1895)에 군으로 승격되었다가 1914년 부군(府郡) 폐합령(廢合令)에 따라 무장(族長)과 함께 고창군으로 통폐합 되었다.

문장이 산만함

어려운 단어

개선 문안

흥성 동헌

興城 東軒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77호

'동헌'의 개념을 상세히 기술

'동헌'이란 조선 시대 각 군현에 파견된 수령이 공무를 보던 곳이다. 지방 관아는 수령이 사무를 보는 외아와 가족이 거주하는 내아로 구분하는데, 외아가 내아의 동쪽에 있다고 하여 '동헌'이라고 하였다.

흥미로운 일화 소개

흥성 동헌은 본래 흥덕 객사로 알려진 건물이다. 그러나 1983년에 건물을 보수할 때에 발견한 상량문*에서 동헌이었음이 밝혀졌다.

문화재와 관련한 지명의 변천 과정 설명

흥성은 흥덕의 옛 지명으로, 상칠(上漆, 백제 시대), 상질(尙質, 신라 시대), 장덕(章德, 고려 시대) 등 시기별로 달리 부르다가 고려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왕의 이름인 '장'자를 피해 '흥덕(興德)'으로 바꾸어 불렀다. 1895년(고종 32)에 흥덕군이 되었다가,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에 무장군과 함께 고창군으로 통합하여 흥덕면이 되었다.

---

* 상량문 :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친 내력, 까닭과 공역한 날짜, 시간 등을 적은 글

** 상량문에는 흥성 읍성(지금의 배풍산 자리)의 동헌을 조선 1807년(순조 7)에 현 위치로 옮겨지었다고 써 있다.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하고, 상량문의 내용 요약 전달

건조물 | 관아건축

순창객사

종목번호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8호
지 역 전라북도 순창군

기존 문안

순창객사

淳昌客舍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8호

객사의 기본 개념과 문화재를 산만한 문장으로 소개

순창객사는 조선시대 관청의 손님이나 사신이 머물던 곳으로서 새로이 부임한 수령은 반드시 이곳에 와서 참배를 하여야 하며, 국상(國喪)을 당한 때에도 관패(官牌)에 망배(望拜)하게 되어 있다. 원래 이곳에는 정당(正堂)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대청(東大廳)과 서대청(西大廳)을 비롯하여 중문(中門)과 외문(外門)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정당과 동대청만이 있다. 건립연대는 1759년으로 추정된다. 한말에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킨 임병찬 의병장이 의병을 이끌고 이 객사에서 진을 치고 일본군과 전주에서 파견된 시위대에 맞서 격전을 벌였던 곳이기도 하고, 면암 최익현 선생이 항일 의병본부로 사용하다가 일본군에게 붙잡힌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건립시기가 불분명함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밝히지 않음

단락 구분 필요

어려운 단어

개선 문안

순창객사

淳昌客舍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8호

부연설명을 통해 어려운 용어 풀이

기능 중심으로 객사 기본 개념 설명 추가

객사는 조선시대에 관청의 손님이나 사신이 머물던 곳이다.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모시는 정당(正堂)과 숙소로 사용하던 익실(翼室, 본 건물의 왼쪽과 오른쪽에 딸린 방)로 이루어져 있다. 새로 부임한 수령은 반드시 객사에 와서 참배를 해야 했으며,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그리고 국상(國喪) 등 큰일이 있을 때에도 이곳에서 궁궐을 향하여 절을 올렸다.

건립시기와 변천과정 서술

순창객사가 처음 지어진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영조 35년(1759)에 중건되었다. 원래는 가운데 정당을 중심으로 양옆에 대청이 있었는데, 오른쪽 동대청은 없어졌다. 일제강점기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가 1980년대 초부터 현재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까지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

순창객사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 정보 제공

고종 42년(1905)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정읍에서 의병을 일으킨 최익현과 임병찬은 이곳에 진을 치고 항일 의병 본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들 의병장은 바로 이곳에서 일본군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관람객의 시각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문화재 요소 소개

객사의 왼쪽 서대청에는 2014년에 새롭게 마련한 '옥천지관(玉川之館)'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옥천은 마한 시대 순창의 지명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순창의 옛 이름이다.

건조물 | 고택

파평윤씨 서윤공파 고택

종목번호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4호

지 역 대전광역시 서구

작성요령 고택의 건축 시기나 관련 인물의 연대표기, 건축 특징 서술에 유의합니다.

기존 문안

파평윤씨 서윤공파 고택 (坡平尹氏 庶尹公派 古宅)

지정 번호 : 문화재자료 제34호

~~위 치 : 서구 괴곡동 466~~

주소는 쓰지 않음

조선 인조 때 한성부 서윤(漢城府 庶尹)의 벼슬을 지낸 윤흡(尹熻, 1580~1633)의 손자 윤섬이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물의 배치는 영사당(永思堂) 현판이 걸린 ㄷ자형 안채와 ㄴ자형 행랑채를 붙여서 전체적으로는 튼ㅁ자형을 하고 있다. 후대에 여러 번 중수를 거치면서 안채를 제외한 다른 건물들의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

문장에 주어가 없어 이해가 어려움

가옥구조 보완 설명 필요

가옥의 형태와 규모를 불분명하게 표현

문화재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부족

개선 문안

파평윤씨 서윤공파 고택

坡平尹氏 庶尹公派 古宅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4호

고택을 지은 시기와 지은 인물 소개

파평 윤씨 서윤공파 고택은 조선 인조 때 한성부 서윤(漢城府 庶尹: 조선시대 한성부 종4품 관직)을 지낸 윤흡(尹熻)의 손자 윤섬(尹暹)이 17세기 말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사당(永思堂)'이란 당호(堂號)가 걸린 고택의 본채는 'ㄷ' 자 평면이고, 그 앞에 행랑채가 'ㄱ' 자로 이어져 있다. 본채와 행랑채가 이어지는 곳에는 솟을대문을 두었으며, 'ㅁ' 자 모양의 넓은 안마당이 형성되어 있다.

고택의 건축 특징 및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

본채는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사랑방과 안방이 마주하며, 안방은 부엌과 이어져 있다. 사랑방 동측으로 대문과 이어지는 곳에 함실(부넘기가 없이 불길이 그냥 곧게 고래로 들어가게 된 아궁이 구조.) 겸 창고로 쓰이는 공간이 있다. 행랑채는 옆면 1칸에 전부 7칸 규모로, 고택 남쪽 담을 대신하고 있다.

부연설명을 통해 어려운 용어 풀이

이 고택은 후대에 약간의 변형이 있었으나, 대부분에서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주택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도 안마당을 넓게 만든 점이 특징이다.

건조물 | 고택

김용학 가옥

종목번호 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 제3호
지　역 광주광역시 북구

기존 문안

김용학가옥

金容鶴家屋

지정종목 표기오류

광주광역시 민속자료 제3호

~~소재지: 북구 매곡동~~

주소는 쓰지 않음

문화재 관련 개념설명 부족

이곳은 살림집과 정자의 조화로운 배치가 돋보이는 1900년대 초의 민간 원림(苑林)이다. 건물의 배치는 동북쪽이 낮고 서남쪽이 높은 지형들 살려 낮은 곳에 사랑채와 안채를, 높은 곳에 하은정(荷隱亭)과 연파정(蓮坡亭)를 배치하였다.

청풍헌(淸風軒)이란 현판이 걸린 사랑채는 1개의 높은 기둥을 가진 5량집이며 외관은 홑처마 팔작기와지붕이다. 상량의 기록이 "丁巳 閔二月" 인 것으로 미루어 1917년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한자 오류

어려운 단어

개선 문안

김용학 가옥

金容鶴 家屋

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 제3호

지정종목 오류 수정

문화재의 위치와 의의 추가

김용학 가옥은 매곡동 하백(荷白) 마을*의 언덕진 곳에 자리잡은 민간 가옥이다. 이 가옥은 살림집과 정자가 조화롭게 배치된 전통 가옥이다. 안채와 사랑채, 정자, 연못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당시 유지였던 하은 김희수(荷隱 金喜洙)**가 1900년대 초에 지은 집으로 아들인 김용학이 고쳐 지었다. 지대가 높은 서쪽 언덕에는 정자인 연파정(蓮坡亭)과 하은정(荷隱亭)이 있고, 평지인 동쪽과 남쪽에는 살림집과 연못이 자리잡고 있다.

가옥이 지어진 배경과 변천 과정 설명

사랑채 청풍헌(淸風軒)은 김희수가 1917년에 지었는데, 백암 정사(白菴 精舍)라고도 한다. 정면 7칸, 측면 3칸이다. 대청을 중심으로 양옆에 온돌방이 있으며, 건물 뒤쪽으로 마루와 부엌을 증축하였다. 안채는 원래 2층의 초가집이었는데, 김용학이 양옥으로 새로 지었다.

주요 건물을 단락별로 구분하여 안내

연파정은 김희수가 아버지 김영덕(金永德)을 위해 1918년에 지었으나 화재로 타 버려서 1934년에 다시 지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인데, 비바람을 막기 위해 정자 네 면에 판자 덧문을 달아 놓았고, 내부는 벽이 없는 마루로 터져 있다.

하은정은 김용학이 아버지 김희수를 위해 1933년에 지었다. 정면 5칸, 측면 3칸 구조인데, 정자 바깥에는 유리 덧문이 있고, 내부는 중앙 마루를 중심으로 양쪽에 한 칸짜리 온돌방이 있다. 연파정과 하은정은 광주 지역 선비들이 교류하던 문화 공간이었다. 교류하던 학자들이 남긴 시문들이 많이 남아 있다.

문화재적 가치를 요약하여 제시

김용학 가옥은 하백 마을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김희수, 김용학 일가가 조성한 누정원림(樓亭園林)이자 주거 공간으로 민속·건축학적 가치가 크다.

---

* 하백 마을 : 예전부터 흰(白) 연꽃(荷)이 많아 이름 붙여진 자연 마을로, 김용학 일가는 이 마을에서 6대째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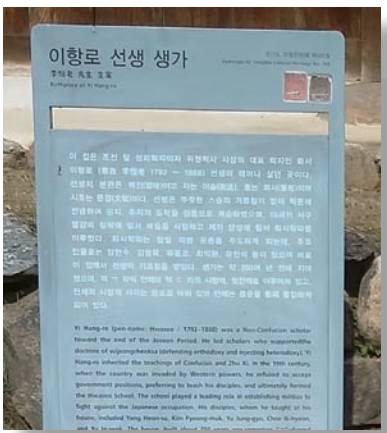
** 김희수(1891~1929): 한말 유학자인 고광선의 문하에서 수학한 유학자였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크게 늘려 '천석꾼'이라고 불릴 정도의 부호였지만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핀 덕망 있는 선비였다. 1930년대에 소작농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시혜비 3기를 하은정 입구에 세웠다.

각주를 사용하여 관련 인물의 일화 소개

건조물 | 고택

이항로 선생 생가

종목번호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5호
지 역 경기도 양평군



기존 문안

이항로 선생 생가

李恒老 先生 生家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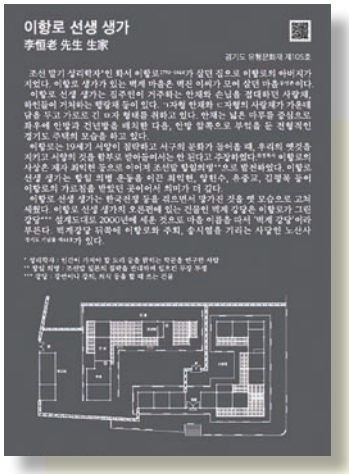
이 집은 조선 말 성리학자이자 위정척사 사상의 대표 학자인 화서 이항로(華西 李恒老, 1792~1868) 선생이 태어나 살던 곳이다.

주관적으로 읽혀지는 인물 평과 의견 서술

선생의 본관은 벽진(碧珍)이고 자는 이술(而述), 호는 화서(華西)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선생은 뚜렷한 스승의 가르침이 없이 학문에 전념하여 공자, 주자의 도학을 정통으로 계승하였으며, 19세기 서구열강의 침략에 맞서 벼슬을 사양하고 제자 양성에 힘써 화서학파를 이루었다. 화서학파는 항일 의병 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주요 인물로는 양헌수, 김평묵, 유중교, 최익현, 유인석 등이 있으며 바로 이 집에서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다. 생가는 약 250년 전에 지어졌으며, 역 ㄱ자의 안채와 역 ㄷ자의 사랑채, 헛간채로 이루어져 있고, 안채와 사랑채 사이는 담으로 막혀 있어 안채는 중문을 통해 출입하게 되어 있다.

화서학에 대한 설명 필요

문화재 가치 설명 필요, 단락 구분 필요



개선 문안

이항로 선생 생가

李恒老 先生 生家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5호

이항로 생가가 현 위치에 있게 된 배경 추가

조선 말기 성리학자*인 화서 이항로(1792~1868)가 살던 집으로 이항로의 아버지가 지었다. 이항로 생가가 있는 벽계 마을은 벽진 이씨가 모여 살던 마을(동성촌)이다.

경기 지역의 가옥 구조를 알기 쉽게 서술

이항로 선생 생가는 집주인이 거주하는 안채와 손님을 접대하던 사랑채, 하인들이 거처하는 행랑채 등이 있다. ㄱ자형 안채와 ㄷ자형의 사랑채가 가운데 담을 두고 가로로 긴 ㅁ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안채는 넓은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안방과 건넌방을 배치한 다음, 안방 앞쪽으로 부엌을 둔 전형적인 경기도 주택의 모습을 하고 있다.

위정척사운동과의 연관성을 밝혀 역사성을 드러냄

이항로는 19세기 서양이 침략하고 서구의 문화가 들어올 때, 우리의 옛것을 지키고 서양의 것을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위정척사). 이항로의 사상은 제자 최익현 등으로 이어져 조선말 항일 의병**으로 발전하였다. 이항로 선생 생가는 항일 의병 운동을 이끈 최익현, 양헌수, 유중교, 김평묵 등이 이항로의 가르침을 받았던 곳이어서 의미가 더 깊다.

문화재의 개·보수 연혁과 현황 정보 제공

이항로 선생 생가는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망가진 것을 옛 모습으로 고쳐 세웠다. 이항로 선생 생가의 오른편에 있는 건물인 벽계 강당은 이항로가 그린 강당*** 설계도대로 2000년에 세운 것으로 마을 이름을 따서 '벽계 강당'이라 부른다.

---

* 성리학자 : 인간이 가져야 할 도리 등을 밝히는 학문을 연구한 사람

** 항일 의병 : 조선말 일본의 침략을 반대하며 일으킨 무장 투쟁

*** 강당 : 강연이나 강의, 의식 등을 할 때 쓰는 건물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건조물 | 향교·서원

진도향교

종목번호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7호
지 역	전라남도 진도군
작성요령	배향인물의 업적, 서원·향교가 가진 일화를 반영합니다.

기존 문안

진도향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7호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275~~

주소는 쓰지 않음

건립과 변천 과정 설명이 매끄럽지 않음

향교는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국가교육기관이다. 조선 세종 20년(1438)에 군강남 건립(현 향현사 부근), 조선 현종 9년(1667)에 이곳으로 옮긴 후 여러 차례의 보수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묘에는 공자를 비롯한 5성 20현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과 동·서무 그리고 유생들이 수학하던 명륜당과 제관실, 관리실 등이 있다.

향교의 배치와 부속 건물에 대한 설명 부족

한문구절 해설필요

임진왜란 당시 왜병이 쳐들어왔을 때 유림이었던 김희남 선생께서 대성전에 봉안한 5성 20현의 위패를 시봉하고 북산 상굴로 피난하면서 명륜당 기둥에다 '천하기무부자도(天下豈無夫子道)'라는 7자를 써붙여 놓았다. 그 뒤 왜병들이 향교에 침입하여 소각하려다가 명륜당 기둥에 붙여져 있는 이 7자를 보고 그 글귀에 경탄하고 글귀 옆에 다시 '차지역유충열사(此地亦有忠烈士)'라는 글을 써 붙인 다음 스스로 후퇴하였다는 옛 이야기가 있다.

왜병이 왜 감탄하였는지 설명 필요

개선 문안

진도향교

珍島鄕校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7호

문화재의 기본 개념 및 역할 설명 추가

향교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립 교육 기관이다. 덕행과 학문의 모범을 보인 성현에게 제사를 올리며, 유교의 경전과 역사, 시나 문장을 짓는 법을 가르쳤다.

문화재의 건립과 위치 변화를 명확하게 기술

향교의 건물 배치와 기능 설명 보완

이 향교는 조선 세종 20년(1438)에 창건하였다. 처음에는 읍성 동측에 세웠는데, 그 후 몇 차례 위치를 옮겼으며, 현종 8년(1667) 현재의 위치에 정착하였다. 건물로는 향교 뒤편의 제향 공간에 대성전과 동무, 서무 등의 사당이 있고, 앞쪽의 교육 공간에는 유생들의 교육 장소였던 명륜당과 기숙사인 동재, 서재 등의 건물이 있다.

한문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 진도향교의 일화 소개

임진왜란 때에 왜병이 진도에 쳐들어오자, 당시 향교의 전교(典校)였던 김희남이 성현의 위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면서 명륜당 기둥에 "세상에 어찌 공자의 도가 없을 수 있겠는가(天下豈無夫子道)?"라고 써 붙여 놓았다. 그 뒤 왜병들이 향교에 침입하여 불을 지르려다 이 글을 보고 경탄하며 그 옆에 "이 나라에도 충성스러운 인물이 있구나(此地亦有忠烈士)!"라고 써 붙인 다음 스스로 후퇴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현재까지 이어온 문화재의 역할 설명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선현 25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해마다 봄과 가을에 이들을 기리는 제사를 지낸다. 향교 내외에는 역대 전교와 유공 인사의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

건조물 | 향교·서원

반곡서원

종목번호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1호
지 역 전라북도 전주시

기존 문안

반곡서원(盤谷書院)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1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주소는 쓰지 않음

문화재의 가치를 제향 역할로 한정하여 설명

이 서원은 조선시대 학자였던 윤황(尹惶)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곳이다.

윤황은 병자호란 때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린 강직한 신하로 유명하다. 윤황은 글씨에 능해 당대의 명필로 이름을 드높였으며, 인조 때에는 전주부윤이라는 벼슬을 맡기도 했다.

반곡서원은 윤황의 위패를 가운데 모시고, 조선시대 학자인 이영선(李榮先)과 서필원(徐必遠)을 함께 모셨다. 이 서원은 고종 5년(1868)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헐렸다가, 고종 15년(1878)에 다시 지어졌다.

윤황과 함께 서원에 배향된 인물의 설명 필요

☆ 문화재에 대한 설명보다는 윤황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룸

개선 문안

반곡서원

盤谷書院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1호

서원의 기본 개념 보완

서원은 선현(先賢)에게 제사를 지내고, 유학을 가르치는 사설 교육기관이다.

배향 인물 세 명의 업적을 명확하게 설명

반곡서원은 정조 1년(1777)에 윤황(尹煌), 이영선(李榮先)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세웠다. 헌종 8년(1842)에 서필원(徐必遠)을 추가로 모셨다. 윤황은 병자호란 때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린 인물이다. 글씨에 능하였으며, 전주부윤을 지냈다. 이영선은 경기전 참봉을 지냈으며, 서필원은 전라관찰사를 지냈다.

문화재의 변천 과정을 추가하여 문안의 균형을 이룸

반곡서원은 고종 5년(1868)에 서원철폐령에 따라 헐렸다. 1898년에 강당을 세워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그 뒤 제단을 마련하여 제사를 지냈다. 1938년에 서원을 다시 세우고 1950년대 이후 보수공사를 네 차례 하였다.

반곡서원에는 교육 공간인 모현당과 윤황, 이영선, 서필원의 위패를 모신 사우가 있다.

건조물 | 사묘재실

송양사

종목번호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63호
지 역	전라북도 고창군
작성요령	사묘재실에 배향된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반영합니다.

기존 문안

송양사
松陽祠

지정종목은 띄어쓰지 않음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63호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송산리~~

주소는 쓰지 않음

송양사는 고려시대 문신인 성사달(成士達)을 비롯하여 성부(成溥), 성여원(成汝源), 성무조(成武祚) 등 창녕성씨(昌寧成氏)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직책소개는 불필요함

성사달은 한필(漢弼)의 현손으로 충혜왕 2년(1341) 문과에 올라 한림(翰林)사성(司成) 직제학(直提學)을 지내고 창산부원군(昌山府院君),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춘추관사(春秋館事) 집현전태학사(集賢殿太學士)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 등을 지냈으며, 명 황제로 부터 이암(易菴)의 호(號)를 받았다. 문장과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죽은 뒤 문효란 시호를 받았다. 경내에는 사당과 경현당(景賢堂), 풍욕루(風浴樓)가 있다.

문화재 배향 인물 설명의 균형 유지 필요

어려운 단어

개선 문안

송양사
松陽祠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63호

문화재의 개념을 간결하게 설명

'송양사'는 창녕 성씨들의 위패를 안치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우*이다.

1930년에 세웠고 1946년에 다시 지었다. 고려 시대 문신인 성사달과 성부, 조선 시대의 성여원, 성무조, 성경수 등의 위패**를 안치하고 있다. 누각인 풍욕루와 강당인 경현당, 학문을 연구하던 명성재, 관리사와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건축 양식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문화재의 건물배치와 가치설명 추가

흥미로운 일화 소개 ①

경현당 기둥 앞의 철제 난간 한 가운데에 성리학의 교리가 함축된 태극무늬가 있다. 일제가 태극무늬 철제 난간을 떼어 가려고 하였으나 이곳 선비들이 강하게 가로막자 포기하였다.

흥미로운 일화 소개 ②

성여원은 문효공 성사달의 7대손으로, 연산군 당시 당쟁이 격화되자 벼슬을 버리고 고창군 대산면 회룡리로 내려왔다. 그의 넷째 아들 성진철의 후손이 이사 오면서 송양사가 있는 솔뫼를 '청산리'라 하였다. 1894년 동학 농민 혁명 당시 마을 사람들이 솔뫼로 안전하게 피신을 하게 되자 '송산'으로 개칭하였다는 일화도 있다.

---

*사우: 선조 혹은 선현의 신주나 영정을 모셔 두고 제향을 행하는 장소

**위패: 죽은 사람의 이름과 죽은 날짜를 적은 나무패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건조물 | 사묘재실

해동사

종목번호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91호
지 역 전라남도 장흥군

기존 문안

해동사(海東祠)

지정종목 표기 오류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107호
~~장흥군 장도면 만수길 25-121~~
~~창건 : 1957년 향사일 : 음력 3월 12일~~

주소, 창건시기, 향사일은 쓰지 않음

단락 구분이 과도하여 읽기가 어려움

문안 중의 ○부호는 필요 없음

○ 해동사는 민족정기의 표상이요, 호국충절의 사표이신 안중근(安重根)의사를 배향하는 사우다.

○ 안의사의 본관은 순흥이요, 문성공 안향의 26대 손으로 1899년 황해도 해주에서 성균관 진사 태훈(泰勳)의 아들로 태어났다.

○ 초명은 응칠(應七), 가슴과 배에 7개의 점이 있어서 북두칠성에 응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어려서 한학을 배우고 7세에 무예를 익혔으며, 1894년(16세) 김아려와 결혼하였다.

○ 1904년 상해로 건너가 신부로부터 교육을 통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여야 한다는 충고를 듣고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귀국, 삼흥학교를 설립 하고 남포의 돈의학교를 인수하여 교육에 힘썼다.

○ 1907년 국채보상기성회 관서지부장이 되어 반일운동을 행동화하고 이 해에 북간도를 거쳐 블라디보스톡에 도착 한인청년회에서 활약하였다.

○ 1909년 대한의군을 조직, 참모총장 겸 독립대장을 맡아 3백명의 의군으로 두만강, 경흥 등지에서 일본군과 격전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퇴패, 결사동지 12명과 단지회를 결성하여 결사보국 할 것을 맹세하고 마침내 10월 26일 우덕순과 함께 하얼빈 역두에서 침략의 원흉 이등박문을 저격하고 의연히 체포되어 여순감옥에 수감되었다. 옥중에서 이등박문의 15가지 죄목을 들어 일본의 야만성을 규탄하는 자서전과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다.

○ 1910년 3월 26일 조국 독립에 대한 한을 품고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향년 32세)

○ 안의사의 유물 2백여점 가운데 20여 점이 보물 제596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 황금백만냥 불여일교자(黃金百萬兩 不如一敎子)

한문구절와 안중근의 관계 설명 필요

개선 문안

해동사

海東祠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91호

지정종목 오류 수정

문화재의 개념과 의미를 밝힘

해동사는 안중근의사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3월 26일에 추모 제향을 봉행하는 국내 최초 유일의 사당이다. 해동사는 안중근의사의 후손이 국내에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장흥군 유림과 죽산 안씨 문중의 발의로, 1955년 장흥지역 죽산 안씨 문중 사당인 만수사(萬壽祠) 부지 내에 건립되었다.

문화재의 건립배경 추가

명칭의 유래를 알기 쉽게 설명

유림 안홍천이 이승만대통령으로부터 해동명월(海東明月)의 휘호를 받아 현판을 걸고 해동사로 명명하였다. 해동은 우리나라를 뜻하고, 명월은 밝은 달이니, 대한민국을 밝게 비추는 곳이라는 뜻이다. 1955년 10월 27일 위패 봉안식에는 딸 안현생과 5촌 조카인 안춘생이 영정사진과 위패를 모시고 참석하였다. 이후 1996년 만수사 아래 터를 마련하고, 순국 90주년 2000년 현재의 3칸 맞배지붕 건물로 다시 지었다.

배향 인물의 생애를 요약하여 전달

안중근의사의 본관은 순흥이며, 고려시대의 유학자인 문성공 회헌 안향(安珦) 선생의 26대손이다.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성균관 진사 안태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09년 10월 26일 일본인으로 가장, 하얼빈 역에 잠입하여 러시아군대의 군례를 받는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체포 되었다. 뤼순감옥에 수감되어 1910년 2월 14일 재판에서 사형선고 되었으며, 3월 26일 순국 하였다.

건조물 | 누·정

예천 초간정

종목번호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75호
지 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요령	누·정의 명칭에 대한 설명, 관련 인물과 일화, 경관에 대해 언급합니다.

문화재 명칭 및 지정종목 표기 오류

기존 문안

초간정(草澗亭)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43호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350~~

주소는 쓰지 않음

이 건물은 『대동운부군옥, 大東韻府群玉』을 저술한 초간 권문해(權文海 1534~1591)가 세우고 심신을 수양하던 곳이다.

조선 선조(宣祖) 15년(1582)에 처음 지어진 이. 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타 버린 것을 중건 하였 으나 인조(仁祖) 14년(1636)에 다시 불타는 등 수난을 거듭했는데, 지금의 건물은 초간의 현손이 1870년 중창한 것으로 기암괴석과 주변의 경관이 조화를 이루어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건축적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문화재를 이해하기 어려움

이 정자채는 사주문을 통하여 들어가며 뒤쪽과 오른쪽은 절벽을 이루고 있다. 자연기단 위에 주초를 놓고 네모기둥을 세운 정면 3칸 측 2칸의 겹처마 팔작집이다. 정면 3칸 중 앞면의 좌측 2칸은 온돌방을 배치하고 나머지 4칸은 통간의 대청으로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측면 사면으로 난간을 설치해 두었다.

어려운 단어

문화재 명칭 및 지정종목 정확하게 표기

개선 문안

예천 초간정

醴泉 草澗亭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75호

문화재의 건립 인물 소개

초간정은 조선 선조 때의 문신 초간 권문해(草澗 權文海, 1534~1591)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심신(心身)의 수양을 위해 세운 정자이다. 권문해는 퇴계 이황의 제자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대구부사, 좌승지 등을 지냈고,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을 지은 인물이다.

문화재의 연혁과 현황정보 제공

선조 15년(1582)에 처음 세워진 초간정은 1592년에 화재로 불탔으며 권문해의 아들 권별(權鼈)이 인조 4년(1626)다시 지었으나, 인조 14년(1636)에 다시 불탔다. 지금 남아 있는 건물은 영조 15년(1739)에 권문해의 현손(玄孫)*인 권봉의(權鳳儀)가 원래의 터에서 약간 서쪽으로 옮겨 지은 것을 고종 7년(1870)에 후손들이 새로 고쳐지었다.

흥미로운 일화 소개

'초간정사'라는 현판은 소고(嘯皐) 박승임(朴承任)의 글로, 정자에 여러 차례 화재가 나면서 잃어버렸다가 훗날 다시 발견하였는데, 정자 앞 늪에서 영롱한 빛이 보여 파보았더니 현판이 묻혀있었다는 전설이 있다.

정자는 암반 위에 돌을 쌓아 만든 축대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세워졌다. 정면의 왼쪽 두 칸은 온돌방을 배치하였고, 나머지는 대청마루로 사면에 난간을 설치하였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양식이다.

문화재의 경관적 가치 부각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진 초간정은 현재 관광지,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다.

---

*현손: 증손자의 아들. 또는 손자의 손자. ≒고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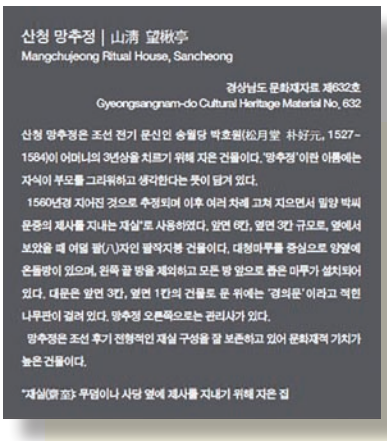
**팔작지붕: 옆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지붕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건조물 | 누·정

산청 망추정

종목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632호
지 역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 망추정 | 山淸 望楸亭
Mangchujeong Ritual House, Sancheong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632호
Gyeongsangnam-do Cultural Heritage Material No. 632

산청 망추정은 조선 전기 문신인 송월당 박호원(松月堂 朴好元, 1527~1584)이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망추정'이란 이름에는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생각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1560년경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여러 차례 고쳐 지으면서 밀양 박씨 문중의 제사를 지내는 재실*로 사용하였다. 앞면 6칸, 옆면 3칸 규모로, 옆에서 보았을 때 여덟 팔(八)자인 팔작지붕 건물이다.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양옆에 온돌방이 있으며, 왼쪽 끝 방을 제외하고 모든 방 앞으로 좁은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대문은 앞면 3칸, 옆면 1칸의 건물로 문 위에는 '경의문'이라고 적힌 나무판이 걸려 있다. 망추정 오른쪽으로는 관리사가 있다.

망추정은 조선 후기 전형적인 재실 구성을 잘 보존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재실(齋室):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

신규 문안

산청 망추정
山淸 望楸亭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632호

건립 이유와 이름의 유래 설명

산청 망추정은 조선 전기 문신인 송월당 박호원(松月堂 朴好元, 1527~1584)이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망추정'이란 이름에는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생각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관람객의 시선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구조 해설

1560년경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여러 차례 고쳐 지으면서 밀양 박씨 문중의 제사를 지내는 재실*로 사용하였다. 앞면 6칸, 옆면 3칸 규모로, 옆에서 보았을 때 여덟 팔(八)자인 팔작지붕 건물이다.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양옆에 온돌방이 있으며, 왼쪽 끝 방을 제외하고 모든 방 앞으로 좁은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대문은 앞면 3칸, 옆면 1칸의 건물로 문 위에는 '경의문'이라고 적힌 나무판이 걸려 있다. 망추정 오른쪽으로는 관리사가 있다.

문화재적 가치 설명

망추정은 조선 후기 전형적인 재실 구성을 잘 보존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재실(齋室) :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함안 칠원향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81호

2020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사적지

선사유적·발굴터 / 관방유적 /
유허지 / 묘역

사적지 | 선사유적·발굴터

부여 송국리 유적

종목번호	사적 제249호
지 역	충청남도 부여군
작성요령	발굴연혁과 출토유물, 고고학적 의의를 서술합니다.

기존 문안

송국리 유적

안내판의 제목 부분에는 문화재명(국·영문), 지정종목을 기술 해야 함

산만한 문장으로 문화재 가치 소개

송국리 선사취락지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유적지로서 취락, 방어, 분묘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 유적으로 국내 최고, 최대의 청동기 유적입니다. 1974년 4월 석관묘에서 요령식 동검이 처음 발견되면서 국내외에 커다란 반응을 불러일으켜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송국리의 문화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거쳐 일본 야요이 문화의 형성기에 북구주 지역까지 파급되는 등 청동기 문화에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형을 보면 표고 40m 황토 흙으로 이루어진 얕은 야산이 밋밋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야산언덕 사이로는 작은 하천이 흐르고 주변에는 넓은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어 취락 구조를 이루기 좋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송국리 문화의 설명이 없음

지형보다 발굴된 유물 해설이 필요함

단락 구분 필요

부여 송국리 유적 | 扶餘 松菊里 遺蹟
Archeological Site in Songguk-ri, Buyeo

사적 제249호
Historic Site No. 249

This was the site of a large village dating to the Bronze Age (1500-300 BCE). It first became known in 1974 when a stone cist tomb was discovered with 33 artifacts including bronze daggers inside, which was the largest discovery of prehistorical artifacts in Korea at the time.

Around 110 dwelling sites have been excavated at this site. In the center of the village was a flat area with a rectangular and round dwelling site. On the slopes around this were clusters of round dwellings. Among these dwellings, some had an elliptical pit in the center, at the ends of which pillars were erected; This unique layout came to be known as a "Songguk-ri dwelling site."

Many earthenware jars with a narrow base, bloated body, and short lip were excavated. This kind of earthenware is known as "Songguk-ri earthenware."

Seven earthenware jar tombs were also discovered. This style of tomb is made by making a hole in the base of the aforementioned Songguk-ri earthenware jar. This kind of tomb has also been excavated at a Yayoi-period (300 BCE-300 CE) site in northern Kyushu, Japan, showing that the Songguk-ri culture spread to Japan.

개선 문안

부여 송국리 유적

扶餘 松菊里 遺蹟

사적 제249호

문화재 명칭 및 지정종목 정확하게 표기

문화재의 가치를 명료하게 제시

부여 송국리 유적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대규모 마을 유적이다.

① 발굴 연혁 설명

② 출토유물과 고고학적 가치 기술

1974년 돌널무덤이 발견되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그 후 현재까지 25차례의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청동기문화 대표유적이 되었다. 1974년 당시 돌널무덤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을 포함한 33점의 위세품(威勢品)*은 당시 한국 선사고고학계의 최대 발견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무수히 많은 유구와 유물 중 바닥 중앙에 구덩이를 파고 양 끝에 기둥을 세운 독특한 구조의 원형주거지와 바닥이 좁고 몸통은 불룩하며 입구가 짧게 벌어진 토기가 특징적인데 각각 송국리형 주거지, 송국리형 토기로 불리고 있다.

③ 발굴 유적을 통한 대외 관계 입증

송국리식 주거지와 토기 등은 일본의 야요이시대** 유적에서도 확인되어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청동기문화가 전파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외에도 송국리유적에서는 돌도끼, 돌칼, 돌화살촉, 불탄 쌀, 청동도끼 거푸집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당시 청동기시대 문화상을 보여주는 중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 특정세력의 신분, 정치적·사회적 위상을 상징하는 물건

** BC300~AD300. 일본의 신석기시대 이후 농경과 금속기가 등장한 시대를 일컬음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사적지 | 선사유적·발굴터

공주 정지산 유적

종목번호 사적 제474호
지 역 충청남도 공주시

기존 문안

공주 정지산 유적

公州 艇止山 遺蹟

사적 제474호

이곳은 정지산의 구릉지대에 자리잡은 유적으로 1996년 국립공주박물관의 발굴조사 결과 백제시대의 국가적 차원의 제의시설로 추정된다. 유적지 내에서는 국가의 중요시설에만 사용된 8잎의 연꽃잎이 새겨진 수막새가 발견되었고, 이외에 화려한 장식이 부착된 장고형 그릇받침 등 국가 제사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적지 규모와 유구 설명 없이 출토유물만 설명함

이 유적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무령왕과 왕비의 매지권에 기록된 신지(申地), 유지(酉地)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왕비의 시신이 사후 무령왕릉에 안치되기까지 2~3여 년간 시신이 수습되어 보관된 곳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나 건물의 기둥을 받쳐주는 초석이 없는 건물로 제작되어 영구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과 유적지 내의 대벽건물지(大壁建物址)에서는 얼음을 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문화재 설명

이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문화재 설명

어려운 단어

개선 문안

공주 정지산 유적

公州 艇止山 遺蹟

사적 제474호

유적의 위치를 인근 문화재와 유기적으로 설명

유적지의 규모와 유구에 대한 설명이 보완됨

공주 정지산 유적은 정지산 구릉 위쪽에 위치하는, 웅진 도읍기 백제의 국가 제의 시설로 추정되는 곳이다. 무령왕릉이 있는 공주 송산리 고분에서 멀지 않은 북쪽에 위치한다. 이곳에서 1996년 발굴 조사를 통하여 기와 건물 터 1동과 벽주* 건물 터 7동,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 울타리와 외곽의 목책 시설, 그리고 저장 구덩이 등이 확인되었다.

기와 건물 터는 32개의 기둥을 3열로 촘촘하게 배치하여 만든 곳으로, 기와를 올렸던 것으로 확인된다. 건물 터에서 출토된 수막새에는 국가의 중요 시설에만 사용했던 8잎의 연화문이 새겨져 있었다. 이밖에 화려한 장식이 있는 장고형그릇받침, 굽다리접시(高杯), 세발토기(三足土器) 등 국가 제사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었다.

최신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문화재의 가치 기술

이 유적은 공산성을 기점으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무령왕의 매지권**에 왕릉이 있는 곳으로 기록된 신지(申地)와 왕비지석에 왕비의 상을 치른 곳으로 기록된 유지(酉地)의 방향이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지석에 기록된 대로 왕비의 시신을 무령왕릉에 안치하기 전까지 약 27개월 동안 모셔두었던 빈전(殯殿)***으로 추정된다.

---

* 외곽에 벽을 돌린 형태로 벽 사이 기둥을 세운 곳.

** 죽은 사람의 이름과 생몰 연월일, 행적, 무덤의 소재 등을 적어 무덤 앞에 묻는 돌.

*** 왕이나 왕비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기 전에 임시로 보관하던 곳.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사적지 | 선사유적·발굴터

대구 진천동 입석

종목번호 사적 제411호
지 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존 문안

제단과 입석

안내판의 제목 부분에는 문화재명(국·영문), 지정종목을 기술 해야 함

입석에 대한 설명이 없고, 유적의 위치만 설명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어려움

○ 진천동 유적이 발견된 곳은 야트막한 하천변 충적지, 대덕산에서 발원한 진천천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이다. 비옥한 농경지와 하천이 인접해 어로와 수렵까지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하천변 구릉, 충적지를 특징으로 하는 청동기시대 주거형태와도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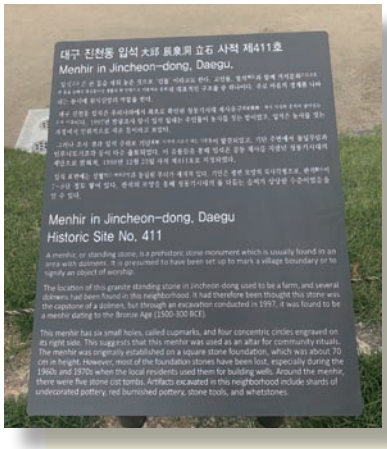
발굴 당시의 연대 표기 누락

관람객이 흥미를 갖기 어려운 문화재 가치 서술

○ 발굴 당시 입석의 규모가 크지 않아 고인돌의 덮개석으로 추정했으나 조사과정에서 기단석들이 확인되면서 제단유적으로 확인되었다. 석축의 규모는 20x10m 범위. 가장자리를 'ㄷ'자로 구획하고 내부에 입석을 세워 놓았다. 석축은 5단 이상 쌓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석축의 트인 쪽에선 물길 흔적과 강자갈이 발견돼 하천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 진천동 입석 벽면엔 성혈과 동심원이 선명하고 기반에선 석축과 제단의 윤곽이 드러났다. 주변에선 청동기시대 대표 묘제인 석관묘 5기가 같이 발굴되었다. 매장, 제의, 제단, 암각화 등 원시신앙의 흔적이 모두 한자리에 나타났다.

어려운 단어



개선 문안

문화재 명칭 및 지정종목 정확하게 표기

대구 진천동 입석

大邱 辰泉洞 立石

사적 제411호

문화재의 개념과 역할 설명

입석(立石)은 큰 돌을 세워 놓은 것으로 '선돌'이라고도 한다. 고인돌, 열석(列石)과 함께 거석문화(巨石文化: 큰 돌을 숭배의 대상물이나 생활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문화)의 대표적인 구조물 중 하나이다. 주로 마을의 경계를 나타내는 동시에 원시신앙의 역할을 한다.

전문용어를 괄호를 통해 풀이하여 설명

발굴조사 일화와 지정배경을 흥미롭게 소개

대구 진천동 입석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확인된 청동기시대 제사유구(祭祀遺構: 제사 의식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적 시설)이다. 1997년 발굴조사 당시 입석 일대는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밭이었고, 입석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세운 돌이라고 보았다.

전문용어를 괄호를 통해 풀이하여 설명

그러나 조사 결과 입석 주위로 기단(基壇: 비석의 기초가 되는 기둥돌)이 발견되었고, 기단 주변에서 돌널무덤과 민무늬토기조각 등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 유물들을 통해 입석은 공동 제사를 지냈던 청동기시대의 제단으로 밝혀져, 1998년 12월 23일 사적 제411호로 지정되었다.

출토유물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여 대구 진천동 입석의 가치를 드러냄

입석 표면에는 성혈(性穴:바위구멍)과 동심원 무늬가 새겨져 있다. 기단은 평면 모양의 직사각형으로, 판석(板石)이 7~8단 정도 쌓여 있다. 판석의 모양을 통해 청동기시대의 돌 다듬는 솜씨가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적지 | 관방유적

서천읍성

종목번호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32호
지 역	충청남도 서천군
작성요령	유적의 기능과 축조방법 및 시기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기존 문안

서천읍성(舒川邑城)

지 정 별 : 문화재자료 제132호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위 치 :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시 대 : 조선 세종 대~~

지정년월일, 주소 등은 쓰지 않음

문장이 산만함

시가지의 동쪽 야산에 축조한 포곡식(包谷式)의 성곽이다. 읍성은 조선시대 초기에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고을과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쌓았는데, 이 읍성도 그 과정에서 세종대(재위 1418~1450) 축조되었다.

축성 기간 설명 필요

현존하는 읍성은 동서로 긴 직사각형에 가까우며, 둘레는 1,190m이다. 성벽은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돌을 사용하여 쌓았으며, 성돌과 성돌 사이에는 작은 돌로 쐐기돌을 끼워 넣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부대시설로 치성(雉城) 14개소가 확인되고 있는데 외벽만 돌로 쌓고, 내부는 흙으로 채웠다. 출입구는 동문과 남문 2곳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성벽 밖에는 동,서,남,벽에서 8~10m 떨어져 폭 5~6m, 깊이 2~3m로 도랑을 판 해자(垓字) 시설이 남아 있다. 성 안에는 관아와 건물 및 우물 등이 있었으나 각종 시설물로 인해 원래의 모습을 잃어 확인되지 않는다.

축조 방법과 규모 설명을 추정치로 설명함

원래의 성 길이 설명 필요

불필요한 정보 기재

단락 구분 필요

어려운 단어

개선 문안

서천읍성

舒川邑城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32호

읍성의 개념과 기능 설명

서천읍성은 조선 시대 읍성이다. 읍성이란 군이나 현의 주민을 보호하는 한편, 군사 및 행정 기능을 담당했던 지방 주요 지역에 쌓은 성이다. 우리나라 서해안 곳곳에는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이러한 읍성을 많이 쌓았다.

축조시기와 연혁 안내

서천읍성은 세종 20년(1438)과 세종 32년(1450) 사이에 처음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의 성은 숙종 41년(1715)에 다시 쌓은 것으로 처음 쌓은 곳에서 지금의 위치로 옮겨지면서 규모가 확장되었다.

축조 방법, 원래 규모와 현재 규모, 현황 소개

최신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

돌로 쌓은 서천읍성의 둘레는 약 1,645m에 달하며,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의 둘레는 대략 1,190m, 높이는 3m이다. 성벽 밖으로 돌출되게 쌓은 치성(雉城)이 16개이고 문 터가 3곳이나 있다. 성벽은 외벽만 돌로 쌓고 내벽은 흙과 돌을 섞어서 채웠다. 성벽 바깥쪽으로 10m 전후의 거리에 너비 5~6m, 깊이 2~3m의 방어용 도랑인 해자(垓子) 시설이 남아 있다.

사적지 | 관방유적

장도포대지

종목번호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9호
지 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존 문안

장도포대지

獐島砲臺址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9호

장도포대는 조선고종 16년(1879)에 인천으로 진입하는 이양선을 막기 위하여 화도진을 구축할 당시 축조되었다.

포대 운영기간에 대한 설명 보완 필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화도진도'에서 이곳에 3개의 포좌가 설치됐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2개는 바다 쪽을 향하고 있고 1개는 동남쪽을 향하고 있어 각각 외곽과 내곽 수비가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화도진도'에 표기된 정보로 안내문안 전체를 구성하고 있음

포대 설치의 필요성과 위치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에 설명이 매우 빈약함

개선 문안

장도포대지

獐島砲臺址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9호

문화재의 의의를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

이곳은 서해로 들어오는 외적을 막기 위해 고종 16년(1879)에 설치한 장도포대가 있던 곳이다.

알기 쉽게 문화재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

19세기 중엽 이후 이양선(모양이 다른 배라는 뜻으로, 주로 조선 시대에 외국의 선박을 이르던 말)의 출몰이 빈번해지자, 외적이 서해안을 통해 서울로 진입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안 군사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국가 안위의 필요에 따라 고종 15년(1878)에 어영대장 신정희와 강화유수 이경하에게 인천·부평 지역에 군사 진영과 포대를 세울 것을 명령하였고, 이듬해인 고종 16년(1879)에 화도진, 장도포대, 논현포대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해안 방어 기지는 고종 31년(1894)에 군제 개편으로 화도진이 철폐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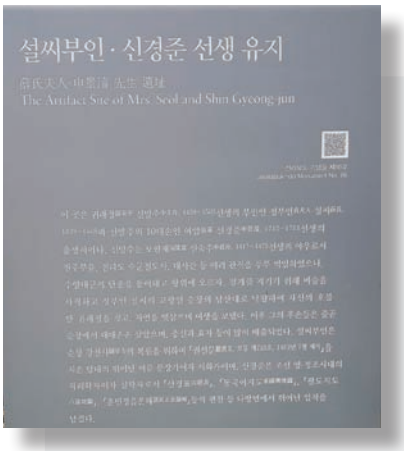
복원 사실을 밝혀서 정확한 정보 제공

현재의 포대는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복원한 것이다. 화도진의 모습을 그린 「화도진도」에 의하면 원래 장도포대에는 대포를 설치하는 포좌 3기가 있었으나, 지형 여건으로 인해 2기만 복원했다.

사적지 | 유허지

설씨부인, 신경준 선생 유지

종목번호	전라북도 기념물 제86호
지 역	전라북도 순창군
작성요령	유허지의 연혁과 가치를 소개하고, 현재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기존 문안

설씨부인, 신경준 선생 유지

薛氏夫人, 申景濬 先生 遺址

전라북도 기념물 제86호

문장이 산만함

이곳은 귀래정(歸來亭) 신말주(申末舟, 1429~1503)선생의 부인인 정부인(貞夫人) 설씨(薛氏, 1429~1508)와 신말주의 10대손인 여암(旅菴) 신경준(申景濬, 1712~1781)선생의 출생지이다. 신말주는 보한재(保閑齋) 신숙주(申叔舟, 1417~1475)선생의 아우로서 전주부윤, 전라도 수군절도사, 대사간 등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나,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절개를 지키기 위해 벼슬을 사직하고 정부인 설씨의 고향인 순창의 남산대로 낙향하여 자신의 호를 딴 귀래정을 짓고, 자연을 벗 삼으며 여생을 보냈다. 이후 그의 후손들은 줄곧 순창에서 대대손손 살았으며, 충신과 효자 등이 많이 배출되었다. 설씨부인은 순창 강천사(剛泉寺)의 복원을 위하여 『권선문(勸善文)』을 지은 당대의 뛰어난 여류 문장가이자 서화가이며, 신경준은 조선 영·정조시대의 지리학자이자 실학자로서 『산경표(山經表)』,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 『팔도지도(八道地圖)』, 『훈민정음운해(訓民正音韻解)』 등의 편찬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잘못된 내용 기재

신말주에 대한 이전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작성됨

문장이 길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이해가 어려움

복원사업에 대한 해설 누락

단락 구분 필요

개선 문안

설씨부인, 신경준 선생 유지

薛氏夫人, 申景濬 先生 遺址

전라북도 기념물 제86호

문화재 관련 인물 소개

설씨부인, 신경준 선생 유지는 신말주(申末舟, 1429 ~ 1503)와 그의 부인인 설씨(薛氏, 1429 ~ 1508) 그리고 신말주의 11대손인 신경준(申景濬, 1712 ~ 1781) 등 그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이다.

기존 문안의 오류 수정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문안 개선

신말주는 조선 전기의 대표적 명신인 신숙주의 막냇동생이다. 그는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세조 원년(1455) 공신이 되었으며, 이후 여러 관직을 지냈다. 연산군 4년(1498) 70세의 나이로 은퇴한 후에는 부인의 고향인 순창으로 귀향하여 여생을 보냈다. 이후 신말주의 후손은 대대로 순창에서 살았다.

설씨부인과 신경준을 나눠서 기술하여 읽기가 쉬움

설씨부인은 뛰어난 문장가이자 서화가였다. 강천사의 복원을 위해 성종 13년(1482)에 직접 지은 권선문(勸善文)과 사찰도가 보물 제728호로 지정되었다.

신경준은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자이다. 의학, 점술, 법률,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으며, 조선의 산맥 체계를 도표로 정리한 『산경표(山經表)』를 간행하는 등 지리학 방면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이곳 유적지는 1996년부터 복원 사업이 추진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생활 영역과 사당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오른쪽에는 문화유산을 보관하는 유장각이 있고, 뒤쪽 언덕 위에는 신말주가 지은 정자인 귀래정이 있다.

문화재의 복원 내력 및 현황 설명

사적지 | 묘역

이준경 선생 묘

종목번호	경기도 기념물 제96호
지 역	경기도 양평군
작성요령	묘역의 구성, 묘주의 생애와 업적을 반영합니다.

기존 문안

이준경 선생 묘

李浚慶 先生 墓

경기도 기념물 제96호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여러 사화(士禍)속에서도 나라의 안녕을 도모하려고 애쓴 동고 이준경(東皐 李浚慶, 1499~1572)의 묘이다. 이준경은 광주(廣州) 이씨로, 연산군 10년(1504) 갑자사화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연좌되어 유배되었다가 중종반정으로 풀려났다. 중종 26년(1531)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을 거쳐 홍문관 부수찬과 직제학, 병조판서, 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했다. 명종 8년(1553) 함경도 지방에 야인들이 침입하자 함경도순변사가 되어 그들을 타일러 다스렸고 명종 10년 전라도 도순찰사로 출정하여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다. 이어 병조판서, 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기묘사화로 죄를 받은 조광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을사사화로 죄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신원하였다. 조선 시대 사대부 집안의 일반적인 묘역 구조는 봉분 앞에 묘비·혼유석·상석·향로석이 있으며, 상석 앞에는 장명등이 있고, 그 좌우에 동자석·망주석·문인석이 각 한 쌍씩 배열되어 있다. 이준경의 묘역은 봉분을 중심으로 묘비와 상석, 그리고 향로석이 갖추어져 있고 그 앞에는 장대석으로 단을 만들었다. 단 앞 중앙에는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세우는 장명등이 있고 좌우로 묘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인 망주석과 무덤을 수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문인석이 있다. 묘비는 근래에 세운 것이고, 원비는 선조 18년(1585)에 건립되고 노수신이 글을 지은 것으로 현재는 수원대학교 박물관에 있다.

문장이 산만함

단락 구분 필요

인물 소개 후 묘역을 설명함

어려운 단어

이준경 선생 묘
李浚慶 先生 墓

경기도 기념물 제96호

조선 중기 문신인 이준경[1499~1572]의 묘이다. 부인인 풍산 김씨와 함께 묻혀 있다. 무덤 아래쪽은 둥글게 돌을 둘렀다. 무덤 양옆에 세우는 돌기둥인 망주석은 팔각형의 기둥을 받침돌에 끼우는 형태이다. 무덤 앞에 세운 장명등은 맨 위 봉오리에 2단으로 단을 두었는데 이는 16세기 장명등의 특징이다.

무덤의 주인을 알리는 묘표는 새로 만들어 세운 것이다. 원래의 것은 이준경이 등용한 노수신이 썼다. 묘표는 마모가 심해 수원대학교 박물관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이준경은 조선 중기 관료와 선비 계층이 정치적 반대파에게 몰려 화를 입은 사화[士禍]의 한가운데 있었다. 이준경의 할아버지가 연산군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의 죽임과 관계하였다는 이유로[갑자사화] 아버지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이준경은 6세 나이로 유배 생활을 하였다. 또한 조선 중종 때 조광조를 비롯하여 그 무리가 화를 입은 사건[기묘사화]에서 그들이 죄가 없음을 주장하다가 관직에서 물러나다가 다시 등용되었다. 이후 이준경은 억울한 인재들에게 등용의 기회를 주는 등 국정을 위해 힘썼다. 죽기 직전에 붕당*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유언하였는데 실제 3년 뒤 서인과 동인으로 붕당이 일어나다.

*붕당 : 조선 중기 학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형성된 집단

Tomb of Yi Jun-gyeong

Gyeonggi-do Monument No. 96

This is the tomb of Yi Jun-gyeong (1499~1572), a military official of the Joseon period (1392-1910), and his wife Lady Kim.

Yi Jun-gyeong's grandfather and father were killed during the Literati Purge of 1504, as he was sent into exile with his older brother until 1506. He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in 1535 and began his official career, but was dismissed two years later after being framed by his political rivals for insisting on the innocence of those who died in the Literati Purge of 1519. He was reappointed in 1537 and held many important positions, ultimately becoming chief state councilor, the highest position in the government, in 1565.

The tomb mounds are surrounded at the base square stones to help prevent them from collapsing. In front of the mounds are a tortoiseat, stone table, stone incense table, and a stone lantern, with a pair of stone pillars and a pair of statues of civil officials to the left and right. There was an original tortoiseat erected in 1585, but it had been severely eroded, so it was moved to the University of Suwon Museum for preservation and replaced with a new tortoiseat. The tortoiseat's inscription was composed by the civil official Nu Sawn (1515~1590). At the entrance to the tomb area is a stele erected in 1984 to commemorate Yi Jun-gyeong's life and achievements. There was once an original stele erected in 1585, but it was damag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1598. The inscription on the stele was also composed by Nu Su-sin.

문화재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

개선 문안

이준경 선생 묘

李浚慶 先生 墓

경기도 기념물 제96호

묘역의 구성과 무덤에 묻힌 인물 설명

조선 중기 문신인 이준경(1499~1572)의 묘이다. 부인인 풍산 김씨와 함께 묻혀 있다. 무덤 아래쪽은 둥글게 돌을 둘렀다. 무덤 양옆에 세우는 돌기둥인 망주석은 팔각형의 기둥을 받침돌에 끼우는 형태이다. 무덤 앞에 세운 장명등은 맨 위 봉오리에 2단으로 단을 두었는데 이는 16세기 장명등의 특징이다.

묘역의 주요 구성 요소인 묘표 설명

무덤의 주인을 알리는 묘표는 새로 만들어 세운 것이다. 원래의 것은 이준경이 등용한 노수신이 썼다. 묘표는 마모가 심해 수원대학교 박물관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생애와 업적 설명

이준경은 조선 중기 관료와 선비 계층이 정치적 반대파에게 몰려 화를 입은 사화(士禍)의 한가운데 있었다. 이준경의 할아버지가 연산군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의 죽임과 관계하였다는 이유로(갑자사화) 아버지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이준경은 6세 나이로 유배 생활을 하였다. 또한 조선 중종 때 조광조를 비롯하여 그 무리가 화를 입은 사건(기묘사화)에서 그들이 죄가 없음을 주장하다가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등용되었다.

흥미로운 일화 소개

이후 이준경은 억울한 인재들에게 등용의 기회를 주는 등 국정을 위해 힘썼다. 죽기 직전에 붕당*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유언하였는데 실제 3년 뒤 서인과 동인으로 붕당이 일어났다.

*붕당 : 조선 중기 학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형성된 집단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묘역 설명 후 인물 소개

사적지 | 묘역

서천 이곡의 묘

종목번호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406호
지 역 충청남도 서천군

신규 문안

서천 이곡의 묘

舒川 李穀의 墓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406호

묘주의 생애와 업적 소개

이곡의 묘는 고려 말의 학자이자 문신인 가정 이곡(稼亭 李穀, 1298~1351)의 묘이다. 이곡은 고려의 마지막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목은 이색(李穡, 1328~1396)의 아버지이다. 이곡은 원나라에 유학하여 고려 충혜왕 2년(1332)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원나라와 고려에서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쳤다. 원나라 조정에 고려로부터 공녀*를 강제로 데려오지 말 것을 건의하여 중지시키기도 하였다.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고려 말 집권 세력이 받아들이지 않아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이곡이 지은 시 가운데 100여 편 가까운 작품이 『동문선(東文選)』에 수록되어 있다. 동식물을 의인화한 가전체 문학 「죽부인전」과 그의 문집인 『가정집(稼亭集)』 4책 20권이 전하고 있다.

묘역 구조와 묘비 설명

종산(宗山)**에 다른 묘와 함께 큰 묘역을 이루고 있으며, 묘역 앞에는 재실***이 있다. 봉분 앞에는 상석과 묘비가 있고, 왼편에 향로석, 오른편에 또 하나의 묘비가 있다. 오른쪽의 묘비는 세종 11년(1429)에 세워졌으며, 가운데 묘비는 중종 21년(1526)에 후손에 의해 새로 세워졌다.

*원나라의 요구로 여자를 바치던 일. 또는 그 여자.
** 한 문중의 조상을 모신 산.
***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설씨부인, 신경준 선생 유지 전라북도 기념물 제86호

2020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불교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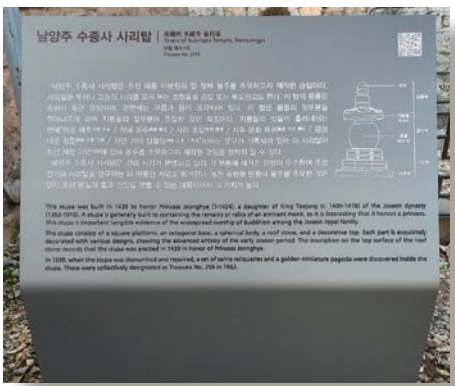
탑·부도 / 불상 / 불화 / 고건축 /
사지 / 비석 / 종

함안 장춘사 대웅전 경성남도 문화재자료 제16호

불교문화재 I 탑 / 부도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

종목번호	보물 제2013호
지 역	경기도 남양주시
작성요령	전문용어는 해설 또는 각주를 사용하며, 탑과 관련한 설화를 반영합니다.



신규 문안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
南楊州 水鐘寺 舍利塔

보물 제2013호

사리탑의 개념과 제작 이유 설명

구조적 특징 부각

한문을 해석하여 시주자와 설립시기를 밝힘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은 조선 태종 이방원의 딸 정혜 옹주를 추모하고자 제작한 승탑이다. 사리탑은 부처나 고승의 사리를 모셔 두는 조형물로 승탑 또는 부도라고도 한다. 이 탑의 몸돌은 공같이 둥근 모양이며, 겉면에는 구름과 용이 조각되어 있다. 이 탑은 몸돌의 윗부분을 튀어나오게 하여 지붕돌의 밑부분에 조립한 것이 특징이다. 지붕돌의 빗물이 흘러내리는 면에 "태종 태후(太宗 太后) / 정혜 옹주(貞惠 翁主) / 사리 조탑(舍利 造塔) / 시주 문화 류씨(施主 文化 柳氏) / 금성 대군 정통(錦城 大君 正統) / 사년 기미 십월일(四年 己未 十月日)"이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어 이 사리탑이 조선 세종 21년(1439)에 정혜 옹주를 추모하고자 제작된 것임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은 건립 시기가 분명하고 탑의 각 부분에 새겨진 문양이 우수하여 조선 전기의 사리탑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승탑을 만들어 옹주를 추모한 것은 당시 조선 왕실의 불교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그 가치가 높다.

불교문화재 I 탑 / 부도

남해 보리암 전 삼층석탑

종목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74호
지 역 경상남도 남해군

기존 문안

남해 보리암 전 삼층석탑 (南海 菩提庵 前 三層石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7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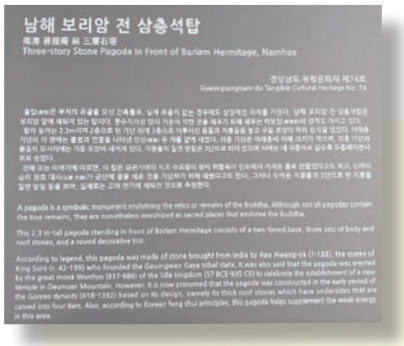
단락 구분 필요

이 탑은 금산(錦山)정상의 절벽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보(裨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리암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보리암전 삼층석탑으로 불리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683년(신문왕3)에 원효대사(元曉大師)가 금산에 처음으로 절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가락국의 수로왕비인 허태후(許太后)가 인도에서 가져온 파사석(婆娑石)으로 탑을 만들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 의하면 허태후가 가져온 부처의 사리를 이곳에 안치하게 위해 탑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 탑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고 양식 또한 고려초기의 것이기 때문에 전하는 이야기와는 사실상 거리가 멀다. 이 탑의 형식은 커다란 돌 하나로 된 단층 받침(基檀)을 세우고 면석(面石)에는 모서리 기둥을 새겼으며 그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모습이다. 각층 몸체의 사면에는 모서리 기둥을 새겼다. 지붕들의 처마에는 4단의 받침이 있으며 약간의 경사를 두면서 자연스럽게 처리되었다. 꼭대기 부분(上輪部)에는 구슬모양의 보주(寶珠)가 남아있다.

설화나 전설은 문안의 후반부에 배치하는 것이 좋음

관람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문화재 구조 설명

어려운 단어



개선 문안

남해 보리암 전 삼층석탑

南海 菩提庵 前 三層石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74호

석탑의 개념 설명을 통한 관람객 이해도 제고

불탑(佛塔)은 부처의 유골을 모신 건축물로, 실제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남해 보리암 전 삼층석탑은 보리암 앞에 세워져 있는 탑이다. 풍수지리상 땅의 기운이 약한 곳을 채우기 위해 세우는 비보탑(裨補塔)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부연설명을 통해 어려운 용어 풀이

구조적 특징 설명

탑의 높이는 2.3m이며 2층으로 된 기단 위에 3층으로 이루어진 몸돌과 지붕돌을 놓고 구슬 모양의 머리 장식을 얹었다. 아래층 기단의 각 면에는 불꽃과 연꽃을 나타낸 안상(眼象) 두 개를 얕게 새겼다. 위층 기단은 아래층에 비해 크기가 작으며, 위층 기단과 몸돌의 모서리에는 기둥 모양이 새겨져 있다. 지붕돌의 밑면 받침은 3단으로 되어 있으며 처마는 네 귀퉁이로 갈수록 두툼해지면서 위로 솟았다.

관련 설화 소개, 축조 시기와 관련한 학술 정보 제공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탑은 금관가야의 시조 수로왕의 왕비 허황옥이 인도에서 가져온 돌로 만들었다고도 하고, 신라의 승려 원효 대사(元曉 大師)가 금산에 절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고도 한다. 그러나 두꺼운 지붕돌과 3단으로 된 지붕돌 밑면 받침 등을 보아, 실제로는 고려 전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한다.

불교문화재 I 탑 / 부도

광덕사 부도

종목번호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85호
지 역 충청남도 천안시

기존 문안

광덕사 부도(廣德寺 浮屠)

지정별 : 유형문화재 제85호
지정년월일 : 1978년 12월 30일
~~위치 :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산175-1~~
주소는 쓰지 않음

광덕사 경내에서 북쪽으로 약 150m 떨어진 산기슭에 4기의 부도가 자리하고 있다.

문장이 산만함

청상스님(1603~1671)의 사리를 모신 청소당 부도를 비롯하여 적조당 부도, 우암당 부도, 그리고 무명부도 등이다.

단순 외형 묘사는 하지 않음

청소당 부도와 적조당 부도의 형태는 기단 일부가 8각을 이루고 있으며, 기단부와 원구형 탑신부 그리고 머리 장식을 갖추고 있다. 우암당 부도의 탑신은 타원형의 몸돌과 6각 지붕돌이 있고 그 위로 둥근 머리 장식이 솟아있다.

무명 부도는 연꽃잎 무늬를 새긴 아래 받침돌 위에 8각의 가운데 받침돌을 올리고 세 줄의 연꽃잎을 새긴 뒷받침 돌을 얹어 기단을 마련하였다. 탑신은 종 모양을 하고 있어서 둥글고 길쭉하며, 꼭대기에는 보주를 얹어 머리 장식을 하고 있다.

광덕사 사적기의 기록이나 전체적인 형태, 둥근 탑신의 모습 등으로 보아 모두 조선시대의 작품이다.

어려운 단어

개선 문안

광덕사 부도

廣德寺 浮屠

지 정 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85호
지정년월일 : 1978, 12, 30.

부도의 개념과 여러 명칭에 대해 설명

광덕사 부도는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리탑이다. 부도(浮屠)는 승려의 사리와 유골을 보관하는 묘탑으로 승탑 혹은 사리탑으로 불리기도 한다. 광덕사에는 모두 5기의 부도가 전하는데 이 중 북쪽으로 150m 떨어진 산기슭에 모여 있는 4기의 부도는 충남유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 되고 있다.

부도 주인의 이름과 행적 소개

3기의 부도에는 승려의 법호*인 청소당(靑霄堂), 적조당(寂照堂), 우암당(愚菴堂)이란 글이 새겨져 있는데 나머지 1기에는 아무 글도 새겨져 있지 않다. 부도의 주인 중 청소희옥(靑霄熙玉, 1603~1671)은 서산대사로 알려진 휴정의 손상좌**이자 제월대사로 알려진 경헌의 제자로 17세기 말에 작성된 2권의 광덕사 사적에 행장***이 전한다.

관람객의 시선을 고려하여 부도의 구조적 특징 설명

청소당 부도를 비롯해 적조당 부도와 우암당 부도는 탑몸이 둥글고 받침돌은 팔각으로 된 것도 있고 육각으로 된 것도 있다. 지붕돌은 모두 육각이다. 청소당부도의 형태와 세부 장식이 가장 안정적이고 화려하다. 아무 글도 새겨져 있지 않은 무명 부도는 탑몸이 종처럼 생겼고 받침돌은 팔각이다. 머릿돌에는 보주 장식이 있다. 이 부도는 높은 받침돌의 각 면에 돋을새김한 신장상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승려의 이름은 법명이라 하고, 승려의 호는 법호라 함

**제자의 제자, 즉 손자와 같은 의미

***죽은 이의 업적을 서술한 한문 문체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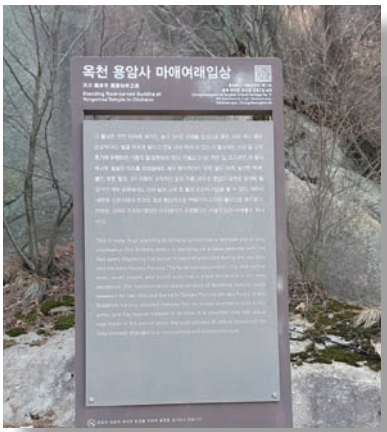
불교문화재 | 불상

옥천 용암사 마애여래입상

종목번호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7호

지 역 충청북도 옥천군

작성요령 불상의 학술적 가치는 해설 또는 각주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기존 문안

옥천 용암사 마애여래입상

沃川 龍岩寺 磨崖如來立像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7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2길 400~~

주소는 쓰지 않음

마애불 입상에 대한 설명 부족

이 불상은 천연 바위에 새겨진, 높이 3m의 마애불 입상으로 붉은 바위 색이 매우 인상적이다. 발을 좌우로 벌리고 연꽃 대좌 위에 서 있는 이 불상에는 신라 말 고려 초기에 유행하던 기법이 잘 표현되어 있다. 가늘고 긴 눈, 작은 입, 도드라진 코 등이 묘사된 얼굴은 미소를 띠었음에도 매우 형식적이다. 또한 넓은 어깨, 늘씬한 하체, 붙인 듯한 팔과 U자형의 규칙적인 옷의 주름, 좌우로 힘없이 표현된 옷자락 등 갖가지 세부 표현에서도 신라 말과 고려 초 불상 조성의 기법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련된 신라시대의 조각이 점차 형식적으로 변해가던 시기의 불상으로 생각된다. 이곳은 신라의 마지막 태자인 마의태자가 조성했다는 전설이 있는 마애불의 하나이다.

단순 외형 묘사는 하지 않음

문화재 안내판에는 주관적인 서술을 하지 않음

마의태자와 관련한 전설 소개 필요

단락 구분 필요

개선 문안

옥천 용암사 마애여래입상

沃川 龍岩寺 磨崖如來立像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7호

마애여래입상의 개념 설명

옥천 용암사 뒤편의 대형 암벽에 새겨져 있는 마애여래입상은 통일신라시대 혹은 고려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마애'란 '암벽에 새겼다'는 뜻이고, '여래'는 '진리로부터 진리를 따라서 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처의 덕성을 표현하는 열 가지 이름 중 하나이다.

문화재의 외형적 특성을 은유적으로 서술함

불상 위에 드러난 암반은 비바람으로부터 불상을 보호하기 위해 지붕을 얹어 놓은 듯하다. 불상은 연꽃 대좌 위에 발을 좌우로 벌리고 뒤꿈치가 서로 닿을 듯이 어색하게 서 있으며, 몸 주변의 광배*는 마치 불꽃을 표현한 듯하다. 눈은 감은 듯 가늘고 귀는 늘어져 어깨에 닿아 있으며, V자형의 규칙적인 옷주름이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다. 목에 있는 세 개의 주름은 삼도(三道)인 번뇌, 업, 고통을 상징한다. 광배, 연꽃 대좌, 입술, 옷 등에는 붉은색을 칠했던 흔적이 있는데, 이처럼 색이 남아 있는 마애불은 매우 드물다.

문화재와 얽힌 전설을 소개하여 흥미 유발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금강산으로 가던 중 이곳의 용바위에 올라 서라벌을 향해 통곡했다고 한다. 이후 신라의 후손이 마의태자를 추모하기 위해 이 불상을 조각하였다고 하여 마의태자불이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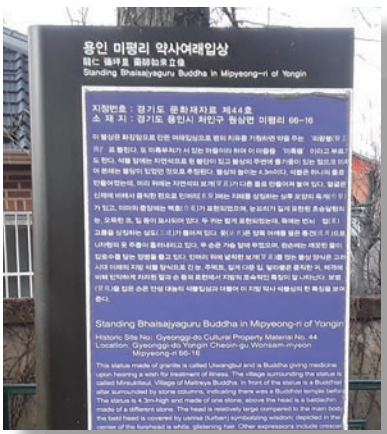
*광배: 부처의 성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몸에서 나오는 빛을 상징화 한 것.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불교문화재 | 불상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종목번호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44호
지 역 경기도 용인시



기존 문안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龍仁 彌坪里 藥師如來立像

지정번호 : 문화재자료 제44호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66-16~~
주소는 쓰지 않음

문화재 명칭에 대한 설명 부족

이 불상은 화강암으로 만든 여래입상으로 병의 치유를 기원하면 약을 주는 '의왕불(醫王佛)'로 불린다. 또 미륵부처가 서 있는 마을이라 하여 이 마을을 '미륵들'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석불 앞에는 자연석으로 된 불단이 있고 불상의 주변에 돌기둥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본래는 불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의 높이는 4.3m이다. 석불은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는데, 머리 위에는 자연석의 보개(寶蓋)가 다른 돌로 만들어져 놓여 있다. 얼굴은 신체에 비해서 큼직한 편으로 민머리(素髮)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상투 모양의 육계(肉髻)가 있고, 이마의 중앙에는 백호(白毫)가 표현되었으며, 눈꼬리가 길게 표현된 초승달형의 눈, 오뚝한 코, 입 등이 묘사되어 있다. 두 귀는 짧게 표현되었는데, 목에는 번뇌, 업(業), 고통을 상징하는 삼도(三道)가 돌려져 있다. 옷(法衣)은 양쪽 어깨를 덮은 통견(通見)으로 U자형의 옷 주름이 흘러내리고 있다. 두 손은 가슴 앞에 두었으며, 왼손에는 깨끗한 물이 감로수를 담는 정병을 들고 있다. 민머리 위에 넓적한 보개(寶蓋)를 얹는 불상 양식은 고려시대 이래의 지방 석불 양식으로 긴눈, 주먹코, 길게 다문 입, 달라붙은 큼직한 귀, 체격에 비해 빈약하게 처리된 팔과 손 등의 표현에서 지방의 토속적인 특징이 잘 나타난다. 보병(寶甁)을 잡은 손은 안성 대농리 석불입상과 더불어 이 지방 약사 석불상의 한 특징을 보여준다.

단순 외형 묘사는 하지 않음

단락 구분 필요

어려운 단어

개선 문안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龍仁 彌坪里 藥師如來立像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44호

약사여래의 개념과 건립 시기를 밝힘

약사여래불은 모든 중생의 질병을 고쳐 주고 재앙을 막아 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어 사람들로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약사여래불이 서 있는 모습으로 만든 불상이 약사여래입상이다. 미평리 약사여래입상은 고려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괄호를 통해 전문용어 부연설명

화강암으로 만든 이 불상은 높이가 4.3m로 용인 지역 불상 중 가장 크다. 신체에 비해 얼굴이 큼직한 편이고 머리에는 다듬지 않은 둥글고 넓적한 돌을 올렸다. 양손은 가슴에 놓았으며 왼손에는 작은 병을 들고 있다. 불상 앞에는 넓은 자연석을 두어 불단(佛壇: 부처를 모셔 놓은 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불상 주변에 돌기둥이 있는 점으로 보아, 과거에는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 근거 제시

이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은 관음보살의 지물(持物: 부처나 보살, 천왕 등이 그들의 권능이나 자비를 상징하면서 손에 지니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로 알려진 병을 부처가 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병(淨甁: 목이 긴 형태의 물병을 이르는 말)은 관음보살이 지니고 있는 지물로 알려져 있지만 불상이 정병을 지니고 있는 예도 간혹 확인된다. 이러한 모습은 이 불상을 약사여래로 부르는 중요한 근거이다.

관람객의 시선을 고려하여 입상의 외형적 특징과 그 의미를 드러냄

미평리 약사여래입상은 얼굴이 유난히 큰 신체 비례를 보이는데, 인근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얼굴 표현이나 옷 주름 처리 등에서 이보다는 토속성이 강하게 느껴져 지방화된 양식을 보여 준다.

불교문화재 | 불상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종목번호 보물 제1790호

지 역 경기도 양평군

기존 문안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 좌상

楊平 龍門寺 金銅觀音菩薩坐像

문화재 지정종목 누락

추상적인 설명

관음전에 모셔진 이 금동 관음보살 좌상은 전형적인 고려 후기의 조각 양식을 계승한, 15세기 초의 우수한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당당하면서도 화려한 귀족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 관음보살은 자비로써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로, 손에 보병이나 연꽃을 들며 머리에는 아미타불이 새겨진 보관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높이가 73cm인 이 보살상은 자비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추상적인 설명

단순 외형 묘사는 하지 않음

높게 묶은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있으며 계율을 지키고 열심히 수행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극락 세계를 의미하는 중품중생인(中品中生印)의 손 모양을 하고 있고 참선할 때의 자세인 길상좌로 앉아 있다. 왼쪽 가슴께에는 아래 내의를 고정시킨 삼각형 고리가, 배 위쪽에는 치마를 묶은 매듭이 있다. 이처럼 신체에 자연스럽게 걸쳐진 옷은 발목 부분에서 부드럽게 주름 지며 양 무릎을 덮었고 그 위에는 영락이 장식되었다. 이 보살 좌상은 전형적인 고려 후기의 보살상의 양식적 특징인 높게 묶은 머리, 가슴 및 무릎의 구슬을 꿰어 만든 영락 장식, 왼쪽 가슴의 삼각형 고리를 갖추고 있어 장육사 건칠보좌상(1395년, 보물 제933호)이나 파계사 목조 관음보살 좌상(1447년 이전, 보물 제992호) 등과 더불어 고려 말과 조선 초기의 조각 양식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관람객이 이해하기 힘든 문화재의 학술적 가치 기술

개선 문안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楊平 龍門寺 金銅觀音菩薩坐像

보물 제1790호

문화재 지정종목 정확하게 표기

문화재의 제작 시기와 개념을 쉬운 단어로 소개

양평 용문사 금동 관음보살 좌상은 14세기 제작된, 앉아 있는 관음보살상이다. 관음보살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베풀며 고통을 없애 주는 보살로, 머리에 화려하게 장식된 관(보관)을 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용어를 풀어서 설명

용문사 금동 관음보살 좌상은 볼에 살이 있는 네모난 얼굴,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가슴과 양 무릎 위에 표현한 구슬 장식(영락) 등 고려 후기에 크게 유행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금동 보살상의 전형적인 요소를 보여 준다. 특히 왼쪽 가슴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긴 삼각형 모양의 내의 장식은 이 보살상의 특징으로 꼽힌다.

문화재 감상 포인트 제공

용문사 금동 관음보살 좌상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신체와 정교한 세부 표현이 돋보여 고려 후기 불교 조각의 연구 자료로 가치가 높다.

불교문화재 | 불화

실상사 칠성도

종목번호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4호
지 역	부산광역시 동구
작성요령	전문용어를 사용하면 해설 또는 각주를 사용합니다.

기존 문안

문화재 명칭표기 오류

칠성도
七星圖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4호

단락 구분 필요

칠성도는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주재하는 북두칠성의 신인 칠성(七星)을 불교의 호법선신으로 수용하고 이를 의인화하여 묘사한 그림이다. 사람들은 칠성신에게 재난이 없어지기를, 아들을 얻기를,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빌었다. 실상사 칠성도는 정방형에 가까운 중소형 불화로 화면 중앙에는 두광과 신광을 갖춘 치성광여래가 있고 그 앞쪽 좌우에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있으며, 치성광여래삼존 주위에는 관복을 입은 8위의 천자가 상하 2열로 그려져 있다. 화면 위쪽에는 하늘을 배경으로 여래형의 칠성을 좌우에 총 7위를 배치하였다. 도상들의 표현 기법이나 광배의 물결무늬는 조선 후기 불화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도상 구성과 배열도 19세기 불화의 일반적 형식을 계승하고 있다. 또한 적색과 황색을 활용하여 나타낸 구름 표현은 19세기 말 이후 유행한 양식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착의에 표현된 황색 문양과 적색 대좌에 적힌 범어 문자는 완호 스님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리고 구름무늬를 표현한 기법과 채색(등)에서 19세기 이후 20세기 전반까지 조성된 불화의 화풍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불화는 20세기 전반의 칠성도에 대한 도상 연구는 물론이고, 금어와 완호의 화풍을 파악하는 데 자료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 평가된다.

관람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도상 설명

관람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재 가치 설명

화승에 대한 설명 필요

어려운 단어

개선 문안

실상사 칠성도

實相寺 七星圖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4호

문화재 명칭 정확하게 표기

칠성도의 개념과 한국불교에서 가지는 의미 서술

칠성도는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칠성(七星)을 그린 그림이다. 칠성은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으로 민간에서 오랫동안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다. 칠성이 불교에 수용되어 신이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며 한국의 불교가 토착신앙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북극성을 부처로 표현한 칠성도의 감상법 안내

그림 중앙에는 북극성(北極星)을 부처로 표현한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와 그 좌우에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7명의 부처를 배치하였다. 치성광여래의 앞쪽 좌우에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그 좌우에는 관복을 입은 8명의 천자(天子)를 두었다. 옷에 표현된 황색 무늬와 치성광여래 아래쪽의 네모난 대좌(臺座: 불상을 올려놓는 대. 상현좌, 생령좌, 연화좌 따위가 있다.)에 적힌 범자(梵字) 무늬는 완호 스님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불화를 그린 인물을 기록에 근거하여 소개

칠성도의 아래쪽에는 실상사 신중도와 마찬가지로 화가 완호(玩虎, 1869~1933) 스님과 제자인 월주(月洲, 1913~1992) 스님이 1929년에 함께 그림을 그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두 스님의 화풍을 짐작할 수 있다.

문화재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

전체적인 구성과 인물 배치, 적색과 황색을 활용한 구름 표현 등은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제작된 칠성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 평가된다.

불교문화재 | 불화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종목번호 보물 제1792호

지 역 경기도 남양주시

문화재 명칭 및 지정번호 오류

기존 문안

남양주 봉선사 괘불

(南楊州 奉先寺 掛佛)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5호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

주소는 쓰지 않음

숙종의 후궁인 영빈 김씨(寧嬪 金氏, 1669~1735)의 명복을 빌기 위해 상궁 이성애(李性愛)가 시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화이다. 괘불은 법회나 각종 의식 등을 야외에서 행할 때 높이 거는 커다란 불화이다. 이 괘불은 현재에도 사용하는데 보관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이 그림의 제작자인 학총(學聰)은 봉선사 괘불을 그린 30대 전후에 이미 수석 화승이 될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다. 1700년 전후에 태어나 주로 경기도 일대에서 30~40년 동안 활동했던 18세기 전반 경기파의 대표적 화승으로 추정된다. 이 불화는 그림의 내력을 써놓은 화기(畵記)에서 알 수 있듯이, 궁중에서 도움을 주었다는 점과 18세기 중엽 경기화파의 화승 계보를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괘불도를 그린 인물에 치중하여 문화재의 특징과 가치 설명 누락

개선 문안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南楊州 奉先寺 毘盧遮那 三身 掛佛圖

보물 제1792호

문화재 명칭 및 지정종목 정확하게 표기

괘불은 절이나 큰 법회에서 불교 의식을 행할 때 그림으로 그려서 법당 앞뜰에 걸어 놓은 부처의 모습을 말한다.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 괘불도는 조선 영조 11년(1759) 상궁 이성애가 숙종의 후궁인 영빈 김씨(寧嬪 金氏, 1669~1735)의 명복을 빌며 제작한 불화이다. 이 불화는 가로 95cm, 세로 144cm의 종이를 각각 가로 폭 5매, 세로 폭 6매씩 총 30매를 이어 붙여 제작하였다.

불보살의 자리 배치 및 명칭을 밝힘

비로자나 삼신 괘불도는 크게 상하 2단 구도로 나누어져 있다. 그림 위쪽 가운데에는 법신(法身) 비로자나불이, 오른쪽에는 보신(報身) 노사나불이, 왼쪽에는 화신(化身) 석가모니불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 아래에는 6보살과 제석, 범천, 10대 제자, 천인, 설법을 경청하는 대중들을 '브이(V)'자 모양으로 배치하였으며, 그림 아래 가운데에는 각종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천인과 설법을 경청하는 인물을 구름으로 구획하여 배치하였다.

문화재 지정 사유를 밝혀 가치를 드러냄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 괘불도는 밝고 화사한 색과 굵고 힘찬 묵선이 조화를 이루어 인물들의 생동감 있는 움직임과 자연스러운 옷자락 주름을 수준 높게 표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삼신불과 권속들이 함께 그려져 있지만 언뜻 보면 삼신불 중심의 구도로 보일 만큼 삼신불이 화면 윗부분에 큼직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도는 18세기 중후반경에 제작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삼신불 괘불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불교문화재 | 고건축

익산 숭림사 보광전

종목번호 보물 제825호

지 역 전라북도 익산시

작성요령 전문용어는 해설 또는 각주를 사용하고, 건축 기법 또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기존 문안

익산 숭림사 보광전

益山 崇林寺 普光殿

보물 제825호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주소는 쓰지 않음

숭림사는 고려 충목왕 원년(1345) 선종(禪宗) 사찰로 창건되었다고 전할 뿐 그 뒤의 변천은 확실하지 않다. 보광전 중수기(重修記)에 따르면 조선 순조 19년(1819)에 중수되었다고 하며 다포계양식(多包系樣式)으로 건립된 맞배집이다.

건물 안에는 목조석가여래좌상(木造釋迦如來坐像)을 안치하였는데 복장기문(服藏記文)에 따르면 조선 광해군 5년(1613)에 조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불상 위에는 용과 구름이 조각된 섬세한 닫집 [보개(寶蓋)]이 설치되어 있다.

숭림사는 중국 허난성(河南省) 쑹산(崇山) 샤오린스(少林寺)에서 따마대사(達磨大師)가 9년만에 득도하여 최초의 선종사찰(禪宗寺刹)이 되었으므로 숭산의 '숭(崇)'자와 소림사의 '림(林)'자를 따서 지은 것이라 한다.

숭림사의 유래 설명은 도입에 두는 것이 적절함

어려운 단어

개선 문안

익산 숭림사 보광전

益山 崇林寺 普光殿

보물 제825호

숭림사라는 이름의 유래 설명

보광전의 주불 및 변천 과정을 사료를 근거로 밝힘

숭림사는 고려 충목왕 원년(1345)에 창건되었다고 전한다. 절 이름은 달마대사가 수행했던 숭산(崇山) 소림사(小林寺)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은 것이라 한다. 보광전*은 숭림사의 주 법당으로서 목조석가여래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과 아미타불을 함께 모시고 있다. 2001년 보광전을 해체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1554년 화재가 나 이듬해 법당을 다시 지었다는 기록을 발견하였다. 1822년에 작성된 <숭림사 법당중수기>에서는 임진왜란 때 큰 피해를 입어 다시 짓고, 순조 19년(1819)에 중창하였다고 한다.

문화재 관람 포인트 안내

이 건물은 공포**의 모습이 독특하고 화려하다. 건물 내부에도 용, 극락조, 닫집*** 등을 섬세하게 조각하여 부처가 계시는 극락세계를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작은 규모의 불전이지만 뛰어난 건축 기법과 조선 후기 사찰 불전의 장식적인 경향을 보여 주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보광전(普光殿): 화엄경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본래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건물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석가모니불이나 아미타불을 모시기도 함.

** 공포: 처마 끝의 무게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머리에 짜 맞추어 댄 나무쪽.

*** 닫집: 궁전 안의 옥좌 위나 법당의 불좌 위에 만들어 다는 집 모형.

각주를 사용하여 보광전이란 명칭의 유래를 설명하고, 전문용어를 풀이함

불교문화재 | 고건축

화계사 대웅전

종목번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5호
지 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존 문안

화계사 대웅전 (華溪寺 大雄殿)

지정번호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5호 / 시대 :1870년(고종 7)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7번지 화계사~~

주소는 쓰지 않음

이 건물은 1870년(고종 7)에 지은 것으로, 화계사의 주불전이다. 화계사는 1522년(중종 17) 근처 부허동에 있던 보덕암을 옮겨 지은 절인데. 1618년(광해군 10)에 소실되었으나, 다음해에 중수(重修)되었다고 한다. 1866년(고종 3)부터 고종의 생부인 흥선대원군을 비롯한 황실의 시주(施主)를 받기도 하였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기둥 위는 다포로 공포를 짠 단층 팔작집인데. 이는 19세기 말 목조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판벽을 치고 부처의 일생을 묘사한 팔상도(八相圖)를 그린 점도 돋보인다. 안에는 근래에 모신 석가모니와 문수 보현보살 삼존상을 모셨지만 원래는 아미타 삼존을 모셨었다. 조선 후기 서울 근교 사찰, 특히 왕실 원찰에서는 대방을 갖추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염불당과 주지실, 부엌과 누마루를 결합한 건물인데, 화계사 대웅전 앞쪽에도 대방(大房)이 있다. 화계사의 현판과 주련의 글씨에는 흥선대원군과 같은 당대 명필들의 솜씨가 잘 발휘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시기를 설명해야 함

단락 구분 필요

문화재의 가치를 산만하게 나열함

어려운 단어

개선 문안

화계사 대웅전

華溪寺 大雄殿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5호

대웅전의 개념을 밝힘

대웅전은 석가모니불을 모시는 곳으로, 절의 중심이 되는 건물이다.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영웅을 모시는 전각'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사료에 근거한 문화재의 연혁 추가

화계사 대웅전은 고종 7년(1870)에 흥선대원군(1820~1898)의 지원을 받아 중수*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석수 30명, 목공 100명이 수개월 만에 완공했다고 전해지며, 왕실의 지원을 받아 지어져 '궁절'이라고도 불렀다.

문화재의 건축적 가치 설명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관청 건물에만 사용하던 용두(龍頭)와 드무**가 배치되어 왕실 원당의 품격을 보여준다. 외벽에는 석가모니의 일생을 여덟 장면으로 그린 팔상도가 그려져 있으며, 문 앞에 걸려 있는 대웅전 현판은 김정희의 제자인 위당 신헌(1810-1884)이 쓴 글씨이다.

문화재 관람 포인트 안내

불단 위에 모셔진 삼존불상은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양 옆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로 이루어져 있으며, 1983년에 새롭게 조성한 것이다. 불상 뒤에는 아미타후불도가 걸려 있다.

---

* 중수 : 낡은 건축물 따위를 다시 손질하여 고침

** 드무 : 화재를 막기 위해 물을 담아 놓는 솥 모양의 용기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불교문화재 | 사지

청주 흥덕사지

종목번호	사적 제315호
지 역	충청북도 청주시
작성요령	사지의 연혁과 가치를 소개하고, 현재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기존 문안

청주 흥덕사지

사적 제315호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로113~~

주소는 쓰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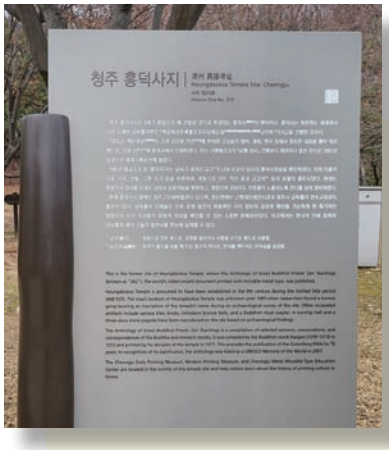
흥덕사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음

흥덕사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간행한 곳이다. 이 책은 고려 우왕 3년(1377)에 백운화상(1298~1374)이 「불조직지심체요절」을 간추려 엮은 것을 그의 제자들이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이다. 이 책은 독일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보다도 78년이나 앞서 인쇄된 것으로, 2001년 9월 4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흥덕사터는 1985년 발굴조사 결과 금당터와 강당터, 그리고 탑터와 이들을 둘러싼 회랑터의 일부가 발견되었다. 이와 함께 각종 기와와 전돌, 그릇 조각을 비롯하여, 청동으로 만든 금구(禁口), 작은 종, 금강저(金剛杵) 등이 출토되었다. 현재의 모습은 발굴 결과에 의하여 금당과 삼층석탑을 복원한 것이다. 흥덕사터에 청주고인쇄박물관이 건립되어, 인쇄와 관련된 문화의 변천과 발전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흥덕사라는 이름을 밝힌 금구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음

흥덕사와 직지에 대한 설명이 한 문단으로 구성되어 읽기가 어려움

어려운 단어



개선 문안

청주 흥덕사지

清州 興德寺址

사적 제315호

흥덕사지의 개념과 건립 시기를 밝힘

청주 흥덕사지는 9세기 통일신라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흥덕사(興德寺)의 옛터이다. 흥덕사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하 『직지』)을 간행한 곳이다.

흥덕사지와 『직지』의 관계 설명, 『직지』의 내용과 가치 소개

『직지』는 백운화상(白雲和尙)이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부처와 고승들의 법어, 대화, 편지 등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엮은 책으로, 우왕 3년(1377)에 흥덕사에서 인쇄하였다. 이는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간행보다 78년이나 앞선 것으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발굴과정에서 흥덕사라는 이름이 밝혀진 경위 설명

1985년 발굴조사 중 이곳에서 '흥덕사'라는 글씨가 새겨진 금구*가 나와 이곳이 당시의 흥덕사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종 기와와 전돌, 그릇 조각을 비롯하여, 청동으로 만든 작은 종과 금강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흥덕사지의 복원현황과 현재의 모습 안내

현재는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당과 삼층석탑을 복원하고, 회랑지와 강당지도 주춧돌이 노출되도록 잔디를 심어 정비하였다.

문화재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관련 기관 정보 제공

현재 흥덕사지 옆에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있으며, 맞은편에는 근현대인쇄전시관과 청주시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이 들어서 있다. 금속활자 인쇄술은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지식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가능하게 한 획기적인 발명이자 우리 조상들의 문화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인쇄 문화와 금속활자 제작 기술의 발전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

*금구(禁口): 청동으로 만든 북으로, 공양을 알리거나 사람을 모으는 용도로 사용함.

**금강저(金剛杵): 승려가 불도를 닦을 때 쓰는 법구의 하나로, 번뇌를 깨뜨리는 보리심을 상징함.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불교문화재 | 사지

부여 왕흥사지

종목번호 사적 제427호
지 역 충청남도 부여군

기존 문안

부여 왕흥사지

지정: 사적 제427호 (2001.2.5. 지정 / ~~면적 200.170㎡)~~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신리 49 외~~

주소, 규모 등은 쓰지 않음

부여 왕흥사지는 삼국시대 백제 사비기의 사찰터입니다. 1934년에 「왕흥」 이란 명문이 새겨진 기와 편과 백제 연화문수막새 등이 발견되어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나오는 백제의 왕흥사로 주목받아 온 유적입니다.

한글 병기 필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2000년부터 추진한 발굴조사 결과 사찰은 남북중심축선 상에 탑-금당-강당이 위치하고 그 양옆으로 회랑 및 승방, 강당 좌우로 부속건물이 배치되어 있어 부여 능산리사지(567년)·군수리사지·정림사지와 유사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 형식의 가람배치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사역 남편 중앙 진입시설, 동·서편 대지의 존재와 함께 동쪽 기와가마터가 확인되어 사비기 사찰 운영체계 연구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축적되었습니다.

사찰의 창건 시기 등은 문안의 도입부에 소개하는 것이 좋음

또한 2007년 목탑지에서 (577년/위덕왕 24) 명문이 새겨진 부여 왕흥사지 사리기 일괄(보물 제1767호)이 출토되어 그동안 왕흥사가 600년에 창건되었다는 내용보다 23년이나 앞서 축조된 역사적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출토된 10,000여 점에 달하는 사리공양품은 지금까지 발견된 사례 가운데 최고最古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丁酉年(577) 2월 15일 백제왕 창(昌/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탑(또는 사찰)을 세우고 본래 사리 2매를 봉안하였는데 신묘한 조화로 셋이 되었다."

명문의 내용 설명이 부자연스러움

-왕흥사지 출토 청동제사리함 명문

기존 문안은 발굴 성과의 비중이 큼

부여 왕흥사지 | 扶餘 王興寺址
Wanghoungsa Temple Site, Buyeo

개선 문안

부여 왕흥사지

扶餘 王興寺址

사적 제427호

왕흥사라는 이름이 밝혀진 경위와 건립 시기 소개

왕흥사지는 백제 위덕왕이 577년에 세운 왕실 사찰 터이다. 1934년 '왕흥(王興)'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 조각이 발견되면서 이곳이 왕흥사임을 알게 되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사찰 창건 기록과 함께 왕이 강을 건너 사찰에 행차한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백제시대 중요한 왕실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명문의 내용을 문안을 통해 자연스럽게 설명

왕흥사 창건과 관련해서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라 무왕 1년(600)부터 무왕 35년(634)에 걸쳐 지은 것으로 전해져 왔으나, 2007년 왕흥사지 목탑지에서 발견된 사리함(舍利函)에 '정유년(577년) 2월 15일 백제왕 창이 죽은 왕자를 위하여 절을 세웠다.'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현재는 위덕왕 24년(577)에 창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왕흥사지 내에서 사찰 건물 외에 백제시대 가마터가 발견되어 주목을 받았는데,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기와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왕흥사지에서 출토된 중요 유물과 그 가치를 밝힘

이 외에 왕흥사지 사리기 일괄(보물 제1767호)* 유물과 함께 2013년에 발견된 치미**가 중요 자료로 여겨지고 있는데, 왕흥사지 창건 당시 제작되어 현재까지 국내에 알려진 고대 치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리를 불탑에 안치할 때 사용하는 용기나 공양물 등.

**지붕 용마루의 양 끝에 높게 부착하는 장식 기와.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불교문화재 | 비석

예천 용문사 중수용문사기비

종목번호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60호

지 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요령 비석의 건립 시기, 비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용어는 해설 또는 각주를 사용합니다.

기존 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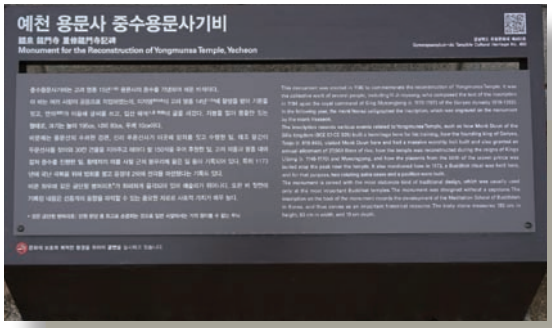
예천 용문사 중수용문사기비

醴泉 龍門寺 重修龍門寺記碑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60호

이 비는 고려 명종 14년(1184)에 이지명(1127 ~ 1191)이 왕의 명을 받들어 제작한 중수용문사기비이다. 비문의 내용은 용문사의 위치 소개 및 사원의 형성계기가 된 두운선사의 창건과 태조왕건의 지원 내용, 주지 조응의 용문사 중수 및 낙성 관련내용, 대선사 조응에 관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명종 18년(1188)에 추가적으로 기록된 음기는 조응의 제자를 사법제자와 집사제자로 구분하여 기록하여. 고려중기 선종계의 동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자료이다.

- 단락 구분 필요
- 비문을 지은 사람, 비석을 만든 사람, 비석의 양식에 대한 설명 누락



개선 문안

예천 용문사 중수용문사기비

醴泉 龍門寺 重修龍門寺記碑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60호

중수용문사기비는 고려 명종 15년(1185) 용문사의 중수를 기념하여 세운 비석이다.

비문을 쓴 사람, 비석을 새긴 사람, 비석의 규모와 형태를 설명

이 비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하였는데, 이지명(李知命)이 고려 명종 14년(1184)에 왕명을 받아 기문을 짓고, 연의(淵懿)가 이듬해 글씨를 쓰고, 입선 해석(入選 解錫)이 글을 새겼다. 지붕돌 없이 몸돌만 있는 형태로, 크기는 높이 195㎝, 너비 93㎝, 두께 10㎝이다.

비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

비문에는 용문산의 수려한 경관, 신라 두운선사가 이곳에 암자를 짓고 수행한 일, 태조 왕건이 두운선사를 찾아와 30칸 건물을 지어주고 해마다 쌀 150석을 주어 후원한 일, 고려 의종과 명종 대에 걸쳐 중수를 진행한 일, 황태자의 태를 사찰 근처 봉우리에 묻은 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1173년에 국난 극복을 위해 법회를 열고 윤장대 2좌와 전각을 마련했다는 기록도 있다.

비석의 예술적, 사료적 가치를 밝힘

비문 좌우에 갖은 금단청 병머리초*가 화려하게 음각되어 있어 예술미가 뛰어나다. 또한 비 뒷면에 기록된 내용은 선종계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 갖은 금단청 병머리초 : 단청 문양 중 최고로 손꼽히는 것으로 일반 사찰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무늬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불교문화재 | 종

사인비구 제작 동종 -서울 화계사 동종

종목번호 보물 제11-5호

지 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성요령 종의 용도를 설명해야 하며, 불교 용어나 학술적 가치는 해설 또는 각주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기존 문안

사인비구제작 동종 -서울 화계사 동종

단락 구분 필요

지정번호:보물제11-5호/시대:조선시대1683년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7번지 화계사 내 종루~~

주소는 쓰지 않음

단순 외형 묘사는 하지 않음

청록빛이 감도는 이 종은 원래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승려장인 사인비구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희방사의 종으로 제작한 것이다. 한국 종의 특징인 음통이 없고 쌍룡으로 된 종뉴 아래에 구연부가 약간 오므라든 종신이 연결된 형태이다. 종신의 위쪽에는 2단 원문범자로 된 상대아래에 4개의 유곽과 4개의 위패가 교대로 배치되었고, 종복에는 주성관련 내용을 알려주는 명문이 있으며, 아래쪽에는 하대가 구연부에 붙어있다. 종뉴는 사실적인 두 마리의 용이 격동적으로 엉키어 있는데. 얼굴 모습과 자세가 당당한 느낌을 준다. 상대는 조선후기의 다른 전통적인 종들처럼 [육자대명왕진언]과 [파지옥진언]을 이중원안에 도안화시킨 것이다. 유곽은 사다리꼴로 사인비구만의 특징인 초엽문을 장식한 유곽대와 정삼각형 육엽화문의 종유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강직한 선으로 고부조되었다. 하대는 가는 줄기에 넓고 기다란 잎사귀가 휘감긴 넝쿨 사이에 활짝 핀 연화와 바람개비 모양의 화문이 구성된 것인데, 매우 가는 선으로 섬세하게 표현되어 생동감이 넘친다. 이 종은 종신 표면의 각 공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룸으로써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특히 유곽대와 하대문양은 이종을 화사하고 단아한 분위기로 이끌어준다. 이와 유사한 종으로는 사인비구가 제작한 홍천 수타사종(1670)과 안성 청룡사종(1674), 통도사 종루종(1686)이 있다. 이 화계사 종은은 조선후기 범종양식 및 주종장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명문 내용에 대한 설명 필요

주관적인 서술은 하지 않음

전문 용어의 남발로 문화재를 이해하기 어려움

사인비구에 대한 언급이 분산됨

어려운 단어

개선 문안

사인비구제작 동종 -서울 화계사 동종

思印比丘 製作 銅鍾-서울 華溪寺 銅鍾

보물 제11-5호

종의 종교적 의미와 용도를 알려줌

서울 화계사 동종은 조선 시대의 승려 사인(思印)이 보조 장인 5명과 함께 숙종 9년(1683)에 만든 범종이다. 원래 영주 희방사에 있었는데 고종 35년(1898)에 화계사로 옮겨졌다. 범종은 절에서 시각을 알리거나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한다. 장엄하게 울리는 소리는 종교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하며, 종소리를 듣는 사람은 자신의 악업(惡業)을 깊이 뉘우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도록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듯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친다는 뜻도 담겨 있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문화재 명칭 설명

종에 새겨진 문장(명문) 내용 소개

종의 꼭대기에는 두 마리 용의 머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종을 매는 고리인 용뉴(龍鈕) 역할을 한다. 보통 범종의 용뉴는 한 마리 용으로 된 장식과 음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 종은 음통이 없고 쌍룡으로만 장식된 것이 특징이다. 몸통의 윗부분은 범자문으로 장식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보상화문과 당초문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또한 몸통에는 왕실의 안녕과 불법(佛法)이 전파되길 기원하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승려가 공명첩을 얻었다는 사실 또한 기록되어 있다.

문화재적 가치 설명

서울 화계사 동종은 구성이 안정적이고, 표현이 사실적이며 화사하여 조선 시대 범종의 수작으로 꼽힌다. 또한 당시의 사회상도 알 수 있어 역사적 자료로서도 가치가 높다.

2020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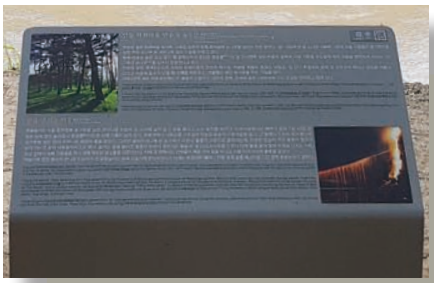
자연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식물류 / 화석지질 / 명승류 /
무형문화재 / 동물류

부여 수신리반송 충청남도 기념물 제158호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종목번호	천연기념물 제473호
지 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요령	식물의 식생, 분포지 및 관련설화, 현재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신규 문안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安東 河回마을 萬松亭 숲

천연기념물 제473호

식생 규모 설명

만송정 숲은 하회마을 북서쪽, 낙동강 강변의 모래 퇴적층에 소나무를 심어서 만든 곳이다. 90~150여 년 된 소나무 100여 그루와 마을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심은 어린 소나무 등 300그루 정도가 숲을 이루고 있다.

숲이 만들어진 배경을 흥미롭게 소개

원래 만송정 숲은 조선 중기 때 유학자이자 문신인 류운룡(柳雲龍)이 강 건너편에 있는 부용대 절벽의 거센 기운을 부드럽게 하여 마을을 평안하게 하려고 1만 그루의 소나무(萬松)를 심어서 만들었다고 한다.

숲의 경관을 유기적으로 소개하여 관람 정보 제공

만송정 숲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과 강변의 백사장, 마을을 휘돌아 흐르는 낙동강, 강 건너 부용대와 함께 잘 어우러져 뛰어난 경관을 이룬다. 그리고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수해를 막아주고, 겨울에는 세찬 북서풍을 막는 기능을 한다.

1983년에 세운 만송정비에는 이 솔숲이 만들어진 내력과 함께, 현재의 숲은 1906년에 다시 조성된 것이라고 되어 있다.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종목번호 천연기념물 제184호
지 역 전라북도 고창군

기존 문안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高敞 禪雲寺 冬柏林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68~~
천연기념물 제184호

주소는 쓰지 않음

동백나무는 차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 중국 등의 따뜻한 지방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남쪽 해안이나 섬에서 주로 자란다.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춘백(春栢), 추백(秋栢), 동백(冬柏)으로 부르는데 선운사 동백은 춘백(春栢)으로 알려져 있다.

문장의 주어 불분명

선운사 동백나무 숲의 조성시기가 불분명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드러나지 않음

선운사 동백은 언제부터 심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산불로부터 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사찰보호림으로 조성하였다고 하며, 약2,0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개선 문안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高敞 禪雲寺 冬柏나무 숲

천연기념물 제184호

숲의 조성시기를 정확하게 밝힘

숲의 규모 설명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은 조선 성종 때인 15C에 행호 선사가 산불에서 사찰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하였다고 한다. 3,0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대웅전 뒤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데, 군락의 규모는 16,500㎡이다.

동백나무의 특징 설명

동백나무는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춘백(春柏), 추백(秋栢), 동백(冬柏)으로 부르는데, 이곳 동백은 3월 말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4월 중순에 절정을 이룬다.

동백나무의 분포지, 선운사 동백나무 서식지의 생태학적 의의 소개

동백나무는 차나뭇과에 속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중국 등 따뜻한 지방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남쪽 해안이나 섬에서 잘 자란다. 이곳 선운사 동백나무 숲은 동백나무 서식지의 북방 한계선을 알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문화재 지정 이유를 밝혀 가치를 드러냄

이 동백나무 숲은 아름다운 사찰 경관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사찰림이라는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찰을 보호하는 방화림 역할도 하고 있어 생물학적 보존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다.

자연문화재 | 식물류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

종목번호 천연기념물 제476호

지 역 경상북도 영양군

기존 문안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

英陽 做士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

천연기념물 제476호(2007. 3. 21지정)

~~소재지: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주남리 산72번지 외~~

주소는 쓰지 않음

이 숲은 주사골의 마을 풍치조성과 방풍 및 수해 방비 등의 목적으로 17세기에 재령 이씨 주곡공(做谷公) 이도(李櫂, 1636-1712)와 주계공(做溪公) 이용(李榕, 1640-1693) 형제가 조성하였다. 이 마을의 이름을 주사골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두 분의 호를 따른 것이다.

주사골의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은 다른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전통적인 마을 숲과 비교하여 윗 숲과 아랫 숲으로 중첩하여 조성한 것과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등을 식재한 것이 이색적이다.

윗 숲은 면적이 10,000㎡ 정도이며 이 숲에는 조성 초기에 심은 거목의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외에 이들 수종의 후계목과 산팽나무, 말채나무, 쉬나무, 참빗살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내용상 안내 문안 마지막에 배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시무나무는 줄기와 가지에 긴 가시가 돋아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을에서는 스무나무(二十樹)로 불렸으며, 봄의 새 잎을 식용하였다고 전해진다.

어려운 단어

개선 문안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

英陽 做士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

천연기념물 제476호(2007년 3월 21일 지정)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은 17세기에 재령 이씨 집안의 주곡공 이도(做谷公 李櫂)와 주계공 이용(做溪公 李榕) 형제가 조성한 숲이다. 수해를 방지하고 바람을 막는 한편 주사골 마을의 경치를 아름답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숲을 만들었다고 한다. 주사골이라는 마을의 이름도 이 두 형제의 호를 딴 것이다.

주사골의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은 다른 지역의 전통적인 마을 숲과 달리 위 숲과 아래 숲으로 나뉘어 조성된 점과 시무나무와 비술나무가 주종을 이룬다는 점이 특색이다. 시무나무는 줄기와 가지에 긴 가시가 돋아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마을에서는 스무나무로 불렸다. 봄에 돋아나는 시무나무의 새잎은 식용으로 쓰였다고 전해진다.

숲의 식생과 현재 상태를 문안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

위 숲은 면적이 10,000㎡ 정도이다. 이 숲에는 조성 초기에 심어서 거목이 된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외에도 이 나무들의 후계목, 산팽나무, 말채나무, 쉬나무, 참빗살나무, 느티나무, 옻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어려운 단어를 쉬운 문장으로 풀어서 서술

자연문화재 | 화석지질

함안 용산리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

종목번호 천연기념물 제222호

지 역 경상남도 함안군

작성요령 지질학적 의의를 설명하고, 전문 용어는 각주나 해설을 사용합니다.

기존 문안

문화재 명칭 표기 오류

함안층의 새발자국 화석

천연기념물 제 222호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주소는 쓰지 않음

이 새발자국 화석이 있는 지층은 지금으로부터 약 8천만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된 함안층이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새발자국들은 대부분 '함안 한국새(Koreanaornis hamanensis Kim)'의 것이며 간혹 진동새의 발자국과 초식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섞여있다. 함안한국새는 발가락에 물갈퀴가 없으므로 멧새일 것이며 발가락의 길이로 보아 몸집은 비둘기 정도일 것으로 추측된다.

학술명 영어 표기 오류

백악기에는 공룡이 크게 번식한 시기였기 때문에 공룡의 발자국 화석은 많이 발견되었으나, 새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함안층의 새발자국 화석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연구, 발표된 것이다.

문화재의 가치 설명 부족

개선 문안

함안 용산리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제222호

문화재 명칭 정확하게 표기

분포 화석의 종류 소개

정확한 학술명 표기

동시기 다른 화석산지와 차이를 밝혀 문화재의 특징을 드러냄

공룡은 중생대 쥐라기로부터 백악기에 걸쳐 번성하였던 길이 5m~25m의 거대한 파충류를 통틀어 말한다. 새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곳에는 '함안 한국새(Koreanaornis hamanensis)'라고 이름 붙여진 새발자국과 진동(鎭東)새발자국 및 초식공룡(용각류)의 발자국 화석이 있다. 함안한국새의 발자국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진동새발자국과 공룡 발자국은 예외적으로 발견되었다. 백악기에는 공룡이 크게 번식한 시기였기 때문에 공룡의 발자국 화석은 많이 발견되었으나, 새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경우는 매우 희귀한 경우이다.

문화재의 다양한 가치를 밝힘

함안층의 새발자국 화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발견이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연구, 발표된 것으로 새발자국 화석의 희귀성은 물론 지질학적, 생물학적 자연사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자연문화재 | 화석지질

태백 월둔동굴

종목번호 강원도 기념물 제58호
지 역 강원도 태백시

기존 문안

태백 월둔동굴

太白 月屯洞窟

강원도 기념물 제58호
~~소재지 : 강원도 태백시 사조동(원동)~~

주소는 쓰지 않음

단락 구분 필요

문화재보다는 퇴적층 설명에 치중

월둔동굴이 소재하는 태백시 사조동 지역은 석회암 지대로, 이 일대는 하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조선누층군 두무골층: 약 4억 9천만년 전]에 퇴적된 석회암이 널리 분포하고 있다. 월둔동굴은 이 석회암내에 발달하고 있는 전형적인 석회동굴이다. 두무골층은 주로 암회색 내지 담회색을 띠는 석회암과 석회질 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무골층은 한반도가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을 때, 얕은 바다에서 퇴적된 퇴적물이 암석으로 변화된 후, 중생대 동안에 융기되어 현 위치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월둔동굴은 총 길이가 약 700m이며, 동굴이 발달하고 있는 두무골층의 층리방향을 따라 형성된 동굴이다. 동굴은 생성형태로 보면 크고 작은 여러개의 공동(空洞)과 광장으로 되어 있는 수직동굴이다. 동굴 내부에는 여러개의 동방이 발달하고 있으며, 동굴 내에는 종유관, 종유석, 석순, 석주, 유석, 동굴산호, 커튼, 휴석, 석화 등의 동굴 생성물이 잘 발달되어 있다. 월둔동굴에서 발견된 동굴생물은 17종이며, 이중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붉은박쥐와 검은토끼박쥐가 보고되었다.

추상적으로 동굴의 구조 기재

전반적으로 전문용어가 많아 관람객이 문화재를 이해하기 어려움

어려운 단어

개선 문안

태백 월둔동굴

太白 月屯洞窟

강원도 기념물 제58호

동굴의 형성 시기와 구조, 별칭 설명

태백 월둔동굴은 700m 길이의 석회 동굴로서 5억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동굴의 입구가 안경 모양과 닮았다고 하여 '안경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로로 긴 원통 모양을 한 수직 동굴이며 크고 작은 7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람포인트 및 생물학적 가치 소개

동굴은 천장에서 내려온 종유석과 바닥에서 자라는 석순이 어우러져 멋진 경관을 이루고 있다. 동굴 가운데에는 높이 8m 이르는 커다란 석순이 있고, 동굴 마지막 공간에는 깊이 4m의 깊은 웅덩이가 있다. 또 붉은 박쥐, 검은 토끼 박쥐 등 17종의 생물이 살고 있어서 연구 및 보존 가치가 크다.

한편 동굴 입구에 놓인 비석은 이 동굴을 탐사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대학생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다.

자연문화재 | 명승류

거제 해금강

종목번호	명승 제2호
지 역	경상남도 거제시
작성요령	명승 주변의 경관과 역사적 일화를 소개합니다.

기존 문안

거제 해금강

巨濟 海金剛

명승 제2호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주소는 쓰지 않음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바다의 금강산이라 하여 해금강(海金剛)이라 불리고 있다.

갈곶마을 동남쪽 500m에 있는 커다란 두 개의 바위섬 일대를 가리킨다.

명승 주변의 경관을 단순 나열

높이 116m의 바위섬은 673㎡의 넓이로 갈도(曷島)라 불린다. 갈도의 동남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십자동굴, 일월봉, 미륵불, 촛대바위, 조도령바위 등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기암괴석의 바위틈에는 천년송, 견우직녀송 같은 희귀한 나무들과 동백나무 숲, 아열대성 식물들이 무성하여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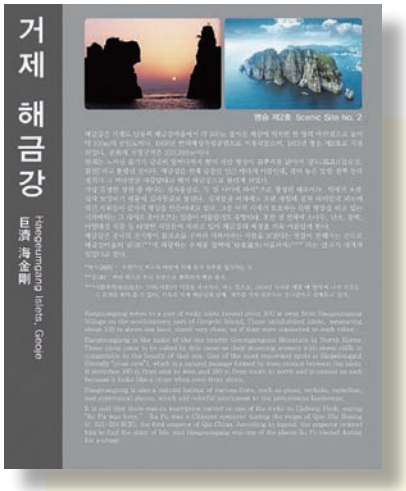
주관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초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바다안개가 섬 허리를 휘감는 날이 많아 연꽃이나 목련이 물위에 떠 있는 것 같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 그 옛날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다는 전설에 걸 맞는 분위기로, 높은 절벽에는 '서불과차(徐不過次)'라고 새긴 글씨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한자 표기 오류

해금강이 남쪽의 산신산(山神山)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반적으로 문안이 산만하여 문화재를 이해하기 어려움



개선 문안

거제 해금강

巨濟 海金剛

명승 제2호

해금강은 거제도 남동쪽 해금강마을에서 약 500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한 쌍의 바위섬으로 높이 약 100m의 무인도이다. 1968년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71년 명승 제2호로 지정되었다. 문화재 지정구역은 223,992㎡이다.

해금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 소개

원래는 노자산 줄기가 갈곶리 앞바다까지 뻗어 내린 형상이 칡뿌리를 닮아서 '갈도(葛島)[갈곶섬, 칡섬]'라고 불렸던 곳이다. 해금강은 원래 금강산 인근 바다의 이름인데, 깎아 놓은 듯한 절벽 등의 경치가 그 바다만큼 아름답다고 해서 해금강으로 불리게 되었다.

문화재 주변의 주요 경관을 설명하여 관람 정보 제공

가장 유명한 경관 중 하나는 십자동굴로, 두 섬 사이에 파식*으로 형성된 해로이다. 위에서 보면 십자 모양이기 때문에 십자동굴로 불린다. 십자동굴 이외에도 오랜 세월에 걸쳐 비바람과 파도에 씻긴 바위들이 갖가지 형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중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 사자바위는 그 사이로 솟아오르는 일출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또한 섬 전체에 소나무, 난초, 동백, 아열대성 식물 등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해금강의 비경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

문화재와 관련한 역사적 일화 소개

한자 오류 수정

해금강은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서복이라는 사람을 보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으로 해금강마을의 곶(串)**에 해당하는 우제봉 절벽에 '徐市過此(서불과차)***'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파식(波蝕) : 오랜기간 파도와 바람에 의해 육지 일부를 침식하는 일

**곶(串) : 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

***서불과차(徐市過此): '서복(서불)이 이곳을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1959년 사라호 태풍 때 떨어져 나가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서복은 거제 해금강과 남해, 제주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전해오고 있다.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하고, 문화재에 얽힌 일화를 소개함

무형문화재

예천통명농요

종목번호	국가무형문화재 제84-2호
지 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요령	무형문화재의 지정배경과 가치, 전승계보에 대해 소개합니다.

개선 문안

예천통명농요

醴泉通明農謠

국가무형문화재 제84-2호

농요의 개념 설명

농요는 농민들이 힘겨운 농사일의 고단함을 해소하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부른 애환(哀歡) 서린 노래이다.

통명농요의 전승계보 소개

예천통명농요는 예천읍 통명리 일대를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노동요*로, 현재 이상휴(李相烋), 안용충(安龍忠) 등 전승자들이 농요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의 특징과 의의 설명

1979년 통명리 농민 45명으로 구성된 농요단이 제2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예천통명농요는 앞소리의 끝과 뒷소리의 앞을 부분적으로 겹치게 부르는 특징이 있다. 앞소리와 끝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두 소리가 한데 어울려서 나오는 이중창과 같은 효과를 낸다.

통명농요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

농요의 내용은 모심기 소리인 <아부레이수나>와 <도움소>, 논매기소리인 <애벌매기>와 <상사디야>, 논매기가 끝날쯤 부르는 <방애소리>, 논을 다 매고 나오면서 부르는 <에이용소리>,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캥마쿵쿵노세>, 마당논매기, 타작소리인 <봉헤야>가 있다.

*노동요: 일을 즐겁고 효과적으로 하며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부르는 노래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무형문화재

영산 줄다리기

종목번호 국가무형문화재 제26호
지 역 경상남도 창녕군

개선 문안

영산 줄다리기

靈山 줄다리기

국가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 줄다리기의 의미 설명

영산줄다리기는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영산지방 마을 주민들이 풍년을 기원하며 벌이는 농촌 공동체의 대동놀이이다.

줄의 제작 과정 안내

이 놀이는 동부와 서부로 편을 나누어 각각 대장, 중장, 소장을 뽑아 지휘를 맡긴다. 줄은 전체 길이가 150~200m쯤 되는데, 짚을 이용하여 10여 일간 만든다.

줄은 동서 방향으로 놓는데, 줄다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진잡이놀이*, 서낭대싸움**, 이싸움놀이***로 분위기를 달군다. 심판은 경계선을 중심으로 줄을 1m 이상 끌어간 쪽을 승자로 판정하는데 총 3회전을 한다.

영산 줄다리기의 현재적 의미 서술

지금은 놀이 규모가 작아졌지만 예전에는 5~6만 명이 참여하는 큰 규모의 잔치였다. 요즘에도 영산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풍년과 태평을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협동심과 단결심, 애향심을 드높이는 잔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 진잡이놀이 : 두 편이 진을 치고 서로 상대편의 진지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놀이

** 서낭대싸움 : 서낭대라는 이름의 높다란 장대를 쓰러뜨리는 놀이

*** 이싸움놀이 : 상대편의 대장을 떨어뜨리기 위해 줄 위에서 서로를 밀어내는 놀이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자연문화재 | 동물류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종목번호	천연기념물 제322호
지 역	전라북도 무주군
작성요령	동물의 분포지와 서식 환경을 소개하고, 생물학적 가치를 설명합니다.

기존 문안

천연기념물 반딧불이 보호구역

문화재 명칭 표기 오류

천연기념물 제322호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가림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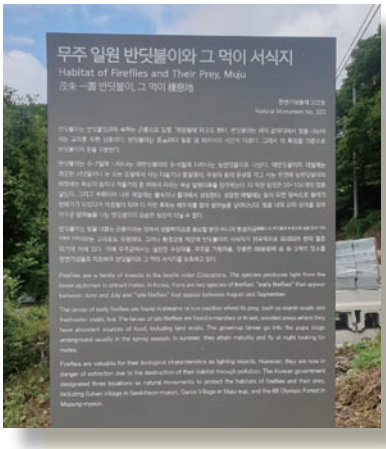
주소는 쓰지 않음

문화재 지정사유와 맞지 않는 불필요한 설명

이 지역은 형설지공(螢雪之功)의 고사(故事)와 청정지역의 환경지표로 공인될 뿐 아니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반딧불이의 서식지이다. 일명 '개똥벌레'라 부르는 반딧불이는 반딧불이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6~7월에 나타나는 애반딧불이와 8~9월에 나타나는 늦반딧불이로 나뉜다.

애반딧불이의 애벌레는 깨끗한 시냇물이나 논 또는 도랑에서 다슬기·물달팽이·우렁 유생 등을 먹고산다. 늦반딧불이의 애벌레는 육상의 습지나 개울가의 풀 위에서 육상 달팽이류 등을 잡아먹는다. 다 자란 암컷은 50~150개의 알을 낳고, 부화되어 나온 애벌레는 물속이나 물가에서 성장한다. 봄이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여름철이 되어 다 자란 후에는 배우자를 찾아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반딧불이의 생식적 특징 설명 누락



개선 문안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茂朱 一圓 반딧불이와 그 먹이 棲息地

천연기념물 제322호

문화재 명칭 정확하게 표기

반딧불이의 분류와 구분법 소개

반딧불이는 반딧불잇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일명 '개똥벌레'라고도 한다. 반딧불이는 배의 끝마디에서 빛을 내는데 이는 교미를 위한 신호이다. 반딧불이는 종(種)마다 빛을 낼 때까지의 시간이 다르다. 그래서 이 특징을 기준으로 반딧불이의 종을 구분한다.

반딧불이의 종류와 생태 환경 설명

반딧불이는 6~7월에 나타나는 애반딧불이와 8~9월에 나타나는 늦반딧불이로 나뉜다. 애반딧불이의 애벌레는 깨끗한 시냇물이나 논 또는 도랑에서 사는 다슬기나 물달팽이, 우렁이 등의 유생을 먹고 사는 반면에 늦반딧불이의 애벌레는 육상의 습지나 개울가의 풀 위에서 자라는 육상 달팽이류를 잡아먹는다. 다 자란 암컷은 50~150개의 알을 낳는다. 그리고 부화되어 나온 애벌레는 물속이나 물가에서 성장한다. 성장한 애벌레는 봄이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여름철이 되어 다 자란 후에는 배우자를 찾아 밤하늘을 날아다닌다. 빛을 내며 교미 상대를 찾아 어두운 밤하늘을 나는 반딧불이의 모습은 장관이 아닐 수 없다.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보호구역 위치 정보 제공

반딧불이는 빛을 내뿜는 곤충이라는 점에서 생물학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형설지공(螢雪之功, 반딧불과 눈빛으로 글을 읽어 가며 이룩한 성공)이라는 고사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환경오염 때문에 반딧불이의 서식지가 전국적으로 파괴되어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무주군에서는 설천면 수한마을, 무주읍 가림마을, 무풍면 88올림픽 숲 등 3개의 장소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를 보호하고 있다.

자연문화재 | 동물류

황새

종목번호 천연기념물 제199호
지 역 충청북도 청주시

신규 문안

황새

천연기념물 제199호,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황새의 분포지와 희귀성 소개

황새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중국의 동북부, 일본과 우리나라에 한정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중국 동부와 우리나라 서·남부의 평야 지역에서 지낸다. 전 세계에 약 3,000마리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제 멸종 위기의 새이다.

외형적 특징과 서식 환경 설명

몸 크기는 평균 112cm이고, 머리와 몸은 흰색이다. 눈 가장자리와 턱 밑의 붉은 피부는 밖으로 드러나 있다. 곧고 굵은 부리와 날개깃은 검은색이며 다리는 붉은색이다. 주로 습지에서 살며 어류, 곤충, 양서류, 파충류 등을 먹는다. 번식기가 되면 5~20m높이의 나뭇가지 위에 큰 접시 모양으로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

천연기념물 지정 사유를 드러냄

황새는 예부터 복을 가져다 주는 길조이자 마을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던 새로, 우리 문화와 연관이 깊고, 우리나라 각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텃새였다. 그러나 6·25 전쟁, 밀렵, 환경오염, 서식지 파괴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1971년에 충북 음성에서 마지막 암수 한 쌍 중 수컷이 죽고, 이후 1994년 마지막 암컷 황새가 죽은 후 텃새로서의 황새는 멸종되었다. 현재는 매년 11월~2월에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10~20마리가 철새로 날아온다.

황새 복원 사업 정보제공

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은 1996년부터 러시아, 일본, 독일에서 황새를 도입하여 개체관리 및 인공 증식 연구 등에 힘쓰고 있다. 2015년 9월에는 예산 황새공원에서 황새의 첫 야생복귀를 성공했다.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30호

2020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근대문화재

근대동산 / 근대시설 / 근대건축

근대문화재 | 근대동산

대한민국 최초 운용 전투기 (F-51D 무스탕)

종목번호	국가등록문화재 제666호
지 역	충청북도 청주시
작성요령	등록문화재 지정 사유를 반영합니다.

기존 문안

문화재 명칭 표기 오류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기 F-51D(Mustang)

등록문화재 제666호
공군군사재 제4호

문장이 산만함

F-51D는 대한민국 공군이 도입한 최초의 전투기이다. 거칠고 다루기 힘들지만 그만큼 강한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야생마' 라는 애칭이 붙었다.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2일 미군으로부터 10대를 인수하여 다음날인 7월 3일 첫 출격을 개시했다. 전쟁기간 중 미군으로부터 총 133대를 인수받아 약 8,500여 회의 전투 출격 임무를 수행했다.

1952년 1월 15일에는 UN공군 전투기들이 수백 회 출격하고도 성공하지 못한, 적 후방 보급로의 요충지인 평양 승호리 철교를 차단하여 우리 공군의 탁월한 능력을 과시했다.

문화재 안내 문안에 어울리지 않는 주관적인 평가

한글 병기 필요

비행기에 새겨진 '信念의 鳥人' 이라는 문구는 6・25전쟁 당시 조종 교관이자 참전 용사였던 딘 헤스(Dean E. Hess)의 좌우명 'By faith, I fly(나는 신념으로 하늘을 난다)'의 우리말이다. 이 문구는 공군의 군가나 기념물속에 활용되어 오늘날까지도 공군 조종사의 상징이 되고 있다.

언어의 표기 가이드라인 미준수

길이 9.8m / 폭 11.3m / 높이 4.2m	최대속도 770km/h
출력 1,695Hp	승무원 1명
중량 3,200kg	상승한도 12,770m
기관총×6 / 로케트×6 / 폭탄 450kg	제작사 NORTH AMERICAN(미국)

전투기의 제원은 앞 부분에 두는 것이 좋음

문화재 명칭 정확하게 표기

개선 문안

대한민국 최초 운용 전투기
F-51D(무스탕)

大韓民國 最初 運用 戰鬪機(F-51D 무스탕)

국가등록문화재 제666호, 공군군사재 제4호

전투기 제원을 별도로 설명하여 문안의 난이도 조절

*길이 9.8m, 폭 11.3m, 높이 4.2m

*출력 1,695Hp

*중량 3,200kg

*기관총X6 로켓X6 폭탄450kg

*최대속도 770km/h

*승무원 1명

*상승한도 12,770m

*제작사 NORTH AMERICAN(미국)

문화재의 가치를 간결하게 설명

F-51D 무스탕 전투기는 대한민국 공군이 도입한 최초의 전투기이다. 이 전투기는 출력이 강력하고 조종하기가 까다로워 야생마라는 애칭이 붙었다.

도입 시기를 밝힘

6·25 전쟁 때 미군으로부터 F-51D 무스탕 10대를 인수하여 출격을 개시한 이후 총 133대를 도입하여 수많은 전투에 출격했다.

공군에서 문화재가 가지는 위상을 밝힘

F-51D 무스탕은 '신념(信念)의 조인(鳥人)'으로 잘 알려져 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공군의 조종 교관이었던 딘 헤스 중령이 자신의 전용 무스탕에 이 문구를 새겼다고 한다. 이는 그의 좌우명인 '신념으로 하늘을 난다(By faith, I fly)'를 번역한 것으로, 오늘날까지 공군 조종사의 상징이 되고 있다.

언어의 표기 가이드라인 준수 (국문, 영문 순)

근대문화재 | 근대시설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

종목번호	국가등록문화재 제21호
지 역	강원도 태백시
작성요령	등록문화재 지정 사유를 반영합니다.

기존 문안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

등록문화재 제21호
1935년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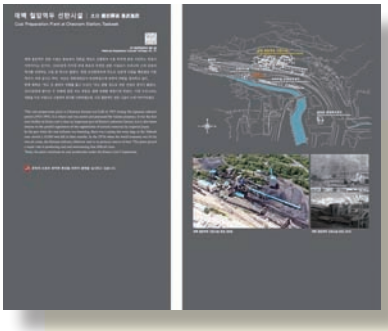
선탄시설을 전문용어로 설명하여 이해가 어려움

이 시설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강재로 된 트러스를 사용하는 등 근대 재료와 공법으로 만든 산업시설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선탄의 주요시설물로는 원탄저장 및 운반, 경석선별 및 파쇄운반, 1,2,3차 무연탄 선탄, 이물질 분리, 각종 기계공급 및 수선창 등 5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며, 20개 주요 시설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연탄이 연료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할 때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무연탄 선탄시설이며, 강원도 근대산업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 산업사의 상징적인 주요 시설로서 평가받고 있다.

불필요한 정보 제공

단락 구분 필요

역사적 배경 설명 부족



개선 문안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

太白 鐵岩驛頭 選炭施設

국가등록문화재 제21호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선탄 시설 설명

선탄시설의 역사적 의미 및 현황 소개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은 땅속에서 석탄을 캐내고 선별하여 사용 목적에 맞게 가공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1935년에 지어진 국내 최초의 무연탄 선탄 시설로서 우리나라 근대 산업의 역사를 상징하는 시설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일본에 자원을 빼앗겼던 아픈 역사가 서려 있기도 하다. 지금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 속하여 석탄을 생산하고 있다.

제3차 경제개발시기 선탄시설의 사회적 의의 부각

한때 태백은 "개도 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라고 말할 정도로 석탄 산업의 경기가 좋았다. 1970년대에 찾아온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은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하였다. 이때 우리나라는 석탄을 주요 자원으로 사용하며 위기를 극복하였는데, 이곳 철암역두 선탄 시설이 크게 이바지하였다.

근대문화재 | 근대시설

거제 포로수용소

종목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
지 역 경상남도 거제시

기존 문안

거제 포로수용소

巨濟 捕虜收容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362~~
주소는 쓰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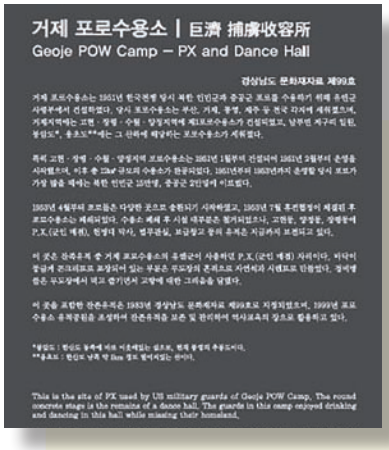
포로수용소의 건립 시기, 수용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한국 전쟁 기간 중에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포로를 수용했던 곳이다. 1950년 11월27일에 고현, 수월, 양정지구의 360만 평에 설치되었던 포로수용소에는, 가장 많을 때는 인민군 15만, 중공군 2만, 의용군과 여자 포로 3천명이 수용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대부분의 포로가 송환되어 폐쇄 되었다. 당시에는 많은 포로의 수용과 관리를 위한 건물들이 지어져, 포로수용의 막사, 포로를 심사하던 법무관실, 제빵 공장 등이 있었다. 수용소 폐쇄후에 시설의 대부분은 철거 되었는데, 후세를 위한 견학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의 건물을 정비하고 있다.

수용소의 부속 건물 설명은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함

추상적인 보존 내력과 가치 설명

단락 구분 필요



개선 문안

거제 포로수용소

巨濟 捕虜收容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

포로수용소의 건립 시기, 수용 지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거제 포로수용소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유엔군 사령부에서 건설하였다. 당시 포로수용소는 부산, 거제, 통영, 제주 등 전국 각지에 세워졌으며, 거제지역에는 고현·장평·수월·양정지역에 제1포로수용소가 건설되었고, 남부면 저구리 일원, 봉암도*, 용초도**에는 그 산하에 해당하는 포로수용소가 세워졌다.

특히 고현·장평·수월·양정지역 포로수용소는 1951년 1월부터 건설되어 1951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후 총 12㎢ 규모의 수용소가 완공되었다.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운영할 당시 포로가 가장 많을 때에는 북한 인민군 15만명, 중공군 2만명에 이르렀다.

1953년 4월부터 포로들은 다양한 곳으로 송환되기 시작하였고,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포로수용소는 폐쇄되었다. 수용소 폐쇄 후 시설 대부분은 철거되었으나, 고현동, 양정동, 장평동에 P.X.(군인 매점), 헌병대 막사, 법무관실, 보급창고 등의 유적은 지금까지 보전되고 있다.

구체적인 잔존 유적 안내

부속 시설에 대한 설명 추가

이 곳은 잔족유적 중 거제 포로수용소의 유엔군이 사용하던 P.X.(군인 매점) 자리이다. 바닥이 둥글게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무도장의 흔적으로 자연석과 시멘트로 만들었다. 경비병들은 무도장에서 먹고 즐기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문화재 지정 사유 및 가치 설명

이곳을 포함한 잔존유적은 1983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조성하여 잔존유적을 보존 및 관리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봉암도 : 한산도 동쪽에 바로 이웃해있는 섬으로, 현재 통영의 추봉도이다.

**용초도 : 한산도 남쪽 약 1km 정도 떨어져있는 섬이다.

각주를 사용하여 인근 지명 설명

근대문화재 I 근대건축

옥천성당

종목번호	국가등록문화재 제7호
지 역	충청북도 옥천군
작성요령	근대건축의 특징과 구조, 시대적 가치를 소개합니다.

기존 문안

한자 표기 오류

옥천 성당(聖堂)

등록문화재 제7호

옥천 지역의 천주교 전래와 옥천 성당의 관계 설명이 부자연스러움

옥천지역의 천주교 전래는 1880년경, 파리외방선교회 소속의 로베르 (A.P.Robert,金保祿) 신부의 전교를 시작으로 1900년을 전후하여 부이용 신부에 의해 본격적인 전교활동이 진행되었다

옥천천주교회는 1906년 5월 20일 본당으로 승격, 공주 본당에서 분리, 옥천읍 이문동(현, 門井里) 43번지에 설립되었고 한국인 사제인 홍병철(洪秉喆) 루가신부가 초대신부로 부임하였다.

1909년 5월 30일 성당을 죽동(현 竹香里) 으로 신축·이전하였고, 1914년부터 1928년까지 14년간 공소(公所)로 격하되어 비용 및 대전 본당의 관할하에 있다가 다시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전문 용어로 구조를 설명하여 난해함

현재의 성당은 제8대 메리놀외방선교회 소속의 페티프렌(R. Petpren邊聖行) 신부 재임시 1956년 4월 24일 신축 준공되었으며, 시멘트 벽돌을 사용한 1층 건물로 지붕은 왕대공형식이 변형된 목재 삼각형지붕틀 구조를 하고 있다. 그 후 1966년 종탑부의 부식된 함석마감을 기와로 변경하면서 환기창과 십자가형 첨탑(尖塔)이 철거되었고, 다시 1991년 중축공사로 긴 십자가형으로 평면이 바뀌었으며, 현재 보수공사로 기와지붕마감재를 기존의 함석마감재로 변경하였다.

지방에 남아있는 근대문화유산이라는 희소적 가치와 함께 한국전쟁이후 우리나라 종교건축변화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사적 의의를 지닌 귀중한 자료이다.

문화재의 가치를 산만한 문장으로 표현

개선 문안

한자 오류 수정

옥천성당

沃川聖堂

국가등록문화재 제7호

옥천성당은 1955년에 건립된 가톨릭 성당이다.

옥천 지역의 천주교 전래와 옥천 성당의 설립을 자연스럽게 소개

옥천 지역에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1900년경이다. 이후 신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고종 43년(1906)에 옥천읍 이문동(지금의 문정리)에 본당이 처음 설립되었으며, 홍병철 루카 신부(1874~1913)가 초대 주임으로 부임하였다.

성당의 역사와 관련 인물 소개

현재의 옥천성당은 한국전쟁 후 미국 메리놀외방전교회 소속의 로이 페티프렌 신부(1893~1977)가 옥천 지역에 제8대 주임으로 부임하면서 지은 서양식 건물이다. 1955년 9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이듬해 4월 대전교구장 아드리앙 조셉 라리보(1883~1974) 주교의 집전으로 성당 축성식을 올렸다. 당시 이 성당은 옥천에서 규모가 가장 큰 건물이었다. 종탑에 걸려 있는 종은 1955년 프랑스에서 들여온 것으로, 종소리가 매우 청아하다. 1991년에 장방형이었던 성당을 긴 십자가형으로 증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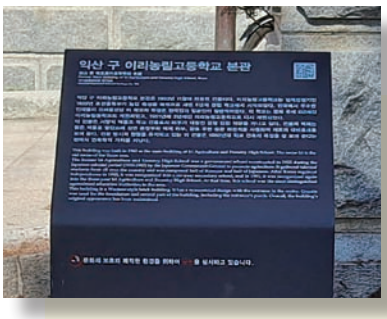
문화재적 가치를 밝힘

옥천성당은 1950년대에 지어진 충청북도 지역의 유일한 성당 건축물로, 교회 건축의 변화 과정을 살피는 데 매우 중요한 건물로 평가받고 있다.

근대문화재 | 근대건축

익산 구 이리농림고등학교 본관

종목번호 국가등록문화재 제758호
지 역 전라북도 익산시



신규 문안

익산 구 이리농림고등학교 본관

益山 舊 裡里農林高等學校 本館

국가등록문화재 제758호

건립 시기를 밝힘

익산 구 이리농림고등학교 본관은 1963년 11월에 완공된 건물이다. 이리농림고등학교는 일제강점기인 1922년 조선총독부가 농업 육성을 목적으로 세운 5년제 관립 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었던 이 학교의 학생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절반씩이었다. 이 학교는 광복 후에 6년제인 이리농림중학교로 개편되었고, 1951년에 3년제인 이리농림고등학교로 다시 개편되었다.

문화재의 건축적 특징 설명

이 건물은 서양식 벽돌조 학교 건물로서 좌우가 대칭인 균형 잡힌 외관을 지니고 있다. 건물의 벽체는 붉은 벽돌로 쌓았으며 정면 중앙부와 벽체 하부, 창호 주변 등은 화강석을 사용하여 재료의 대비효과를 보여 준다. 건립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이 건물은 1960년대 학교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는 점에서 건축학적 가치를 지닌다.

문화재 지정사유 설명을 통해 가치를 밝힘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

종목번호 국가등록문화재 제754호
지 역 세종특별자치시

신규 문안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

世宗 舊 山一製絲 工場

국가등록문화재 제754호

문화재의 내력을 밝힘

구 산일제사 공장은 일제 강점기에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내던 공장으로, 1927년 건립되어 해방 후까지 약 30년간 운영되었다. 6.25전쟁 당시 조치원여자고등학교가 불에 타자 1950년부터 1956년까지 6년간 임시 학교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후 편물 공장, 제지 공장 등으로 활용되며 2000년대까지 산업시설로 사용되었다.

공장의 현황과 구조적 특징 설명

현재 11동의 건축물과 굴뚝 등이 남아 있으며, 공장동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 공장동은 제사 공장에서 중요한 공정 중 하나인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공간으로, 톱날 모양의 지붕* 구조에 북쪽에 창을 두어 공장 내부에 자연 채광이 넓게 퍼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공장은 조치원 지역의 근대산업 역사를 담고 있으며, 근대 산업유산인 제사 공장의 건축 양식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톱날 모양의 지붕: 2개의 비대칭 면을 갖는 일련의 작은 지붕들로 구성된지붕. 경사가 가파른 지붕에는 주로 창문이 달려 있음.

각주를 사용하여 용어 부연설명

익산 나바위성당 사적 제318호

III.
부록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기준 (안내판, 안내 문안)

문화재 주변 공공디자인 점검표 (안내판)

문화재 안내판의 다양한 사례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안내판, 안내 문안)

·

문화재 주변 공공디자인 점검표

(안내판)

부록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안내판)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별표 2]

문화재청 예규 제224호 일부개정 2020.11.2

개념·기본

- 문화재를 안내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로, 문화재의 유형과 특징을 반영하여 이질감을 해소하고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배치

- 문화재와 연계하여 배치할 때에는 안내시설이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하되 휠체어·보행보조기기·유모차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와 시선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문화재와 중첩되거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안내시설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분산된 안내시설 또는 관련 안내시설을 통합 디자인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 안내판은 빛반사, 눈부심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종류

- 문화재안내판의 기본 종류는 해설안내판과 기능성안내판으로 구분하며, 해설안내판은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등으로 분류하되, 이 중 1개 이상의 안내판은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종합안내판은 문화재의 규모가 크고 다수 건축물이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 설치하되, 규모가 작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설판 및 해당 문화재의 주요 연표, 조감도나 안내지도, 주요 문화재, 관람정보 등이 담긴 지도판의 2종으로 구성한다.
- 권역안내판은 종합안내판이 있으면서, 문화재 안의 여러 공간이나 건축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권역의 규모에 따라 해설판과 지도판 2종으로 하거나, 해설과 지도가 하나의 안내판으로 통합된 1종으로 구성한다. 단, 통합 1종의 안내판을 제작할 때에는 해당 권역의 지도를 함께 삽입한다.
- 권역안내판은 종합안내판이 있으면서, 문화재 안의 여러 공간이나 건축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권역의 규모에 따라 해설판과 지도판 2종으로 하거나, 해설과 지도가 하나의 안내판으로 통합된 1종으로 구성한다. 단, 통합 1종의 안내판을 제작할 때에는 해당 권역의 지도를 함께 삽입한다.

크기

- 안내판은 인간체격기준척도를 지향하고 관람객에게 최적의 편의를 줄 수 있는 크기를 선택한다.
- 지나치게 웅장하거나 비대하여 문화재를 가리거나 관람객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면단위문화재 안에 안내판이 다수 설치될 경우 종류와 위계에 따라 크기를 달리 적용한다.

형태

- 전반적인 안내판 형태는 가능한 한 장식적 요소가 없는 단순한 형태로 하여, 문화재나 건축물 자체가 더 돋보이도록 한다.
- 해당 문화재 유형에 어울리는 형태를 선택하되 문화유산의 격에 맞는 미적 가치를 지니도록 한다.
- 해당 문화재의 안내판은 각각의 안내판 종류와 위계에 따라 형태를 달리 적용하되 디자인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성격이 비슷한 안내판은 가급적 형태를 일치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색상

- 색상 스펙트럼을 분석해 대상 문화재의 유형, 특성,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색상을 적용한다.
- 저명도 · 저채도의 드러나지 않는 색상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시각적으로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
- 원색 위주의 자극적 색상을 지양하고 눈의 피로를 줄이며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한다.
- 경고, 주의 등에는 진출색(붉은색, 노란색) 등의 원색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최소화한다.
- 2~3가지 색상 이내로 색을 최소한만 사용하여 현란하거나 화려하지 않도록 한다.
- 안내판의 기본 색상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안내판의 재질이 다를 경우에는 색상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글자색은 바탕색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글자색과 바탕색의 명도, 채도, 색상 등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재료

- 대상 문화재의 유형, 특성, 주변 경관에 가장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한다.
- 기존의 반사성이 강한 스틸 위주 재질을 지양하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하며, 인공소재를 사용할 경우 자연소재에 가까운 느낌으로 표면을 마감한다.
- 해당 문화재 안의 안내판은 같은 재질을 사용하되,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안내판은 재질을 달리할 수 있다.

기타

- 문화재 안내에 관한 시설물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의 기준에 따라 디자인한다.
- 관할 지자체의 로고나 후원기업과 관련된 상징그림 또는 문구는 삽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삽입해야 할 경우에는 안내판의 정면 오른쪽 아래 또는 옆면의 적정 위치에 작게 표기하여 안내정보의 습득이나 안내판의 전체적 디자인 정리 배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해당 문화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할 수 있되, 수록되는 정보는 해당 문화재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정보는 제외하고 해당 문화재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한다.
  - 위치: 안내판 오른쪽 윗부분 적정한 곳에 부착한다.
  - 크기: 가능한 한 최소한의 규모로 제작한다.
  - 재질 및 색상: 안내판과 조화되어 도드라지지 않도록 한다.
- 시설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크기가 적정한 서체로 계획하며 문자표기는 한 가지 색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해설안내판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안내 문안)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별표 2]

안내 문안 작성 기본 원칙

- 안내문안은 핵심정보 위주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주관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이고 관람객이 해당 문화재에 대해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이면 첨가할 수 있다.
- 역사적 사실은 공인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가장 최근에 발간된 문화재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및 문화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 안내문안은 해당 문화재를 관람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 및 내용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되, 이 경우 안내판의 전체적 디자인 및 구성 · 배열에 부합되도록 한다.
-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문장의 순서를 결정하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내용을 첫 문장에 작성한다. 이 경우 우선순위의 선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내문안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 첫 문장은 해당 문화재를 관람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며 해당 문화재의 기능, 유래, 특징, 역사적 · 문화재적 가치 등 문화재가 지정된 사유를 포함하여 설명한다.
- 해당 문화재의 형태나 크기,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거나 최소화한다.
-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설화, 전설 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근래의 사실이나 이야기라 할지라도 관람객에게 재미나 감동 또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첨가한다.
- 안내문안 안에서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앞에서 풀이하여 설명한 후에 기술한다.
- 문화재의 설명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생략한다.
- 최종 작성된 국어 안내문안은 국립국어원 또는 국어문화원의 감수를 거친다.

안내 문안 번역

-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국어문안 직역에서 탈피하여 적절히 의역한다.
- 필요할 경우 외국어번역을 위한 문안을 별도로 작성한다.
-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 국문 작성자와 외국어 번역자가 충분히 교감하여 의역상 오류를 최소화한다.
- 로마자 표기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배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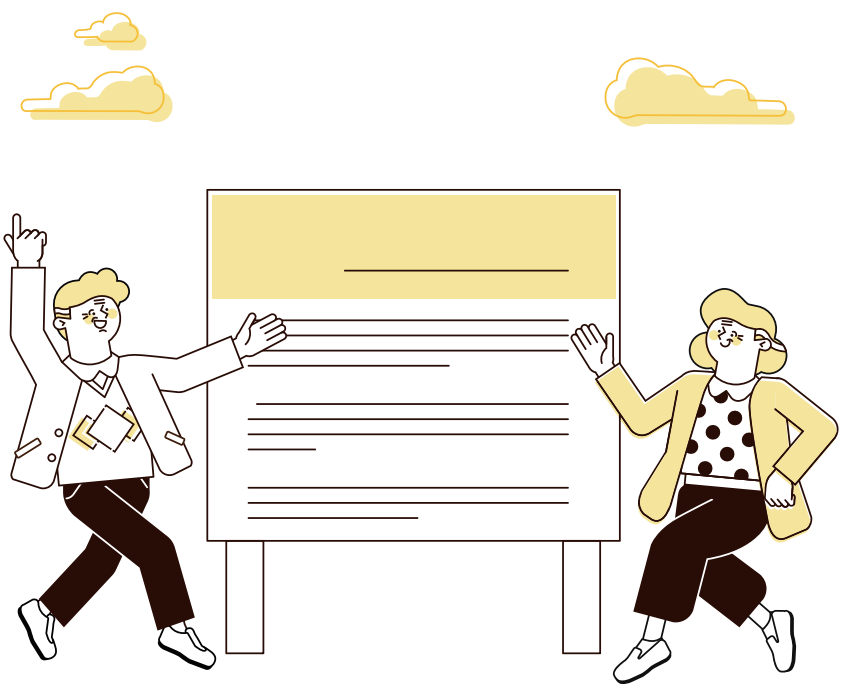
- 글자 크기는 관람객이 식별할 수 있는 적정 크기로 작성하되, 각각의 안내판 유형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는 아래와 같다

(단위: 포인트)

구분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길찾기안내판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서체급수 (최소한)	100	50	80	40	70	35	150	110

- 가독성을 높이는 정직한 서체가 바람직하며, 장식적 서체는 될 수 있으면 배제한다.

※ 추천 서체 : 제목(윤고딕 패밀리) / 본문(윤명조 패밀리)



《 안내문안의 구성요소 》

종합안내판	제목 부분	• 국문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의 영문 번역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 • 관련 설화, 전설, 민담 •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재 • 주요 관람 포인트 •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 국문 본문의 발췌 번역
권역안내판	제목 부분	• 국어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의 영문 번역 (권역명칭이 지정 문화재명인 경우 또는 그 외 필요시)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 권역의 특징 •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 • 관련 설화, 전설, 민담 •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재 • 주요 관람 포인트 •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 국문 본문의 발췌 번역
개별안내판	제목 부분	• 국어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의 영문 번역 (비지정문화재인 경우나 전설, 설화, 민담 등의 이야기 안내판의 경우는 생략)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 문화재의 규모(크기, 높이, 길이, 두께 등) 및 건립연도 •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 • 관련 설화, 전설, 민담 • 주요 관람 포인트 •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 국문 본문의 발췌 번역

《 안내문안 구성요소별 세부기준 》

- 종합안내판의 제목은 문화재 지정 명칭으로 하고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지정 명칭에 지명이 먼저 나오거나 지정 범위 등을 덧붙인 때에는 지명이나 지정 범위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 문화재안내판의 제목에는 반드시 한자를 병기하며, 이 경우 한자는 국문 명칭과 같은 줄이나 국문 명칭 다음 줄에 표기한다. 다만, 글자 크기는 한자가 한글보다 커서는 안 된다.
- 안내판 제목의 한자는 대상 단어를 음운의 변동 없이 변환 가능한 경우에만 한자로 변환해서 표기하며, 음운이 변동하는 우리말은 변환하지 않고 우리말을 그대로 표기한다.
- 안내판 제목에 두 개 개체가 접속조사나 접속부사로 이어진 경우, 한자 표기에서는 접속조사나 접속부사를 쉼표(,)로 바꾼다. 이때 가운뎃점(·)은 허용하지 않는다.
- 안내판의 제목 중 영문은 국문과 한자에 이어 같은 줄에 나열하거나 줄 바꿈 후 표기할 수 있다. 다만, 글자 크기는 영문이 한글보다 커서는 안 된다.
- 권역(영역)안내판의 제목은 안내판 설치 과정에서 설정된 권역의 이름으로 한다.
- 개별안내판의 제목은 문화재 지정 명칭으로 하되, 상위 위계의 종합안내판을 따로 세운 경우에 지명 등은 생략할 수 있다.
- 유적지 안에 있는 비지정문화재와 설화, 전설 등에 대한 개별안내판 명칭도 안내판 설치 과정에서 설정된 명칭을 따르며, 유적지명 등은 생략한다.
- 안내판 제목에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문안의 첫머리에서 풀이하여 설명한다.

지정 종별 및 지정 번호, 소재지

- 안내판에는 문화재의 지정 종별과 지정 번호는 표시하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않는다. 특히, 종합안내판이 있는 유적지 안 권역안내판과 개별안내판의 문화재 소재지는 반드시 생략한다. 이 때 지정 종별과 지정 번호는 제목보다 작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정 종별과 지정 번호는 한자 표기를 생략하고, 영문 번역 표기만 한다. 이때 해당 영문 표기 방법은 제목 표기 방법과 같다.

규모와 건립연도

- 석물, 전각 등의 개별안내판(필요시 종합안내판과 권역안내판도 포함)에는 각각 문화재의 규모(크기, 높이 등), 건립연도(시대 포함)를 표기할 수 있다.
- 지정 종별, 번호와 줄을 같이하거나 다음 줄에 달리 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규모와 건립 연도 모두 표기할 수 있다.
- 한자 표기 없이 영문 번역 표기만 하며, 이때 해당 영문 번역의 표기 방법은 제목 표기 방법과 같다.

언어 (국어, 영어) 의 표기

- 안내 문안 본문은 두 개 언어(국문/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문화재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부 내용과 용어에 한해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 안내 문안의 언어 표기는 국립국어원 어문 규정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지킨다.
- 문화재 명칭과 용어의 세부적인 영문 표기는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다.
- 안내 문안은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장에서 상하 관계가 분명한 경우, 즉 군신, 사제, 부자지간 등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안내 문안의 국문은 지정 서체로 통일해서 표기하며, 일부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해당 단어를 굵게 표기할 수 없다.
- 본문에 직접 풀어 쓴 설명이 아닌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은 안내문 아래에 각주로 표기하거나 해당 글자 오른쪽 윗부분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한다.
- 본문에 외래어가 나올 경우 외래어의 어원을 따로 밝히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영문 문안에만 원어를 표기한다.
- 영문표기의 경우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나타내는 단어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한자의 표기

- 한자는 안내판의 제목에 표기하는 경우와 인물, 지명, 문화재 명칭 등 특별한 경우 말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의미를 전달하고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자의 표기 여부는 안내 문안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 국문 문안 본문에서 한자를 표기할 때는 해당 글자의 오른쪽 소괄호(()) 안에 작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괄호 없이 작게 표기할 수도 있다.
- 모든 한자는 같은 안내판에서 처음 나온 단어에 한 번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목과 동일한 단어는 본문에 한자 표기를 할 수 없다.
- 유적과 직접 관련된 인물명에만 한자를 병기하며 사망 연도와 출생 연도 등은 표기하지 않는다.
- 인물의 호는 되도록 표기하지 않으며, 호가 성명과 함께 쓰여 인물을 부연 설명하거나 성명을 호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표기할 수 있다. 이때 한자는 해당 단어 뒤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호와 성명을 모두 표기할 때는 성명 뒤에 한꺼번에 적는다.
- 영문 본문에는 오직 영문만을 표기하며 한자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숫자의 표기

- 연도, 연대, 물량을 나타내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문화재 명칭과 고유명사에 포함된 숫자는 한글로 표기한다.
- 수목안내판에 수령을 표기하는 경우는 해마다 수령이 늘어나므로 대략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목을 심은 연도를 정확히 알 때는 절대 연도를 직접 표기할 수 있다.
- 날짜는 ○○○○년 ○○월 ○○일로 표기하되, 10이하의 숫자에는 0을 표기하지 않는다.

연대표기

- 연도는 확실히 아는 경우에만 절대 연도로 표기하며 정확한 연도를 모르는 경우에는 세기로, 정확한 세기를 모르는 경우에는 시대로 표기한다.
- 대략적인 연도를 아는 경우에는 절대 연도 뒤에 '무렵', '즈음', '경' 등을 붙여서 표기할 수 있다.
- 왕조 연대와 왕명 다음에 서기를 표시하며 같은 왕조 연대, 재위 기간에는 국호와 연호를 거듭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왕조 연대나 왕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또한 생략하고 연도만 표기하는 것도 허용한다.
- 왕의 재위 연호를 쓰는 경우에도 정확한 연도는 소괄호(()) 안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로 없이 작게 표시할 수도 있으며, 연도 뒤에 '재위'라고 쓴다.
- 문화재안내판에는 역사 인물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는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문화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만 표기하되, 이 경우에도 주변 인물들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는 표기하지 않는다. 생몰연도를 표기할 때는 소괄호(()) 안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괄호 없이 작게 표기할 수도 있다. 한자와 함께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자 다음에 표기한다.

도량형의 표기

- 도량형은 미터법에 따라 표기하며, 단위는 기호로 표기한다.
- 규모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단위를 통일하여 가로, 세로, 높이, 두께 순으로 표기하되, 그 표현은 달리할 수 있다.
- 한 문장(복문, 중문 포함)에서 단위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위로 통일하되, 수치에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 가능한 다른 단위로 적는다.
- 서화는 가로, 세로 순으로 표기한다.

고어

- 안내 문안에서 고어가 고유명사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고, 단독으로 있는 경우에는 현대어로 바꾼다.

방향

- 안내 문안에서 방향 표시는 문화재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정한다. 다만, 문화재를 직접 가리는 위치에 안내판이 놓이지 않도록 관람 동선과 동떨어진 곳에 안내판을 둘 경우에는 현재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한다.
- 방위(동서남북)는 날씨에 따라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안내 문안에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지형이나 이론 등 일반적인 학설을 설명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방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안내판과 권역안내판 등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문화재가 다수 밀집되어 관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권역안내판 지도에 각각의 명칭을 구분해 표기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문화재 주변 공공디자인 점검표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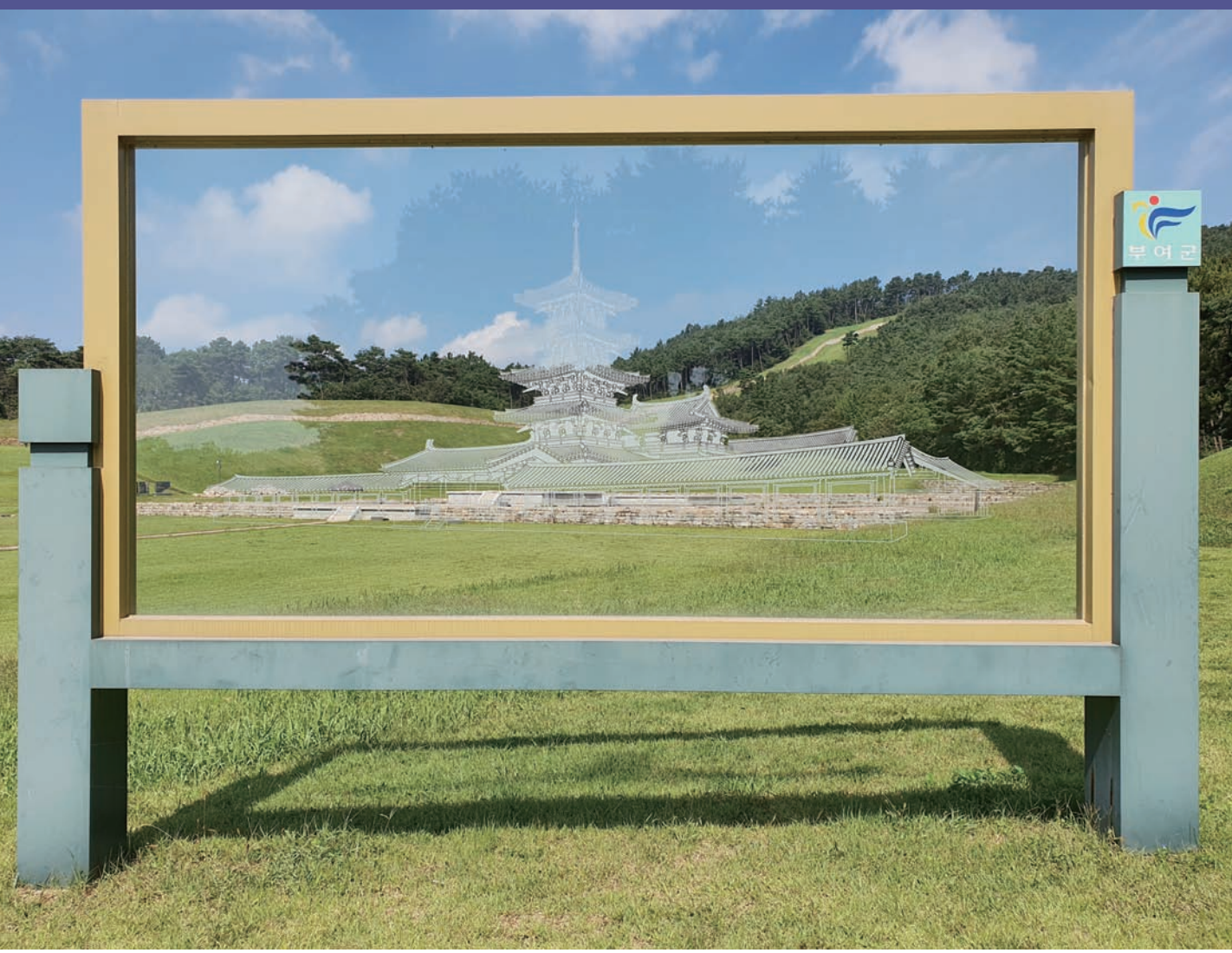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별표 3]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문화재와 연계하여 배치할 때에는 안내시설이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하되 휠체어·보행보조기기·유모차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는가?	□	○ △ ☒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와 시선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	○ △ ☒
	· 문화재와 중첩되거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 ☒
	· 안내시설을 통합 디자인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	○ △ ☒
	· 안내판은 빛반사, 눈부심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	○ △ ☒
규모	·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로 연출하였는가?	□	○ △ ☒
	· 이용자 조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 및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	○ △ ☒
형태	· 사인물 간의 공통된 디자인을 공유하여 형태가 통일되도록 하였는가?	□	○ △ ☒
	·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였는가?	□	○ △ ☒
	· 인간체격기준척도 및 이용자 조망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는가?	□	○ △ ☒
재료	· 문화재와 인접한 안내시설은 단일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 고광택 금속재의 노출을 지양하고 도장 또는 표면 처리를 하였는가?	□	○ △ ☒
	· 자연 소재에 가까운 재료를 사용하여 문화재와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	○ △ ☒
색채	· 사인시설물은 사용하는 색의 수를 제한하고 원색 사용의 비중을 최소화하였는가?	□	○ △ ☒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사용하여 인지성을 높이며 복잡하지 않은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 ☒
	· 글자색은 바탕색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글자색과 바탕색의 명도, 채도, 색상 등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	○ △ ☒
기타	· 문화재 안내에 관한 사인시설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의 기준을 준수하여 디자인하였는가?	□	○ △ ☒

문화재 안내판의 다양한 사례

부록

부여
능산리 사지



종목번호 | 사적 제434호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특징 | 폐사지 복원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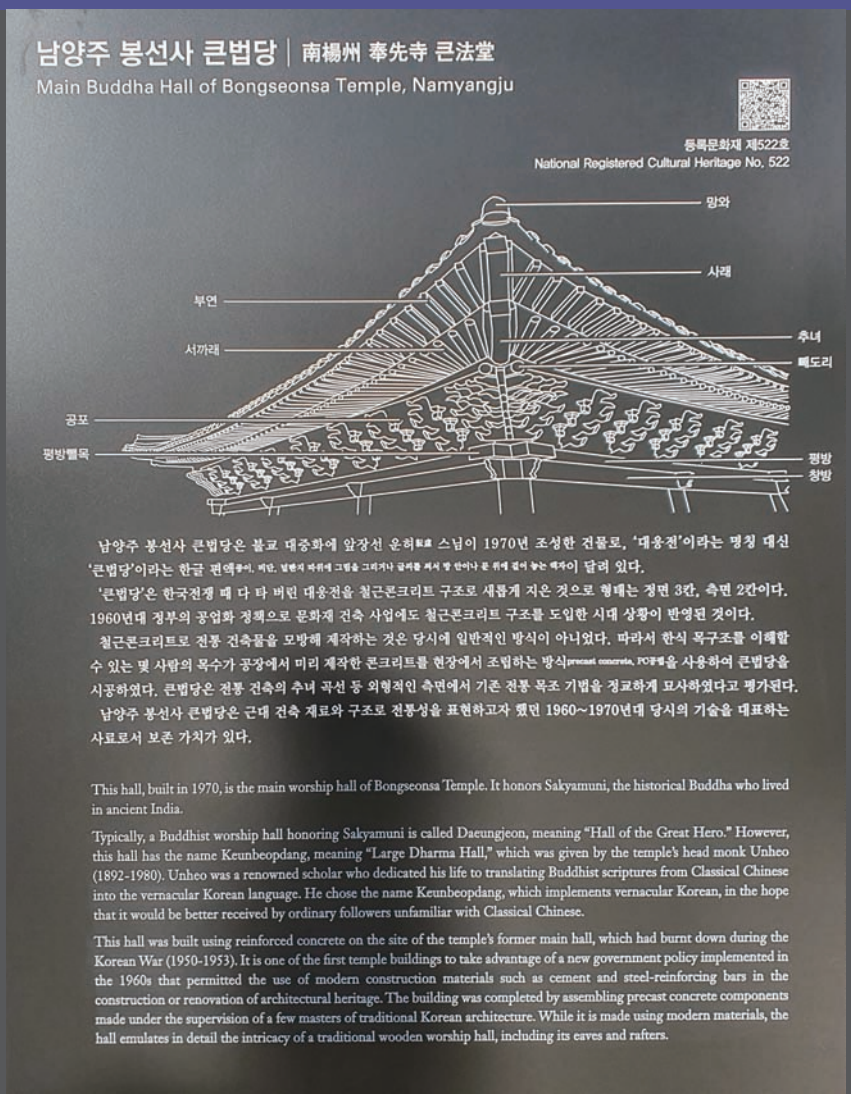
울주 대곡리 연로개수기

종목번호 | 비지정 문화재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특징 | 투명 아크릴판을 활용하여 암각내용 전달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 | 南楊州 奉先寺 큰法堂

Main Buddha Hall of Bongseonsa Temple, Namyangju

등록문화재 제522호
National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 522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은 불교 대중화에 앞장선 운허화상 스님이 1970년 조성한 건물로, '대웅전'이라는 명칭 대신 '큰법당'이라는 한글 편액을 붙이. 비단, 법문지 따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방 안이나 문 위에 걸어 놓는 액자이 달려 있다.

'큰법당'은 한국전쟁 때 다 타 버린 대웅전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새롭게 지은 것으로 형태는 정면 3칸, 측면 2칸이다. 1960년대 정부의 공업화 정책으로 문화재 건축 사업에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도입한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철근콘크리트로 전통 건축물을 모방해 제작하는 것은 당시에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따라서 한식 목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몇 사람의 목수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precast concrete, PC공법을 사용하여 큰법당을 시공하였다. 큰법당은 전통 건축의 추녀 곡선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 기존 전통 목조 기법을 정교하게 묘사하였다고 평가된다.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은 근대 건축 재료와 구조로 전통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1960~1970년대 당시의 기술을 대표하는 사료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

This hall, built in 1970, is the main worship hall of Bongseonsa Temple. It honors Sakyamuni, the historical Buddha who lived in ancient India.

Typically, a Buddhist worship hall honoring Sakyamuni is called Daeungjeon, meaning "Hall of the Great Hero." However, this hall has the name Keunbeopdang, meaning "Large Dharma Hall," which was given by the temple's head monk Unheo (1892-1980). Unheo was a renowned scholar who dedicated his life to translating Buddhist scriptures from Classical Chinese into the vernacular Korean language. He chose the name Keunbeopdang, which implements vernacular Korean, in the hope that it would be better received by ordinary followers unfamiliar with Classical Chinese.

This hall was built using reinforced concrete on the site of the temple's former main hall, which had burnt down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It is one of the first temple buildings to take advantage of a new government policy implemented in the 1960s that permitted the use of modern construction materials such as cement and steel-reinforcing bars in the construction or renovation of architectural heritage. The building was completed by assembling precast concrete components made under the supervision of a few masters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While it is made using modern materials, the hall emulates in detail the intricacy of a traditional wooden worship hall, including its eaves and rafters.

종목번호 | 국가등록문화재 제522호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특징 | 도면자료 활용

부여 홍산 상천리 마애불입상

종목번호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40호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특징 | 도면자료 활용

목포 갓바위

종목번호 | 천연기념물 제500호

지역 | 전라남도 목포시

특징 | 그림자료 활용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종목번호 | 국가등록문화재 제718호

지역 | 전라남도 목포시

특징 | 위성지도 활용

동해 구 상수시설

종목번호 | 국가등록문화재 제142호

지역 | 강원도 동해시

특징 | 사진자료 활용

태백 장성이중교

종목번호 | 국가등록문화재 제111호

지역 | 강원도 태백시

특징 | 사진자료 활용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종목번호 | 보물 제2011호

지역 | 전라남도 목포시

특징 | 파노라마 사진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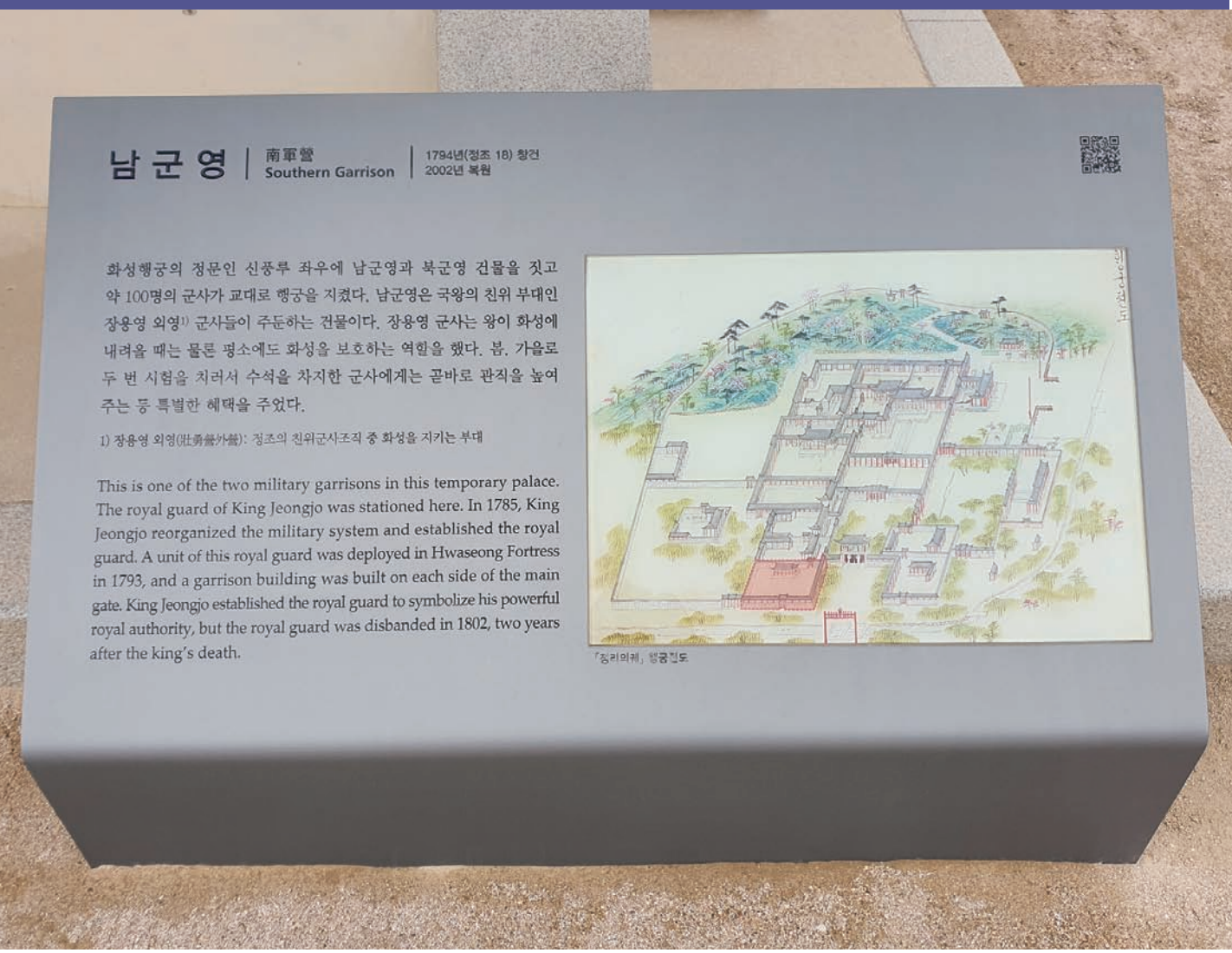
포천 화적연

종목번호 | 명승 제93호

지역 | 경기도 포천군

특징 | 사진자료 활용
내용에 따라 분리설치
(문화관련, 자연관련)

수원 화성행궁



종목번호 | 사적 제146호

지역 | 경기도 수원시

특징 | 의궤도면 삽입(복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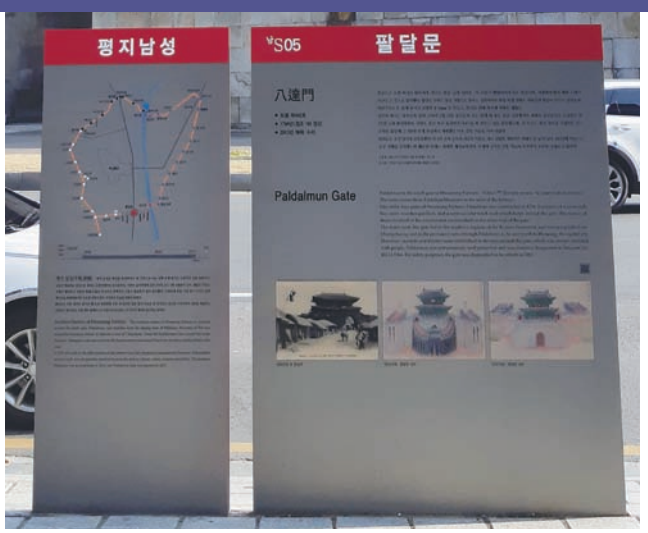
포천 화적연

종목번호 | 명승 제93호

지역 | 경기도 포천군

특징 | 겸재 정선 산수화 활용

수원 화성



종목번호 | 사적 제3호

지역 | 경기도 수원시

특징 | 구역별로 안내판 색깔부여

찾아보기

찾아보기

광역	시군구	종목번호	문화재명	분류	페이지
서울 특별시	강북구	보물 제11-5호	사인비구 제작 동종-서울 화계사 동종	불교문화재-종	114
		시도유형문화재 제65호	화계사 대웅전	불교문화재-고건축	106
부산 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호	동래부사 유심 선정비	건조물-비석	38
	동구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4호	실상사 칠성도	불교문화재-불화	1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적 제411호	대구 진천동 입석	사적지-선사유적·발굴터	74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 제3호	김용학 가옥	건조물-고택	52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4호	파평윤씨 서윤공파 고택	건조물-고택	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9호	장도포대지	사적지-관방유적	78
세종특별자치시	-	국가등록문화재 제754호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	근대문화재-근대건축	147
경기도	남양주시	보물 제2013호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	불교문화재–탑/부도	89
	양평군	보물 제1790호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불교문화재-불상	98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5호	이항로 선생 생가	건조물-고택	54
		경기도 기념물 제96호	이준경 선생 묘	사적지-묘역	82
	용인시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44호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불교문화재-불상	96
강원도	태백시	국가등록문화재 제21호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	근대문화재-근대시설	140
		강원도 기념물 제58호	태백 월둔동굴	자연문화재-화석지질	126
충청 북도	옥천군	국가등록문화재 제7호	옥천성당	근대문화재-근대건축	144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7호	옥천 용암사 마애여래입상	불교문화재-불상	94
	청주시	사적 제315호	청주 흥덕사지	불교문화재-사지	108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	자연문화재-동물류	134
		국가등록문화재 제666호	대한민국 최초 운용 전투기(F-51D 무스탕)	근대문화재-근대동산	138
충청 남도	공주시	사적 제474호	공주 정지산 유적	사적지-선사유적·발굴터	72
	부여군	사적 제249호	부여 송국리 유적	사적지-선사유적·발굴터	70
		사적 제427호	부여 왕흥사지	불교문화재-사지	110
	서천군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32호	서천읍성	사적지-관방유적	76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406호	서천 이곡의 묘	사적지-묘역	84
	천안시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85호	광덕사 부도	불교문화재-탑/부도	92

광역	시군구	종목번호	문화재명	분류	페이지
전라북도	고창군	천연기념물 제184호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자연문화재-식물류	120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77호	흥성 동헌	건조물-관아건축	46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63호	송양사	건조물-사묘재실	60
	무주군	천연기념물 제322호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자연문화재-동물류	132
	순창군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8호	순창객사	건조물-관아건축	48
		전라북도 기념물 제86호	설씨부인, 신경준선생유지	사적지-유허지	80
	익산시	보물 제825호	익산 숭림사 보광전	불교문화재-고건축	104
		국가등록문화재 제758호	익산 구 이리농림고등학교 본관	근대문화재-근대건축	146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91호	해동사	건조물-사묘재실	62
	진도군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7호	진도향교	건조물-향교·서원	56
경상북도	안동시	천연기념물 제473호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자연문화재-식물류	119
	영양군	천연기념물 제476호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	자연문화재-식물류	122
	예천군	국가무형문화재 제84-2호	예천통명농요	무형문화재	130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75호	예천 초간정	건조물-누·정	64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60호	예천 용문사 중수용문사기비	불교문화재-비석	112
경상남도	거제시	명승 제2호	거제 해금강	자연문화재-명승류	128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	거제 포로수용소	근대문화재-근대시설	142
	남해군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74호	남해 보리암 전 삼층석탑	불교문화재-탑/부도	90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77호	남해금산영응기적비 대한중흥송덕축성비	건조물-비석	40
	산청군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632호	산청 망추정	건조물-누·정	66
	창녕군	국가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 줄다리기	무형문화재	131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4호	창녕 성사제 신도비	건조물-비석	42
	함안군	천연기념물 제222호	함안 용산리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	자연문화재-화석지질	124

익산 숭림사 보광전 보물 제825호

普光
大地山河如果日
一光東照八千土

2020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집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문화재청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	042-481-4744, 4742
홈페이지	http://www.cha.go.kr
기획 및 편집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디자인/제작	레드-컴

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1983-01
ISBN	978-89-299-2056-2 93600

2020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집

문화재청

ISBN 978-89-299-2056-2 93600